

국립국어원 2007-01-64

발간등록번호

11-1370252-000113-01

세종학당 교재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백 봉 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7-01-64

발간등록번호

11-1370252-000113-01

세종학당 교재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백 봉 자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세종학당 교재 개발”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연구책임자 : 백 봉 자(경희대)

연구책임자 백봉자

공동연구원 이정희, 이 숙, 김은애

보조연구원 서진숙, 박선희, 노혜남

차 례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 내용 및 절차	3
2.1. 연구 내용	3
2.2. 연구 절차	4
3. 국외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의 주요 쟁점	6
3.1. 교재 개발의 주요 쟁점	6
3.2. 교재 및 교육 자료 분석	14
3.2.1. 국내 교육 자료 분석	14
3.2.2. 국외 교육 자료 분석	65
3.2.3. 국내 주재 해외 문화원 교육 자료 분석	88
3.2.4. 국외 한국어 학습자 요구 조사 분석	117
4. 국외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의 원리	132
4.1. 기존 교재의 한계점	132
4.1.1. 교재 외적 요인	133
4.1.2. 교재 내적 요인	135
4.2.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원리	142
4.2.1. 일반적 원리와 목표	143
4.2.2. 세종학당 교재의 구성 원리	148
4.3. 결론 및 제언	166
5. 세종학당 정규 과정 교재 모형	169
5.1. 단위 모형 I	170
5.1.1. 기본 교재	170
5.1.2. 교사용 지도서	185
5.1.3. 학생용 연습 교재(Workbook)	194
5.2. 단위 모형 II	197
5.2.1. 기본 교재	197
5.2.2. 교사용 지도서	211
5.2.3. 학생용 연습 교재(Workbook)	220
참고문헌	224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이 연구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의 진흥과 한국 문화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¹⁾ 정규 과정²⁾ 교재 개발을 위한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급격한 국제화와 정보화는 세계를 하나의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제 지상주의에서 문화 지상주의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문화 강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에서는 고유문화의 보유와 보급이 그 척도가 되며 문화 보급의 바탕이 되는 언어 교육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는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³⁾하여 언어문화권역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가 언어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어 교육 진흥과 한국 문화 보급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한국어 문화권역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전통 문화와 인간 중심의 가치 철학이 결합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 문화의 전파를 통한 ‘한국어 문화권역 확장’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다. ‘한류’의 확산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인 취업 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다.⁴⁾ 또한 한국어 학습 수요층이 외교관, 학자, 유학생, 재외 동포 2, 3세 등의 특수 계층에

1) 세종학당은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로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교육시설’이다.

2) 세종학당 교육 과정은 정규 과정, 특화 과정 그리고 특별 과정으로 구성되며, 정규 과정에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의 4개 교과 과정(강좌)을 두고 있다. 세종학당 정규 과정은 한국어 표현·이해 중심의 한국어 구사 능력 습득과 한국 문화 이해를 교육 목표로 하며, 문화 상호주의 정신과 대조·비교언어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상대국가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활용하여 가르침으로써, 양국의 문화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도록 한다.

3) 조선일보 2007년 1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까지 ‘공자학원’을 500개소로 늘리고, 일본은 ‘일본어국제센터’를 현재의 10개 거점을 100개 거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4) 중국 지역을 일례로 보면 ‘한국어 능력시험(노동부 주관)’ 현지 응시자 수가 2002년 424명에서 2006년 9,56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북경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수강자는 1994년 700여 명에서 2005년 10,000여 명으로 수용 한계를 초과하였다.

서 현지의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습 동기 또한 ‘한국학 연구와 유학’ 목적에서 ‘취업과 유학’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한국어 학습자의 저변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국외 한국어 교육 환경은 일반 대중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외 한국문화원에 집중되고 있는 한국어 강좌는 시설 여건이 미흡하고 무자격 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비정규 교육 기관인 한글학교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어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교재의 부족과 문화 교육 자료가 빈약하여 학습효과 반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물 이해와 문화적 충돌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제 국외 한국어 교육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체계 확립과 함께 한국어 교육 기관,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 교재, 교육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세종학당 정규 과정 기본 교재⁵⁾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언어 교육 자료와 교육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의 표준을 마련하고 교육의 내용과 교수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은 곧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전 세계 한국어 교육 진흥과 한국 문화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의 저변을 탄탄히 할 것이다.

5) 세종학당 정규 과정 기본 교재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단계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기존의 문법 중심의 교육이 아닌 언어 사용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쌍방향 문화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구 내용 및 절차

2.1. 연구 내용

교재는 교사, 학습자와 함께 언어 교육의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어 교육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교재는 발전하는 교수법과 검증된 학습 방법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해당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외 한국어 교육 환경은 교재와 교육 자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동기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학습 효과 반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문화적 충돌을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교재의 역할과 국외 한국어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이 연구는 세종학당 설립 취지와 운영 규정, 그리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세종학당 교재의 개발 방향과 원리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교재의 내용과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교재의 내용은 한국의 보편적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지와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한국 문화가 국외 일반 대중과 어떻게 교류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양방향 문화 이해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적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셋째, 국외 한국어 학습자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⁶⁾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언어 4기능을 통합하고 학습과 동시에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넷째,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종학당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문법, 어휘 등의 언어 요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교재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현지 한국어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학

6) 세종학당은 현지 일반 대중을 위한 한국어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하고 그 대상을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망은 강하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확고히 할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해결 과제이다.

습 동기와 목적에 맞춘 다양한 보조 교재와 연습 교재, 멀티미디어 교재 등을 제시한다.

2.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연구 방향, 내용, 절차를 수립한다.

제2단계에서는 세종학당 교재의 개발 원리를 설정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기초 조사는 첫째, 국내 대학 기관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교재와 같은 일반 대중 대상의 교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국외 한국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능, 문화 항목 및 주제를 정리한다.

둘째,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지 집필, 또는 현지 출판된 교재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특히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와 베트남, 몽골, 중앙아시아 등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및 교육 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현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재의 내용에 대해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교재에 반영한다.

셋째, 한국 내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자국 언어 해외 보급을 위한 선진국 문화원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 및 교육 자료의 종류와 유형을 분석하여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접근 방법과 교수방법을 참고한다. 이를 통해 교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성, 배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살펴며, 부교재 및 교육 자료의 수준과 종류를 검토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화 항목의 추출, 주제, 내용, 어휘와 문법의 제시와 연습 방법, 교재가 담고 있는 교수법과 연계를 분석한다.

제3단계에서는 교재와 교육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 교재의 한계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원리를 설정한다.

제4단계에서는 세종학당 교재 개발 원리를 바탕으로 단위 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연습 교재(Workbook)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제4단계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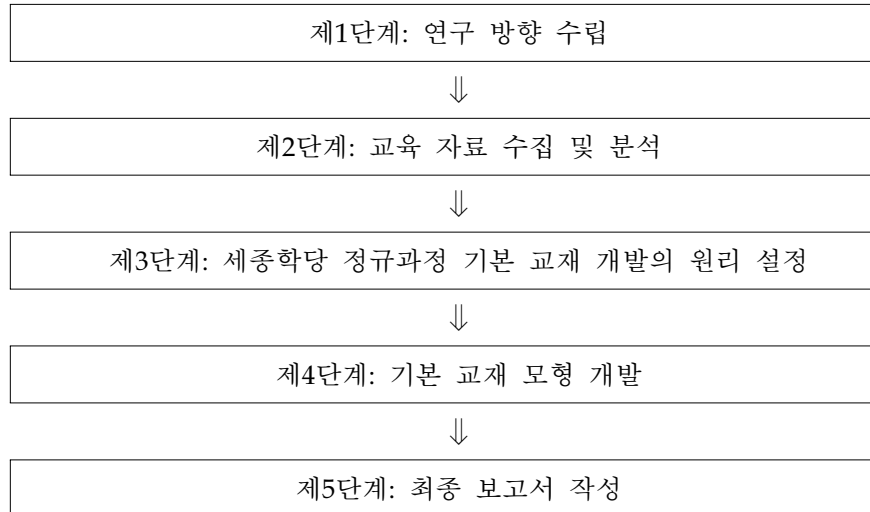


표1. 연구 절차

3. 국외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의 주요 쟁점

현재 한국어 교재는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와 교육 기관의 증가로 인해 많은 양의 교재가 출판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용과 국외용 교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지역별로 현지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해 만든 교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반 대중 학습자 중심이라기보다는 특수 목적 학습자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국내 주재 해외 문화원의 교육 교재 및 교육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2개월 간 실시한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분석하였다.

3.1. 교재 개발의 주요 쟁점

1) 내용적 측면

(1) 문화 교육

언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 교수법에서 문화 항목은 언어 교육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되었다. 이는 단순히 문법적 지식과 어휘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은 언어생활에 녹아 있는 문화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재도 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교육이 수행하는 기능을 백봉자⁷⁾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7) 백봉자(2006),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31집, pp.1~2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학술대회 발표문.

㉠ 한국 사회의 이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자료는 학습자의 문화적 충격을 덜어주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 효율적인 언어 교육

문화를 언어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휘나 문장 내용의 정확성 확보가 가능하다.

㉢ 현대 문화와 전통문화의 연계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다중적, 다선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생활 문화와 과거 전통문화가 서로 연계되거나 또는 과거 전통 문화로부터 현대 생활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쌍방향의 문화 교류

한국 문화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상대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 즉 학습자로부터 자신의 문화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주어진 시간에 이러한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쌍방향 문화 교류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할 문제이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돋우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취약한 분야로 되어 있다. 문화 교육은 아직 표준 교과과정이 없어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선정이 되지 않았고 교육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 일부 교재를 제외하고는 문화를 형식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소개할 만한 한국 문화 항목, 교육과정, 교수법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일류보편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

지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화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왔는데⁸⁾ 문화 제시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어 교육용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박영순, 조항록, 조현용)⁹⁾, 초급에서는 현대 생활 문화를, 고급에서는 전통 문화로 한다고 하는데(조항록, 백봉자)¹⁰⁾ 이러한 의견에 문제는 없는지, 과연 전통 문화를 저급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문화는 주제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문화를 언어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¹¹⁾ 문화를 한국어 교재에서 목표 내용으로 다룰 경우에는 문화가 대화의 표면에 등장하거나 지문 내용으로 직접 다루어져야 하는데 저급 교재에서 한국어로 이것이 가능하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문화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담화 공동체 안에서 화용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화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문화 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어떤 소재를 어떤 자료로 개발하여야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 읽기 자료
- 문학작품 자료
- 듣기 자료
-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

8) 그러나 백봉자 외(2006), '한국언어문화사진집'에서는 문화를 '한국 즐기기(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 한국 살기(한국의 생활 문화), 한국 알기(지식이 필요한 한국 문화)'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9) 박영순(2002)에서는 문화 유형을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제도문화, 학문문화, 산업기술문화로 나누어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조항록(2001)에서는 '비교적 순수 전통 문화, 비교적 전통에 기반한 현대 일상 문화, 비교적 순수 현대 문화'로 나누어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 반면, 조현용(2003)에서는 '한글과 한국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 예절, 한국인의 사고와 표현'으로 나누어 한국어와 관련된 문화를 중심으로 항목을 선정하였다.

10) 조항록(2001), 백봉자(1997)

11) 배현숙(2002)에서도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제시 순서가 문법적 난이도에 따른 것도 아니고, 문화 항목 내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갖고 순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문화 습득 과정에 맞춘 것도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어 교재의 문화는 유형과 무형, 현대와 옛날의 것들이 대개 교재 본문 내용과 관련되어 제시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 비디오 자료
- 영화 자료
- 광고 자료
- 인터넷 자료

(2) 언어 교육

① 주제 및 내용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주제나 내용은 그 범주 구분에 있어 대체로 별 다른 차이가 없다.¹²⁾ 그것은 초급에서는 필수 회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는 일상이 학교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결혼 이민 여성의 경우는 집과 시집, 그리고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어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¹³⁾

학교가 아닌 일반 국외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한국이 아닌 현지에서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또 진학 목적이 아닌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 과연 이러한 주제와 내용이 학습자에게 알맞은 것인지 논의해 볼 만하다. 이 점이 지금까지 개발된 교재가 국외 일반 학습자에게 맞는 교재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② 어휘

어휘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실 어휘만으로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 교수 방법에서 어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2) 경희대, 연세대, 한국어세계화재단 초급 한국어 교재에 소개된 주제는 ‘소개/인사 가족소개, 학교와 집, 하루 생활/시간, 위치/길 찾기, 구매/배달, 주말, 음식, 초대, 길 찾기, 교통/지하철/버스/택시, 취미, 전화, 우편, 사람 묘사하기, 은행, 병, 날씨, 여행/휴일과 방학, 집안일/세탁소/포장이사’로 3개 교재의 주제 범주가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13) 여성가족부(2005),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경우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살림을 꾸러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새 단어 제공은 주제에 따라 하기 마련이다. 주제를 선정해 놓고 그 주제와 관련 있는 것을 새 단어로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명사나 동사의 경우에는 함께 사용하는 조사나 어미와 함께 주어서 문형 개념으로 학습하게 하여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때 어휘의 선택 범위는 선행 학습 어휘와 관련을 짓고 또 확장의 범주도 고려한다. 새 단어의 수는 시간 당 소화할 수 있는 수와 교재의 각 단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를 산정해서 제시한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할 수 있는 수는 저급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욕구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어휘를 줄 수 있으나 고급으로 가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어휘와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그 유사점과 상이점을 고려하여 사용법을 익히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급과 고급에서 제시하는 어휘 수는 거의 같은 것이 보통이다.

교재 개발 과정에서 어휘의 난이도는 중요한 것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 중심,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삼을 경우에 학습자에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이도란 학습자의 관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학습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 표현 어휘로 제시하느냐 이해 어휘로 제시하느냐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문법

현재 출판된 교재 중에는 표면적으로는 내용 중심의 교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문법 중심의 교재인 것이 많다. 그만큼 현재 교재 대부분이 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결국 수업도 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 문법은 대단히 딱딱하고 거부감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가 저급에 비해서 고급학습자 층이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처음에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문법 중심이 아닌, 대화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법에 역점을 두지 않고 문법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문법을 가르치되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담화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는 문법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부 교재에서는 문법을 제시할 때 설명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설명을 학습자

의 모국어로 하거나 한국어로 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학습자의 모국어로 간결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잘못하면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살 경우가 있다. 또 한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연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설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학습자의 반응을 더디게 하는 수도 있는 것 같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연습 단계 다음에 진행되는 활용 단계는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자기 실력에다가 그 시간에 배운 어휘, 문법, 내용을 더하여 학습자의 언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대체로 한국어 교재에는 어휘와 문법 같은 언어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활용 단계를 꾸밈으로써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 단계에서 과제로 주어지는 것들은 문화가 포함된 것인지, 학습자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문제 해결을 고려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문제를 주기위한 문제는 아닌지, 진정으로 학습자의 문제를 교사가 알고 교재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문법의 난이도는 어휘의 난이도와 다르게 해석된다. 문법의 난이도는 빈도수에 따라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구어체에서 자주 쓰이는 문법은 대체로 초급용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어 교재 고급용 문법은 이해 문법과 표현 문법으로 분류해서 다룬 것이 별로 없지만 현대 한국인의 언어 행위가 극도로 단조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¹⁴⁾

④ 발음

발음 난을 삽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발음까지 삽입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 발음은 음운 변동이 심한 언어이고, 또 발음의 정확성은 학습자가 기초 단계에서 꼭 익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14) 현대 한국인의 존대법에서 하오체를 안 쓰는 것, “저”보다 “나”를 자주 쓰는 것 등.

⑤ 교수법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는 중심 교수법이 무엇이나에 따라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교재를 선택할 때는 그것이 표방하는 교수법을 고려하게 된다는 의미다. 근래에 개발된 교재는 대체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과 청각구두 교수법의 특성과 장점을 취합한 통합교수법을 택하고 있다. 즉 과정 중심, 학습자 중심, 과제중심의 교수법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권장하는 교수법을 의미한다.

과정 중심의 교수법이란 구성주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현재 이해해야 할 텍스트를 인식하고 해석하여 새롭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표현의 경우에도 자신의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목표 언어 사회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표현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재의 내용이나 문제 유형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과정 중심 교수법과는 거리가 있다. 또 청각구두교수법에서는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문형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많은 반복 연습(Drill)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역시 되어있지 않다. 결국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통합 교수법이란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란 말 그대로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 교실의 학생 수나 교재 사용 학습자의 요구가 다르므로 교재가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작되기는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교사의 교안이다. 다만 기본 골격과 주제와 내용이 학습자의 요구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자 중심 교재는 학습자의 다양한 목적과 언어 수준과 연령 등 변인에 맞는 교재로 개발 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과제중심 교수법은 그 과제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할 수 있으며 적응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적인 과제는 학습자에 별 흥미도 끌게 하지 못하고 문화 적응력도 길어 주지 못한다. 과연 학습자에게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자기 문화와 한국 문화를 대조하면서 새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재에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학습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것은 자기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것과 비교하여 자기 것을 우위에 둘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언어 교수에서 네 가지 영역

언어 교수-학습에서 말하기·쓰기·듣기·읽기 영역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능력의 향상이란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말하기에서 얻은 지식을 쓰기에서 확인하고 심화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읽기에서 얻은 내용 지식을 토론이나 좌담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또 말하기에서 얻은 어휘·문법 지식으로 듣기를 하고 이해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서로 확대하고 확장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라서는 각 기능의 수준이 달라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국외 동포의 경우에는 환경 덕분에 말하기와 듣기는 잘하지만 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역시 환경 때문에 듣기가 아주 약한 경우를 본다. 이런 경우에는 영역별로 교재가 따로 있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4) 평가

성취도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사에게는 수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한국어 교재에 자주 등장한다. 대개 연습 교재에 쓰기 형태로 삽입하기도 하지만 본 교재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 풀이부터 하는 것은 수업의 맥을 끊는 것이 되고 학습에는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2) 형식적 측면

말하기 교재의 경우, ‘도입 - 제시 - 연습 - 활용 - 마무리’의 원리에 따라 도입

에서는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와 함께 몇 개의 질문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하도록 하는 교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혹은 대화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화 와 관련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

대화문을 듣기로 주고 책 뒤쪽에 제시하거나 그 과의 제일 마지막 쪽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습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그 다음에 ‘새 단어 - 문법 - 연습 - (문화) - 과제 - (평가)’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문화를 중심에 두는 교재 개발을 한다면 문화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가 문제로 남는다.

수업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주당 5일 10주 과정과 같은 집중과정에서는 반복과 확장이 어렵지 않지만 기간이 짧고 집중 교육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순환적, 반복적인 배열을 해야 한다. 순환적 배열의 경우 학습자가 만족 할 만한 언어 능력의 향상과 학습 진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배열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어 교재는 그림, 사진, 색도, 여백의 활용으로 학습자의 이해와 표현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림과 사진의 크기와 선명도는 잘못하면 학습자가 오히려 오류를 범하게 할 수도 있고 학습자를 산만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기본 교재를 위한 부교재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 자료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할 경우 학습자의 언어적 훈련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3.2. 교재 및 교육 자료 분석

3.2.1. 국내 교육 자료 분석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재 중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가 아닌 특수 목적 한국어 교재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그리고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 대상은 한국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어와 한국 생활’, 다락원에서 출판된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 그리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국인을 위한 BUSINESS 韓國語 1, 2’를

더한 총 6종의 교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농림부의 ‘우리 엄마의 한국어’,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첫걸음, 초급, 중급’,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초급, 중급, 고급’을 포함한 7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는 ‘한국언어문화듣기집’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2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발행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 총 15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분석 대상 교재

대상	도서명	저자	발행처	출판연도	권수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	· 알 수 없음.	·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2
	· 중국인을 위한 BUSINESS 韓國語 1, 2	· 전수정, 정은화	· 을촌재단	2006	2
	· 한국어와 한국 생활	· 조항록, 김정숙, 이미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1
	·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	· 이미혜	· 다락원	2005	1
여성 결혼 이민자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우리 엄마의 한국어’	· 조선경, 김민애, 우인혜, 우창현, 이미혜	· 농림부, 한국어세계화재단	2007	1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 조선경, 김대옥, 서경숙	· 여성가족부	2006	1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 여성가족부	2005	1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 강현화, 김선정, 김정숙, 이해영, 정희원, 조선경	· 여성가족부	2006	1
	· 관심, 사랑,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초급, 중급, 고급	· 정명숙, 송금숙, 이유경	· 충청북도 교육청	2006	3
문화	· 한국언어문화듣기집	· 백봉자, 최정순, 지현숙	· 하우	2005	1
	·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 이선이	· 한국문화사	2007	1

표2.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외적 구성

2) 교재 분석 항목 설정

교재 분석의 항목 설정은 Cunningsworth.A(1995), 이해영(2001a), 황인교(2003)에서 제시한 교재 분석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된 한국어 교재를 외적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적구성에서는 교재의 레이아웃과 삽화, 사진의 실제성을 점검하고 주 교재와 관련된 구성물 유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적 구성은 다시 구성, 학습 내용, 학습 활동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에서는 전체 교재의 구성과 단원 구성, 학습 내용 분석에서는 주제,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 그리고 학습 활동에서는 기능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외적 구성

- ① 레이아웃
- ② 삽화, 사진의 실제성 점검
- ③ 주 교재 관련 구성물 유무

(2) 내적 구성

- ① 구성
 - ㉠ 전체 구성
 - ㉡ 단원 구성
 - 단원의 내용 제시 순서
 -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유형
- ② 학습 내용
 - ㉠ 주제
 - 주제가 다양한가?
 -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 실생활에 부합하는가?
 -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

㉠ 문법

- 문법 항목이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되었는가?
- 각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의 양은 적절한가?

㉡ 어휘

- 어휘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어휘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 어휘에 대한 의미 설명이나 발음 설명이 있는가?

㉢ 발음

-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 문화

- 문화 항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문화 내용이 적절한가?
- 일상문화, 성취문화의 비율은 적절한가?¹⁵⁾

③ 학습 활동

㉠ 기능적 측면

㉠ 말하기

- 말하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말하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 듣기

- 듣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듣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읽기

- 읽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15) 문화 항목에서는 Brooks의 분류법에 따라 성취 문화와 일상 문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취 문화는 문화, 고전 음악, 무용, 건축, 예술 작품 등 어떤 문화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표적 인 산물만 뽑아 놓은 것이고, 일상 문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 곧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동과 언어적 행동, 태도, 신념, 가치 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이병규, 2005:275, 재인용)

- 읽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④ 쓰기

- 쓰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쓰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통합 활동

-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위한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 ㉞ 내용적 측면

-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3) 교재 분석의 실제

(1)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① 외적 구성

교재의 구입의 경우, ‘비즈니스 한국어 1, 2’와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은 구입이 용이하나 ‘한국어와 한국 생활’은 비매품이며 ‘재미있는 한국어’의 경우는 구입이 어려운 편이다.

레이아웃과 삽화의 경우 ‘재미있는 한국어 1, 2’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편이다. ‘재미있는 한국어’는 사실성이 낮고 흑백의 단순한 삽화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교재들은 사실성이 높은 사진이나 삽화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와 ‘한국어와 한국 생활’의 경우 학습 활동 및 문화 부분에 사실성 높은 사진들이 제시되고 있다.

주 교재 외 관련 구성물은 ‘비즈니스 한국어’의 경우 CD가 함께 제공되며, 온라인 강좌의 수강도 가능하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와 ‘한국어와 한국 생활’은 관련된 구성물이 없었으며, ‘Korean for a Good Job 1’의 경우, 테이프나 별책 부록 정도로 적극적인 교재의 활용과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재 관련 구성물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교재의 사용 지는 비즈니스 한국어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교재들은 한국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외적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구입	어려움.	용이함.	비매품	용이함.
레이아웃	· 3도 컬러 사용 · 색채와 모양이 단순함. · 그림의 명시성이 떨어짐.	양호함.(컬러)	양호함.(흑백)	양호함.(컬러)
삽화/ 사진자료의 실제성	· 사실성 낮음.(흑백 삽화로만 구성)	· 사실성 높음.(활동 및 문화 부분에 관련 사진 삽입)	· 사실성 높음.(활동 및 문화 부분에 관련 사진 삽입)	· Culture에 사진이 있으나 일부임 · 대부분 칼라 삽화로 구성
관련 구성물	-	· CD/온라인 강좌 수강 가능	-	· TAPE/ 별책부록 (핵심표현 모음집)
사용 지	한국	· 중국(한국 기업 현지 중국인 직원)/한국	한국	한국

표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전체 구성

② 내적 구성

㉠ 구성

㉠ 전체 구성

교재들의 일반적인 전체 구성은 본 단원 앞부분, 본 단원, 본 단원 뒷부분으로 나뉜다. 본 단원의 앞부분에는 교재의 차례, 구성, 일러두기, 교수요목을 두어 교재의 구성 원리나 교재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1, 2’는 유일하게 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직장 상사와 동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단원 뒷부분은 4종의 교재 모두 부록으로 단어 색인을 포함한다. ‘재미있는 한국어 2’의 경우 간단한 한국어 실력 테스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비즈니스 한국어 1, 2’의 경우 간략하게 나타낸 문법 정리표를,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은 부록으로 본 단원에서 제시했던 영어로 된 문법과 문화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와 단어 색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전체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전 체 구 성	· 발간사 · 차례 · 본 단원 · 부록1(한국어실력 테스트) · 부록2(단어집)	· 교재구성 · 교수요목 · 예비편 · 목차 · 등장인물 · 본 단원(1~25) · 부록(정답표, 문법정리표, 단어색인)	· 발간사 · 일러두기 · 교수요목 · 목차 · 본 단원(1~10) · 부록(정답, 찾아보기)	· Foreword · How to Use This Book Contents · Lesson Plan Template · Chapter(1~15) · Appendix(Answer, Grammar & Culture Translation, Index)

표4.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단원 구성

㉞ 단원 구성

교재의 단원 구성이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가 있다고 볼 때, 도입 단계를 포함한 교재는 ‘비즈니스 한국어 1, 2’가 유일하고 나머지 교재는 목표 대화문을 보여주며 바로 제시 단계로 시작한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의 경우 단어 배우기, 문법 배우기, 문장 배우기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있으나, 각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단어 배우기와 문장 배우기에서 새로운 문법 항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단원마다 구성의 통일성이 없으며, 특히, 2권의 경우 한 단원에서 학습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았다.

‘비즈니스 한국어 1’은 삽화와 함께 한 두 문장으로 된 짧은 모범 대화를 제시하거나 삽화와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단원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서 말하기의 도입의 구성이 참신하다. ‘비즈니스 한국어 2’는 ‘대화’의 아래 부분에 ‘이해하기’ 항목을 넣어 본문 내용에 관한 확인 질문을 하며 ‘새 단어’의 아래 부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장 생활과 관련한 어

휘만 따로 묶어 제시한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은 교재의 내용을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1부에서는 ‘한국어’, 2부에서는 ‘한국 생활(지리, 의식주, 역사, 사고방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은 도입부에서 두 가지 상황의 대화문 1, 2를 제시하고 대화문 아래에 발음 방법과 새 단어 목록을 제시한다. 과제 활동 부분을 살펴보면 읽기, 쓰기 영역이 거의 배제되어 있고 말하기와 듣기 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말하기 중심 교재의 특성이 드러난다. 또한 복습 차원의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단위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비즈니스 한국어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단 원 구 성	· 본문 · 단어 배우기 · 문법 배우기 · 문장 배우기 · 연습 · 쓰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읽기 · 문제풀기	· 도입 말하기 · 상황 대화 · 단어 · 발음방법 · 문법 · 연습 · 활용연습 · 비즈니스+1(문 화)	· 생각하기 · 대화(이해하기) · 새 단어 · 문법 및 연습 · 듣고 말하기 · 속담, 관용구, 사자성어 · 해 보기 · 비즈니스 문화	· 1부. 한국어 · 도입 · 대화(새 단어) · 어휘 · 문법과 · 표현(연습) · 말하기 · 읽기 · 쓰기 · 2부. 한국 생활	· 대화1(발음) · 대화2 (새 단어와 어구) · 활용 어휘 · 문법과 표현 · 연습 · 과제활동(말하 기/듣기) · 퀴즈 · 문화

표5.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단위 구성

㉞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유형

‘비즈니스 한국어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재들의 단원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용 교재로서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단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즈니스 한국어 1’은 25개의 단원 중 10개(40%)의 단원이 직장 생활과 관계된 상황이었다. 나아가 ‘비즈니스 한국어 2’는 모든 과가 전문적인 직장 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 1’의 경우,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단원명과 거의 유사했으며, ‘재미있는 한국어 2’의 경우 6과(이 공장에 가보라고 했습니다.)외의 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로서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와 한국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접’이라는 단원이 있었지만, 이 단원에서는 등장인물이 회사원인 것 이외에는 본문 내용과 활동이 다른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도 마찬가지로 직장 관련 어휘는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재로서의 부족함이 나타난다. 교수요목 설계 유형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생활’은 주제형 교수요목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재들은 주제형 교수요목과 상황형 교수요목이 혼합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학습 내용 분석

㉠ 주제

‘재미있는 한국어 1, 2’의 주제는 초급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주제가 다양하지 않았다. 또한 한 단원 안에서 일관성이 없는 여러 주제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1’은 회사 아내, 회식, 공항 마중, 출장 계획, 취업 조건, 면접 등과 같은 직장생활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2권에서는 사무기기 사용, 상품 홍보, 업무 보고, 회의, 회사 소식 확인, 직장 내 예절, 동료와의 대화, 접대하기, 공장 방문, 회식, 취업 등과 같이 더 전문적인 직장생활의 영역을 다루고 있었으며 현장성이 높은 주제들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서는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양하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주제는 12과(면접)로 한 과뿐이며 ‘Korean for a Good Job 1’은 한글 부분 5개의 과를 제외하고 인사, 위치, 쇼핑, 주말 계획, 여행 등의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평범한 주제이지만 대화의 상황은 주로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

• 문법

‘재미있는 한국어 1, 2’는 문법을 한국어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또한 문법의 제시 방법에도 일관성이 없으며 연습 문제가 다양하지 않았다. 또한, 한 단원에서 배우는 문법 항목의 수가 많고 문법의 배열이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한 것이 많다.

‘비즈니스 한국어 1, 2’는 중국어로 된 문법 설명을 제공하며 문법 항목의 제시 방법은 ‘제시-설명(중국어)-예문-연습’으로 나타난다. ‘비즈니스 한국어 1, 2’ 역시 한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수가 4~5개로 약간 많으며 문법의 난이도가 기타 교재와 비교하여 볼 때 높은 편이다. 특이한 점은 ‘-어/아요?’를 배우기 전에 ‘-지요?’를 먼저 학습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생활’은 영어로 문법 설명을 제공하며 ‘문법-설명(영어)-활용 방법-예문-연습’ 순으로 문법을 제시한다. 한 단원 당 제시되는 문법은 3~5개 정도이며 빈도 및 난이도에 따른 문법 배열은 무난하나 누락된 필수 문법이 많았다.

‘Korean for a Good Job 1’ 는 영어로 된 문법 및 표현 설명이 제공되며, 영어로 설명된 부분에 대한 한글 번역이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문법의 제시 방법은 ‘문법-설명(영어)-예문-연습’순이며 3~4개의 문법 및 표현이 제시된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과 마찬가지로 ‘Korean for a Good Job 1’ 역시 빈도 및 난이도에 따른 문법 배열은 무난한 편이나 누락된 필수 문법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문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문 법	번 역 및 설 명	· 한국어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 중국어로 된 문법 설명 및 지시문 있음.	· 영어로 된 문법 설명 및 지시문 있음.	· 영어로 된 문법 및 표현 설명 및 지시문 있음.(부록에 한글번역 포함)
	제시 방법	일관성 없음.	· 제시-설명(중국어)-예문-연습	· 문법-설명(영어)-활용방법-예문-연습	· 문법-설명(영어)-예문-연습
	양	5~8개	4~5개	3~5개	· 3~4개의 문법 및 표현

표6.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내용 (문법)

• 어휘

‘재미있는 한국어 1, 2’는 단어 학습 영역에서 본문 관련 단어와 연습 문제를 통해 어휘를 제시하며 어휘는 본문과 관련된 새 어휘이다.

‘비즈니스 한국어 1, 2’는 1권에서는 주제별로 묶은 새 단어를 제시하고 2권에서는 비즈니스 관련 어휘 목록을 제시한다. 또한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를 배우는 공간이 있으며 예문을 통한 제시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시된 어휘는 본문 관련 어휘와 주제 중심의 어휘 영역이 함께 제공된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의 경우 새 단어 정리와 주제 관련 어휘, 그리고 과제 관련 새 단어 목록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제 관련 새 단어 목록은 영어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Korean for a Good Job’은 새 단어와 구 단위의 표현을 제공하며 동시에 영어로 뜻을 번역해서 제공하며 ‘활용 어휘’라는 항목에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한 대부분의 교재에서 어휘 영역은 일반 목적 교재에 비해 직장 생활 관련 어휘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편이나, 전체적으로 한 단원에서 배우는 새 어휘의 양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어휘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어 휘	제 시 방 법	· ‘단어배우기’(단어 학습 영역)에서 본문 관련 단어+연습 문제	· 1권-(주제별로 묶은) 새 단어 제시 · 2권-비즈니스 관련 어휘 목록 제시,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 제시(예문을 통한 제시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새 단어 정리 · 주제 관련 어휘 · 과제 관련 새 단어 목록 (영어 뜻풀이 포함)	· 새 단어/어구(영어 뜻풀이) · 활용 어휘(주제 관련)
	어휘 선정	· 본문 관련 어휘	· 본문 관련 어휘 · 별도의 어휘 영역(주제중심)	· 본문 관련 어휘 · 별도의 어휘 영역(주제중심)	· 본문 관련 어휘 · 별도의 어휘 영역(주제중심)

표7.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내용 (어휘)

◆ 발음

‘재미있는 한국어 1, 2’와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서는 발음에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비즈니스 한국어 1, 2’는 주의해서 발음해서 발음해야 할 어휘를 소개하고 있었고,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은 발음 방법에 대한 영어 설명과 발음법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테이프를 이용해 발음을 들어 볼 수 있도록 관련 구성물을 갖추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발음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제시 방법	없음.	· 주의해서 발음해야 할 어휘를 제시	없음.	·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영어)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을 모두 제시, 테이프를 이용해 발음을 들어 볼 수도 있음.

표8.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내용 (발음)

◆ 문화

‘재미있는 한국어 1, 2’의 경우 별도의 문화 항목이 없다. ‘비즈니스 한국어’는 중국어로 문화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1권에서는 사진 자료를 제공하면서 서울의 지하철, 인사동, 찜질방, 노래방 등의 일상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비즈니스 +1’에서 사무실 에티켓 등과 같은 한국의 직장 문화를 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권에서는 ‘비즈니스 문화’에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의 예절, 회사를 소개할 때의 예절, 문서를 작성할 때의 예절, 회의를 할 때의 예절, 고객 불만에 대응대를 할 때의 예절, 직장에서 경조사 챙기기, 동료와의 예절, 접대할 때의 예절, 회사 면접을 볼 때의 예절 등 직장 생활 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중국어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생활’은 문화 내용에 대한 한글 해설과 영어 번역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일상문화와 성취문화를 모두 다루고 있으나 내용이 다소 어렵고 무거

운 감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학습자를 고려한 구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에서는 한국 음식, 찜질방과 노래방, 가족 호칭과 같은 일상생활 문화와 상사 앞에서의 에티켓, 주 5일 근무, 여름휴가 등과 같이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문화 내용을 영어로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며 사진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문화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문 화	제 시 방 법	별도의 문화 항목이 없음.	· 1권에서는 ‘한국알기’, 2권에서는 ‘비즈니스 문화’로 설정하여 중국어 설명	· 한글 해설과 영어 번역을 함께 제시	· 사진과 함께 영어 설명
	내 용		· 1권은 지하철, 인사동, 찜질방 등의 일상문화, · 2권은 비즈니스 문화 ¹⁶⁾	· 한국의 지리와 계절 · 현대 한국 개관 · 한국어와 한글 · 한국인의 의식주 · 한국인의 일생 · 언어생활 · 기본적인 공공시설과 제도 · 한국의 여가생활과 취미 · 한국의 역사 · 한국인의 사고방식	· 상황에 따른 인사 표현 · 상사 앞에서의 에티켓 · 주 5일 근무 · 여름휴가 · 한국 음식 · 찜질방 · 노래방 · 만화방 · 가족 호칭 · 지역번호

표9.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내용 (문화)

16) 2권에서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 문화에는 ‘명함을 주고받을 때의 예절, 대화를 할 때의 예절, 회사를 소개할 때의 예절,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상품, 전화 통화할 때의 예절, 부탁을 하거나 받을 때의 예절, 회의를 할 때의 예절, 고객 불만에 응대를 할 때의 예절, 몸짓 언어, 직장에서 경조사 챙기기, 동료와의 예절, 회사를 방문할 때의 예절, 한국에서의 음주 문화, 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자기소개서 쓰는 법, 회사 면접을 볼 때의 예절’이 소개되고 있다.

③ 학습 활동

㉠ 기능적 측면 분석

학습 활동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교재는 ‘비즈니스 한국어 1, 2’이며, ‘비즈니스 한국어 1, 2’의 경우는 묻고 대답하기, 그림보고 말하기, 역할극 등의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비롯하여 실제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듣기 활동, 그리고 실제적인 자료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 활동, 그리고 이메일 보내기, 출장서 쓰기 등 실제성이 높은 쓰기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언어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습 활동을 포함한 교재에 해당하는 것도 ‘비즈니스 한국어 2’가 유일하다. 언어 기능 간 통합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비즈니스 한국어 2’는 출장 보고서를 쓰고 보고하기, 음성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기, 고객센터 직원과 대화하고 이메일 보내기, 메시지 듣고 메모하기, 정보 읽고 소개하고 쓰기 등의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의 학습 활동은 각 기능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한국어와 한국 생활’의 경우, 듣기를 제외한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기는 하나, 말하기 활동은 대부분 상황을 주고 묻고 대답하거나 역할극을 하는 유형이 많았고 듣기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읽기 활동의 경우는 실제성이 부족한 텍스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쓰기 활동은 문장 쓰거나 텍스트 완성하기 유형이 있었다.

‘Korean for a Good job 1’은 실생활과 관련성 높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량이 적고 말하기 연습 형태만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단순한 읽기 영역과 쓰기 활동이 빠져 있다. 표를 읽고 말하기나 그림보고 말하기, 대답하기, 역할극과 같은 다양한 말하기 활동과 각 과마다 듣기 활동이 제시된다. 읽기의 경우는 3~6줄 정도의 문어적인 문장을 읽고 질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활동 분석 중 기능적 측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2	비즈니스 한국어 1,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말하기	· 대답하기 · 노래하기	· 대답하기 · 묻고 대답하기 · 그림보고 말하기 · 역할극	· 묻고 대답하기 · 역할극	· 표 읽기 · 그림보고 말하기 · 대답하기 · 역할극
듣기	없음.	· 대화 듣고 이해하기 · 상황을 나타내는 글 듣고 이해하기	없음.	· 단어 듣기 · 대화 듣고 이해하기 · 상황을 나타내는 글 듣고 이해하기
읽기	· 자료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자료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자료 읽고 내용 파악하기	· 3~6의 문장 읽고 내용 파악하기
쓰기	· 문장 쓰기 · 완성된 텍스트 쓰기	· 단어 쓰기 · 문장 쓰기 · 완성된 텍스트 쓰기	· 문장 쓰기 · 완성된 텍스트 쓰기	없음.
통합 활동	없음.	· <비즈니스 한국어 2> · 듣기와 쓰기: 듣고 메모하기 · 듣기와 말하기: 듣고 전달하기 · 말하기와 쓰기: 대화하고 이메일 보내기 · 쓰기와 말하기: 쓰고 보고하기 · 읽기와 말하기: 정보 읽고 말하기 · 읽기와 말하기, 쓰기: 정보 읽고 소개하고 쓰기	없음.	없음.

표1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활동 중 기능적 측면 분석

㉞ 내용적 측면 분석

학습 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한국어 1, 2’의 경우 근무 수칙 만들기, 회식 일정표 만들기, 출장 신청서 및 보고서 쓰기, 결근 신청 이메일 보내기, 행사 일정표 만들기,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내기, 이력서 쓰기, 다양한 접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제품의 제조 과정을 보고 설명하기, 새로운 회식 방

법 제안하기, 회사 지원할 때 알아야 할 것 파악하기, 면접 질문에 대답하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유의미한 과제가 많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한국어 1, 2’의 경우 일반적인 주제로 단순하게 설계된 학습 활동들이 많으며 쓰기 부분에서는 다양한 활동 유형이 제시되기 보다는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막연히 글쓰기만을 요구하는 형태가 나타났으며 일방적인 결과 중심의 쓰기 과제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과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은 자기 소개하기, 쇼핑 목록 작성하기, 주문하기, 위치 말하기, 약속 정하기 등 다양한 주제와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용 교재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학습 활동은 많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활동 분석 중 내용적 측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한국어 1	재미있는 한국어 2	비즈니스 한국어 1
학 습 활 동	· 전화번호 읽기 · 자동차 번호판 읽기 · 가족 소개하는 글쓰기 · 약도 보고 말하기 · 아팠던 경험 쓰기 · 명절/국경일에 대해 쓰기 · '백의민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글쓰기	· 축하하는 날에 대해 쓰기 · 명절에 대해 쓰기 · 취미에 대해 쓰기 · 아는 놀이에 대해 쓰기 · 건강에 대해서 쓰기 · 약속에 대해 쓰기 · 가족을 소개하는 글쓰기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쓰기 · 위급했던 경험 쓰기	· 명함 만들기 · 일과표 만들기 · 전화 메모 남기기/메모하기 · 초대장 쓰기 · 마트 전단지 읽기 · 근무 수칙 만들기 · 회식 일정표 만들기 · 출장 신청서 / 보고서 쓰기 · 결근 신청 이메일 보내기 · 행사 일정표 만들기 ·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내기 · 여행계획 세우기 · 은행 거래 신청서 쓰기 · 동호회 홍보 전단 만들기 · 광고 카피 만들기 · 이력서쓰기
	비즈니스 한국어 2	한국어와 한국 생활	KL for a good job 1
	· 회사 내에서의 예절 익히기(경조사 인사하기, 상사에 대한 예절 등) · 현금 인출기 사용방법 익히기 · 다양한 접대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제품의 제조과정을 보고 설명하기 · 새로운 회식방법 제안하기 · 개인 문제에 대해 조언하기 · 회사 지원할 때 알아야 할 것 파악하기 · 자기소개서 쓰기 · 면접 질문에 대답하기	· 자기소개하기 · ID카드 작성하기 · 회사 주변을 소개하는 글쓰기 · 하루 일과 쓰기 · 쇼핑 목록 작성하기 · 주말, 과거의 활동 말하기 · 희망 말하기 · 식당에서 주문하기 · 음식의 맛 말하기 · 좋아하는 음식 소개하기 · 안부 편지 쓰기 · 편지 봉투 쓰기 · 우체국에서 편지와 소포 보내기 · 은행에서 환전하기/송금하기 · 길 묻기 · 몸의 증상 말하기 · 병원 진료 신청서 쓰기 · 도로표지판 읽기 · 구직 광고 읽고 정보 파악하기 · 경력 말하기, 면접 보기 · 부탁의 글 읽고 이해하기 · 감사의 이메일 쓰기	· 사전 찾기 · 자기 소개하기 · 위치 말하기 · 물건 사기 · 주문하기 · 계획 말하기 · 약속 정하기

표1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활동 중 내용적 측면 분석

(2)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① 외적 구성

교재 구입의 경우 농림부의 ‘우리엄마의 한국어’와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첫걸음, 초급, 중급’의 경우 웹상에서 다운이 가능하여 구하기 쉬운 편이지만 충북 교육청의 ‘관심, 사랑,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초급, 중급, 고급교재는 비매품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레이아웃과 삽화를 보면 농림부 교재는 칼라로 되어 있으며 양호한 편이다. 삽화는 도입부분에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삽화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삽화의 명시성은 양호한 편이고, 사진자료의 경우 6개 단원마다 중간에 나오는 ‘우리 고장의 이모저모’에서 특산물이나 음식사진이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의 경우 1도 컬러로 되어 있으며 첫걸음의 특성에 맞게 어휘들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의 명시성은 양호하며 사진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 초급을 보면 레이아웃은 양호한 편이나 삽화의 경우 컬러는 화려하지만 명시성과 더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사진자료의 경우 9과와 18과의 음식단원에서 음식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단원에서는 실제 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것을 보아 사진의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경우 전체적으로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그림과 실제 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교재는 공통적으로 삽화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충북 교육청의 교재는 비매품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며, 전체적인 컬러는 흑백이고 삽화의 경우도 명시성이 매우 부족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사진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주제를 연상할 수 없는 모호한 내용의 그림이 많은 것이 단점이며 특징이다.

관련 구성물을 보면 농림부 교재는 듣기 CD와 교사 지침서가 제공되는데 웹상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교재들은 관련 구성물이 없고 충북 교육청 교재들은 관련 구성물로 교사용 지침서와 CD-ROM이 있으나 이 또한 구하기가 어렵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외적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 (첫걸음)	여가부 (초급)	여가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충북교육청 (중급)	충북교육청 (고급)
구입	·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 가능			비매품(구하기 어려움)		
레이아웃	양호(컬러)	1도 컬러	· 양호한 편(삽화의 컬러는 화려하나 거칠고 전문성이 떨어짐)	양호(컬러)	· 흑백 · 삽화의 일관성 없음.(여기저기서 가져온 자료를 조합)		
자료의 실제성	· 삽화 위주 · 삽화의 명시성 양호 · ‘우리 고장의 이모저모’에만 사진자료 사용	· 그림의 명시성 양호 · 사진 자료 없음.	· 삽화의 명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몇몇 있으며 실제 사진의 양이 적음(음식 종류에 한정).	· 다양한 그림과 실제 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움, 실제성도 높음.	· 명시성이 매우 부족 · 주제를 연상할 수 없는 모호한 그림이 많음.		
	· 주제에 맞는 삽화가 도입부에 제시	삽화의 일관성이 없음.					
관련 구성물	· CD, 웹상에서 사용가능 (www.migrant skorean.org) 교사용 지침서	없음.			· 교사지침서, CD-ROM(구하기 어려움)		

표12.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외적 구성

② 내적 구성

㉠ 구성

㉠ 전체 구성

전체적인 구성의 순서를 보면 농림부 교재의 경우 ‘발간사 - 일러두기 - 목차 - 교과구성 - 본 단원 - 듣기 지문 - 대화 지문 - 불규칙활용’으로 되어 있다. 부록으

로 있는 듣기 지문과 대화 지문 불규칙 활용 중에 대화 지문은 이주 여성의 말로 번역과 한국어 발음이 제시되어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공부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은 초급을 시작하기 전 예비편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로 구성은 ‘발간사 - 일러두기 - 목차 - 예비편 - 본 단원 - 부록1. 겹받침 발음표 - 부록2. 언어별 번역(11개)’로 되어 있다. 부록에서 단원의 내용을 이주 여성의 언어인 11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이다.

여성가족부 초급은 여가부에서 나온 교재 중에 제일 먼저 개발된 교재이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발간사 - 목차 - 일러두기 - 교수요목 - 예비편 - 본 단원 - 부록(가족과 함께 보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필수정보 I.법률 정보 II.생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편에서는 기초적인 한글 자모와 간단한 발음이 제시되어 있고 부록에서는 한국에서의 법률 정보와 생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만 제시되어 있어 이주 여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료이다. 가족들이 보고 알려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구성은 ‘발간사 - 일러두기 - 목차 - 교수요목 - 본 단원 - 부록(단원별 문법 항목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부록에 문법 항목이 해석되어 있는 것이 다른 교재와는 차별되는 특징이다.

문법 항목은 한국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충북교육청의 초, 중, 고급은 전체적인 구성이 동일하다. ‘교재구성 - 차례 - 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재구성에서는 기본적인 교수요목을 제시하고 있다. 본 단원 이외에 부록 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전체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 (첫걸음)	여가부 (초급)	여가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충북교육청 (중급)	충북교육청 (고급)
전 체 구 성	· 발간사 · 일러두기 · 목차 · 교과구성 · 본 단원 · 듣기 지문 · 대화 지문 · 불규칙활용	· 발간사 · 일러두기 · 목차 · 예비편 · 본 단원 · 부록1. (겉받침 발음표) · 부록2. 언어별 번역(11개)	· 발간사 · 목차 · 일러두기 · 교수요목 · 예비편 · 본 단원 · 부록(가족 과 함께 보는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필수정보 I.법률 정보 II.생활 정보)	· 발간사 · 일러두기 · 목차 · 교수요목 · 본 단원 · 부록(단원 별 문법 항목 해석)	· 교재구성 · 차례 · 본 단원	· 교재구성 · 차례 · 본 단원	· 교재구성 · 차례 · 본 단원

표13.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전체 구성

⑥ 단원 구성

단원의 구성을 보면 농림부 교재의 경우 ‘도입 - 대화 - 문법 및 표현 - 말하기 - 쓰기 - 듣기 - 인터뷰 과제 - 관련어휘 및 표현 - 계절과 절기’로 되어 있는데, 각 영역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의 경우 ‘읽기 자료 - 쓰기 - 읽기 - 듣기 - 받아쓰기’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읽기 자료의 경우 각 단원마다 익혀야 하는 단어나 문장을 단순히 배열해 놓은 것이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쓰기와 읽기가 제시된다. 듣기의 경우 음운의 변별을 하는 식의 듣기인데 듣기 지문은 제공되지 않는다. 받아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듣기와 받아쓰기의 경우 가르치는 선생님의 몫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초급의 경우 단원의 구성을 보면 ‘그림/대화 - 어휘 - 문법 - 연습 - 읽기 - 쓰기’로 되어 있는데, 어휘의 경우 본문에 있는 어휘가 제시되고 단원의 주제에 맞는 확장 어휘 또한 제시되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경우 모든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원에서 필요에 따라 한두 가지 활동 정도가 제시되

고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경우 ‘대화 - 어휘 - 문법 - 말하기 - 읽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전체적인 단원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문법은 한 단원에 2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하기와 읽기 활동도 실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교육청 초, 중, 고급을 보면 단원의 구성이 동일하다. ‘들어가기 - 대화 - 어휘 및 표현 - 연습 - 말하기’로 되어 있으며 문법은 어휘 및 표현에서 제시하고 있다. 연습은 문법에 대한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하기의 경우 모든 단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화 형식의 짝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단원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첫걸음)	여가부(초급)	여가부(중급)
단원 구성	· 도입 · 대화 · 문법 및 표현 · 말하기 · 쓰기 · 듣기 · 인터뷰 과제 · 관련어휘 및 표현 · 계절과 절기	· 읽기 자료 · 쓰기 · 읽기 · 듣기 · 받아쓰기	· 그림/대화 · 어휘 · 문법 · 연습 · 읽기 · 쓰기	· 대화 · 어휘 · 문법(2~4개) · 말하기 · 읽기
	충북교육청(초급)		충북교육청(중급)	
	· 들어가기 · 대화 · 어휘 및 표현 · 연습 · 말하기		· 들어가기 · 대화 · 어휘 및 표현 · 연습 · 말하기	
	충북교육청(고급)			
	· 들어가기 · 대화 · 어휘 및 표현 · 연습 · 말하기		· 들어가기 · 대화 · 어휘 및 표현 · 연습 · 말하기	

표14.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단원 구성

㉔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유형

단원명 및 교수요목을 보면 농림부의 경우 총 2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의 대화에서 중요한 문장을 단원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 고장의 이모저모’라는 것을 두어 지역의 특산물과 음식 만들기에 대한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수요목을 보면 단원명과 함께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법과 어휘 및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부 교재의 교수요목은 주제형 교수요목과 상황형 교수요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의 경우 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과까지는 한글에 대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반에는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7과의 경우 수에 대한 단원으로 수량명사와 함께 전화번호와 날짜에 대한 기본적인 것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초급의 경우 초반에 예비편을 제시하고 있으며 2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단원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 여성 교재의 특성에 맞게 마지막 단원인 24과에서는 반말과 함께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단원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요목을 보면 단원의 각 기능과 문법 어휘 등이 어떠한 것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교수요목에 나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경우 총 2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명을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초급과 같다. 초급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원에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단원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교수요목에서는 주제와 어휘, 문법 그리고 말하기와 읽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첫걸음과 초급, 중급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제형 교수요목과 상황형 교수요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 교육청의 초급 교재를 보면 총 1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에서 단원명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요목은 간단하게 단원의 기능과 어휘 및 표현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중급 또한 1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의 내용에서 단원명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요목도 마찬가지로 단원의 기능 그리고 어떤 어휘 및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고급 또한 초급과 중급의 단원명의 제시와 교수요목이 동일하다. 충북교육청의 초급, 중급, 고급도 농림부와 여가부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교수요목이 주제형 교수요목과 상황형 교수요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㉔ 학습 내용

㉑ 주제

학습 내용 중 주제를 보면 농림부의 경우 주제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일상 가정생활 즉, 집안일과 함께 집안일과 관련 있는 농촌의 농사일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농촌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교재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교재의 주제가 너무 가정생활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인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의 경우 예비편이라는 특성에 맞게 한글에 대한 단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비편에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인사나 수 그리고 유용한 표현에 대하여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초급을 보면 다른 대학기관의 교재와는 다르게 이주 여성의 생활에 맞는 주제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아이학교에 대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 적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경우 초급보다 좀 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안일뿐만 아니라 이주민 관련한 주제 그리고 미용실이나 드라마 같은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제에 맞게 말하기와 읽기의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충북교육청 초급의 경우 초급에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일상적인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 여성을 위한 주제라면 물건 사기나 가정생활에 대한 주제가 구성되어 있다.

충북교육청 중급의 경우 초급에 비해 가정생활과 더불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주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용실, 우체국 등과 같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 등장한다.

충북교육청 고급의 경우 이주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교육이나 컴퓨터, 문화센터를 통해 이주 여성이 궁금해 하는 생활들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인 귀화를 주제로 하여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림부 교재의 주제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농사일과 농촌생활에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교재의 경우 일상 가정생활의 주제들

이 많다. 이에 비해 충북교육청의 주제들은 일상생활과 더불어 사회생활의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성 및 현장 적용성은 높으나 좀 더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⑥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과 억양, 문화)

◆ 문법

언어 내용 중 문법을 보면 농림부의 경우 각 단원에 2~3개의 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법의 제시 후에 설명이 있고 예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습은 문법 문제 풀기의 단순한 연습이 아닌 말하기 부분에서 연습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기 부분의 연습은 배운 문법 내용으로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식의 문법 연습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제시되고 있어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의 경우 예비편이기 때문에 다른 문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여성가족부 초급의 경우 각 단원에 1~3개의 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법의 제시 후에 설명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단순 연습과 확장 연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각 단원의 주제에 맞는 쓰거나 읽기 활동이 한두 가지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경우 각 단원에 2~4개 정도의 문법이 제시되어 있다. 문법의 제시 후 설명은 나타나지 않고 문법에 대한 예문이 두세 문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습은 단순한 문법 익히기에 관한 연습과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활용 연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교재의 특징은 불규칙 동사와 같은 필수 문법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며 문법의 배열이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지 않았다. 난이도가 낮고 빈도수가 많은 문법을 앞으로 배열하는 식의 재배열 작업이 필요하다.

충북교육청 교재의 문법은 초급과 중급, 고급 모두 제시 방법과 문법의 양이 동일하다. 다른 교재와 달리 문법 영역이 없고 ‘어휘 및 표현’에서 문법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법의 제시 후에 이에 대한 예문이 4개씩 나타나고 이에 대한 단순한 연습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인 문법 순서에 맞게 배열되지 않

아 체계성이 부족한 교재이다. 교사용 지침서가 있으나 문법에 대한 의미 설명이 없어 교사가 문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지침서로 보인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교재의 문법 내용과 각 교재의 문법 항목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 (첫걸음)	여가부 (초급)	여가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충북교육청 (중급)	충북교육청 (고급)
문 법	제시 방법	· 제시-설 명-예문- 연습	-	· 제시-설명 -예문-연 습-활동	· 제시-예문 -연습1(문 법)-연습2 (활용)	· 제시-예 문-연습	· 제시-예 문-연습	· 제시-예 문-연습
	양	2~3개	-	1~3개	2~4개	1~3개	1~3개	1~3개

표1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학습 내용 (문법)

• 어휘

언어 내용 중 어휘는 농림부 교재의 경우 본문 학습 아래에 본문에서의 어휘 제시와 ‘관련 어휘 및 표현’에서 확장 어휘와 표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의 초반에는 15개 정도의 어휘가 그리고 후반에는 20개 내외의 어휘가 제시되고 있다. 어휘 또한 문법과 마찬가지로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제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은 기본적인 한글을 익히기 위한 어휘가 제시되고 있는데 어휘 제시 이후 한글을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연습이 제시되고 있다. 단순한 쓰기와 읽기 그리고 음운을 변별하는 식의 듣기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초급을 보면 본문 관련 어휘와 연습을 위한 어휘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본문 관련어휘는 본문 대화 아래에 새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연습을 위한 어휘는 문법 전 후에 확장 어휘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어휘의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연습이 제시되는데 이 연습은 문법과 통합된 연습이고 활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가족부 중급은 본문 관련 어휘와 별도의 어휘 영역이 있으며 각 단원의 읽기 활동에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본문 관련 어휘는 새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고, 어휘 영역의 어휘는 단원의 주제에 맞는 기본 어휘와 확장 문형을 통한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읽기 활동의 어휘는 읽기 과제에서 제공되는 새 단어를 중심으로 어휘가 제시되어 있는데 어휘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어휘 영역에서 연습 문제로 어휘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휘의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연습이 제시되고 문법과 함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어휘의 양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단원 당 20개에서 30개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충북교육청의 초급, 중급, 고급은 동일한 방법으로 어휘가 제시되고 분포도 또한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본문 관련 어휘와 어휘 및 표현에서 어휘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휘가 제시되고 그에 대한 예문이 나타나며 연습과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어휘가 단독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어휘와 더불어 문법이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함께 예문과 연습 그리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휘의 양을 살펴보면 각 단원마다 일관성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부 교재나 농림부 교재에 비하여 어휘의 양이 적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 (첫걸음)	여가부 (초급)	여가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충북교육청 (중급)	충북교육청 (고급)
어 휘	제시 방법	제시-예문(대화, 연습)	제시-연습	제시-연습-활동		제시-예문-연습-활동		
	분 포 도	· 본문 관련 어휘 · 별도의 어휘 영역		· 본문 관련 어휘 · 연습을 위한 어휘	· 본문 관련 어휘 · 별도의 어휘 영역 · 읽기 자료 어휘	· 본문 관련 어휘 · 어휘 및 표현	· 본문 관련 어휘 · 어휘 및 표현	· 본문 관련 어휘 · 어휘 및 표현

표1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학습 내용 (어휘)

• 발음

언어 내용 중 발음을 보면 농림부 교재와 여성가족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중급, 고급에는 발음에 대한 특별 지침이나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농림부 교재의 경우 부록에 불규칙 활용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발음에 대한 것

이기 보다는 문법의 확장 정도로 보는 것이 옳바르다.

여성가족부 첫걸음과 초급에는 발음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걸음의 경우 본 단원에서 발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 단원 다음의 부록에 겹받침 발음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초급의 경우 예비편에서 한글 겹받침의 음가와 함께 연음화 현상이 제시되고 있다. 초급도 첫걸음과 같이 본 단원에서는 발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어의 발음이다. 한국 생활에 정착해 나가면서 모국어화자와 비슷한 발음을 원하는 것에 비하여 이주 여성을 위한 교재에서는 발음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발음에 대한 영역과 교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음의 제시가 아닌 발음이 일어나는 상황과 원리를 교재에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발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 (첫걸음)	여가부 (초급)	여가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충북교육청 (중급)	충북교육청 (고급)
발음 연습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1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학습 내용 (발음)

◆ 문화

언어 내용 중 문화를 보면 농림부 교재의 경우 도입 부분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이주 여성의 나라와 비교하는 질문이 하나씩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14과 도입의 3번 질문을 보면 “여러분 나라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는 무엇을 해요?”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문화와 이주 여성의 문화를 비교 할 수 있는 질문이며 이 또한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 서로의 문화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단순한 읽기지만 읽기의 내용이 한국의 24절기에 대한 것으로, 24절기와 농사일을 관련시켜 알려주는 것인데 한국의 문화 부분 중의 하나인 절기에 대한 소개를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우리 고장의 이모저모’는 6개 단원마다 각 지역의 특

산물과 함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안일과 농사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제시를 단순하게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는 주부로서의 역할 만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초급과 중급을 보면 문화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영역은 없으며 다만 읽기 자료나 과제 활동에 포함되어 문화를 다루고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나라와 비교하는 식의 다문화적인 내용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나 풍습에 대한 내용은 명절에 관한 단원 뿐 그 외의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여성의 역할 제시를 보면 농림부 교재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만이 제시되어 달라진 현대인의 성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충북교육청의 초급, 중급, 고급을 보면 여성가족부 교재와 마찬가지로 문화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영역은 없지만 읽기 자료나 과제 활동에 포함되어 문화를 다루고 있다. 활동 중에 여성 결혼 이민자의 나라와 문화를 비교하는 다문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묘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문화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성가족부 한국어 교재	충북교육청 한국어 교재
문 화	제 시 방 법	· 각 단원에 농촌 문화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절기에 대한 소개가 있음 · ‘우리 고장 이모저모’ 각 지역의 농산물, 요리법 소개	· 문화를 다루기 위한, 별도 영역이 없고 읽기 자료나 과제활동에 포함되어 제시된 경우가 있음.	
	내 용	· 집안일과 농사일에 대한 단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도입부분에서 이주 여성의 나라와 문화를 비교하는 질문이 있음. ·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서의 역할만으로 제시하고 있음. · 농사일에 관련된 문화내용이 많이 제시되어 있음.	· 다문화적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풍습에 대한 교육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음. · 가정에서의 남녀역할 구분이 전통적인 여성상에만 국한되어 있고 달라진 현대의 성역할을 반영하지 못함.	· 다문화적 내용 포함 · 결혼 이민자의 주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됨.

표1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학습 내용 (문화)



그림5. 농림부 문화 관련 단위 도입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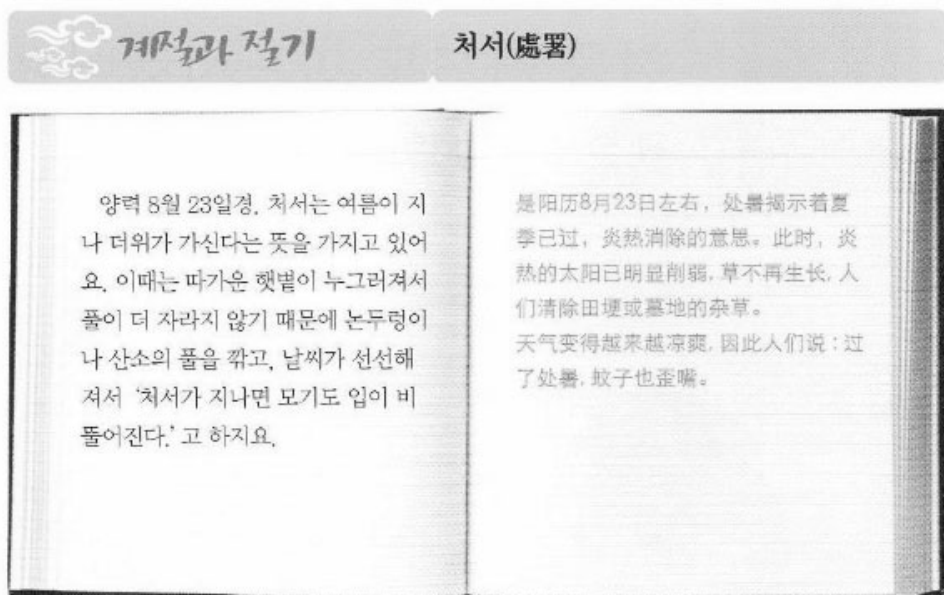


그림6. 농림부 문화 관련 읽기 자료의 예 (계절과 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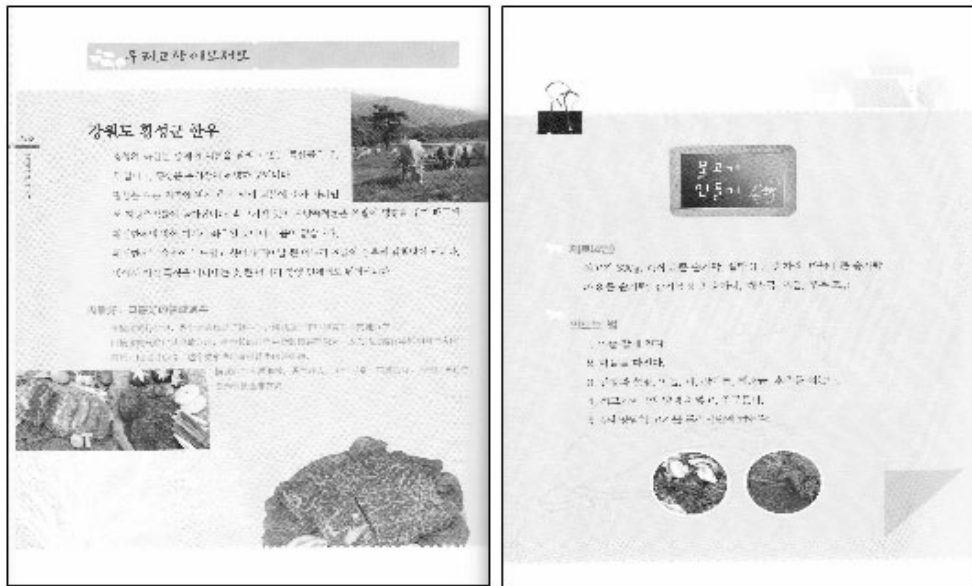


그림7. 농림부 문화 관련 읽기 자료의 예 (우리 고장의 이모저모)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말하기

※ 한국과 여러분의 나라 문화는 어떻게 달라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고향
음식 문화		
식사 문화		
생활 예절		

그림8. 충북교육청 문화 관련 읽기 자료의 예(양국 문화의 비교)

③ 학습 활동 분석

㉠ 기능적 측면 분석

학습 활동 중 기능적 측면 분석을 보면 농림부 교재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활동이 단순하게만 제시되어 있다. 말하기의 경우도 빈칸 채워 대화하기의 문법에 대한 연습 활동이며 쓰기의 경우는 중요문장을 단순히 따라 쓰는 식의 활동이다. 듣기도 문장 듣고 빈칸 채우기의 활동이고 인터뷰 과제가 있긴 하지만 <보기> 없이 질문만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하고 답하는 식의 인터뷰라고 볼 때 이는 통합적 연습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읽기의 경우 '계절과 절기'를 읽는 것인데 활동은 없고 내용만이 번역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내용 이해에 대한 질문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을 보면 말하기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읽기와 듣기 쓰기의 활동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읽기와 쓰기의 경우 배울 단어나 문장들에 대한 읽기와 쓰기의 활동이며 듣기의 경우 배운 내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음운 변별이나 단어의 변별을 하는 식의 활동이다. 읽고 쓰기와 같은 간단한 통합 활동도 제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초급을 보면 듣기 활동이 없으며 각 기능의 통합 활동도 없다. 말하기의 경우 단순한 질문에 대답하는 식의 활동이고 읽기의 경우는 영수증 읽기나 가정통신문 읽기와 같은 실제성이 높은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쓰기의 경우 단어 쓰기부터 문단 쓰기까지 수준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성이 높은 쓰기 활동은 없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쓰기 활동이 아니라 문법 활동과 함께 일어나는 쓰기 활동이나 19과에 나타난 활동처럼 단순한 계획 적기 식의 쓰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경우 듣기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각 기능별로 살펴보면 말하기의 경우 단순한 묻고 답하기부터 역할극 까지 다른 교재들에 비하여 다양한 말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읽기의 경우 초급의 내용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다양한 읽기 자료가 제시되었고 자료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읽기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쓰기의 경우 어휘 활동에 제시된 쓰기 활동이 대부분이며 2과에서는 편지 봉투 쓰기가 쓰기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교재에 비하여 읽기와 말하기의 통합 활동, 쓰기와 말하기의 통합 활동 등의 통합 활동이 많이 제

시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초급을 보면 듣기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말하기 활동으로는 여성가족부 중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말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읽기는 자료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식의 읽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쓰기는 어휘 활동에 나타나는 단어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쓰고 말하기와 같은 통합 활동이 거의 모든 과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북교육청의 중급은 듣기와 읽기 쓰기의 단독 기능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초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말하기 활동과 쓰고 말하기와 같은 통합 활동이 많이 제시되었다. 통합 활동은 메모하고 말하기 식의 통합 활동이다. 충북교육청의 고급을 보면 듣기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읽기 활동의 경우 단독 기능 활동보다는 말하기와의 통합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말하기의 경우 초급, 중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쓰기는 문장쓰기가 제시되어 있고 통합 활동으로는 읽고 말하기, 쓰고 말하기식의 통합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충북교육청 교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단원마다 말하기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활동 중 기능적 측면의 분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 (첫걸음)	여가부 (초급)	여가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충북교육청 (중급)	충북교육청 (고급)
말 하 기	· 교사와 말하기 연습(빈칸 채워 대화 완성하기)	없음.	대답하기	· 대답하기 · 묻고 대답하기 · 역할극 · 직접 체험하기	· 대답하기 · 묻고 대답하기 · 그림보고 말하기 · 역할극	· 대답하기 · 묻고 대답하기 · 그림보고 말하기 · 역할극	· 대답하기 · 묻고 답하기 · 역할극 · 인터뷰
듣 기	·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 음절 듣고 선택하기 · 단어 듣고 선택하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읽 기	· 단순한 읽기	· 단어읽기 · 음절읽기 · 문장읽기	· 자료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자료 읽기	· 자료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자료 읽고 내용 파악하기	없음.	· 없음.(읽기+말 하기 통합 연습이 있음)
쓰 기	문장 쓰기	· 자모 쓰기 · 단어 쓰기	· 단어 쓰기 · 한 문장 이상의 쓰기 · 문단 쓰기	단어 쓰기	단어 쓰기	없음.	문장 쓰기
통 합 적 연 습 활 동	<말하기+듣기> · 인터뷰 과제 : 주제에 관해 이웃에게 의견 듣고 말하기	<읽기+쓰기> · 음절 읽고 쓰기 · 단어 읽고 쓰기 · 문장 읽고 쓰기	없음.	<읽기+말하기> · 읽기 자료의 주제에 대해 말하기 <쓰기+말하기> · 주제에 관해 쓰고 말하기	<쓰기+말하기> · 메모한 후, 말하기	<쓰기+말하기> · 메모한 후, 말하기	<읽기+말하기> · 읽기 자료의 주제에 대해 말하기 · 읽기 자료의 주제로 역할극하기 <쓰기+말하기> · 메모한 후, 역할극 · 메모한 후, 작 활동

표19.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학습 활동 : 기능적 측면

말하기

※ 여러분은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 봤습니까?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을 해 봅시다.

합 입	필요한 것
주민등록등본 떼기	주민등록등본 교부 신청서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만들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자넷: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떼고 싶은데요.
 직원: 네, 주민등록증을 주시고 여기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자넷: 외국인 등록증밖에 없는데 이것만 있어도 댈 수 있을까요?
 직원: 네, 외국인 등록증도 괜찮습니다.
 자넷: 여기 있어요.
 직원: 제가 표시하는 부분을 써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날짜를 써 주세요.

그림9. 여가부 중급 : 통합 과제의 예

㉠ 내용적 측면

내용적 측면 중 여성 결혼 이민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연습 활동의 주제를 살펴 보면, 농림부 교재의 경우 여러 가지의 실생활에 관련된 연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가정이나 농사일에 관련된 연습 활동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요리법에 대하여 듣기 같은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과 농사일에 대한 정보 얻기와 같은 농사 관련 연습 활동 등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활동은 묻고 답하기와 같은 단순한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첫걸음의 경우 예비편이므로 실생활과 관련된 연습 활동의 주제는 찾아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 초급을 보면 초급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활동이

나타나 있는데, 세탁 표지 읽기와 가정통신문 보기와 같은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실생활과 관련 연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중급의 경우 말하기와 읽기의 활동들이 단원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지 초급보다 다양한 연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바겐세일 광고 보기, 세탁표지 읽기,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읽기와 같은 집안일에 도움이 되는 활동부터 관공서 이용하기 등의 집안일과 사회활동이 함께 일어나는 활동까지 다양한 범주의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충북교육청 초급, 중급, 고급은 각 단원마다 말하기 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묻고 답하기 식의 실생활에 관련한 연습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연습 활동이 일어났다면 고급으로 갈수록 가정생활과 더불어 사회생활까지 다양한 관련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고급의 예를 보면 아이학교 급식 당번하기, 선생님과 면담하기, 문화강좌 신청하기 등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학습 활동 중 내용적 측면의 분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여가부 (첫걸음)	여가부 (초급)	여가부 (중급)	충북교육청 (초급)	충북교육청 (중급)	충북교육청 (고급)
연습 활동 동 주 제	· 자기소개 · 인사하기 · 요리법 묻기(3) · 물건사기(2) · 은행업무보기 · 버스시간 안내 듣기 · 전화번호 읽기 · 농사일에 관한 정보 알기(4) · 임신과 출산 · 보건소 이용하기(2)	없음.	· 자기 소개하기(2) · 신문의 TV편성표 읽기 · 달력 보기 · 세탁 표지 읽기 · 길 찾기(2) · 음식 · 주문하기 · 병원 예약하기 · 버스시간 안내표 읽기 · 전화번호 읽기 · 지하철노선도 보기 · 가정통신문 보기	· 이메일 읽기 · 편지봉투 쓰기 · 설거지하는 방법 · 바겐세일 광고 보기 · 안내도 보기 · 서비스센터 전화하기 ·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보기 · 물건 교환하기 · 요리법 읽기, 소개하기 · TV 편성표 보기 · 세탁 표지 읽기 · 은행업무 보기 · 동사무소 이용하기 · 동사무소 소식지 읽기 · 선생님과 면담하기 · 건강에 관한고민 말하기 · 청첩장 보내기 · 전화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 지원센터 게시판 안내문 읽기 · 결혼 귀화 안내문 읽기	· 자기 소개하기 · 인사하기 · 특별한 날 묻기 · 주말 약속 정하기 · 약도 그리기 · 친구 초대하기 · 음식 주문하기 ·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기	· 전화걸기, 전화 받기 · 부탁하기 · 옷 사기 · 고민 말하기 · 우체국 이용하기 · 자녀와 대화하기 · 병원 진료받기	· 날씨 말하기 · 예약하기 · 여행사 이용하기 · 은행이용하기 · 자녀의 학교에서 급식 당번하기 · 선생님과 면담하기 · 인터넷 이용하기 · 결혼생활에 대해 말하기 · 부동산 이용하기 · 수도 또는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문화원 강좌 신청하기

표20.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학습 활동 : 내용적 측면

임기 잠깐! 이렇게 사용하세요.

	오랫동안 문을 열어놓지 마세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마세요.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음식을 오랫동안 두지 마세요.
	주머니의 물건들을 꺼내 주세요,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옷에 묻은 흙을 털어 주세요. 얇은 옷과 두꺼운 옷은 따로 세탁하세요. 단추나 지퍼를 잠그고 세탁하세요. 더러운 곳은 먼저 손으로 땄고 세탁기에 넣으세요.
	밥을 씻어서 30분 후에 밥을 하면 맛있어요. 전밥과 따뜻한 밥을 함께 넣으면 냄새가 나요. 수증기를 방출해 넣지 마세요. 12시간 이상 보존하면 밥맛이 없고 냄새가 나요. 밥솥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으세요.

1. 위의 내용에 맞으면 ○, 틀리면 × 하세요.

- (1) 냉장고에는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안 돼요. ()
- (2)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
- (3)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 냄새를 없애야 돼요. ()
- (4) 단추는 꼭 열고 세탁해야 돼요. ()
- (5) 흰 옷과 건장색 바지는 함께 빨아도 돼요. ()
- (6) 밥솥은 씻으면 안 돼요. ()
- (7) 밥솥 오랫동안 보존해도 돼요. ()
- (8) 밥을 씻어서 30분 후에 밥을 하면 좋아요. ()

그림10. 여성가족부 중급 : 실생활에 유용한 연습 활동의 예

(3)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 분석

① 외적 구성

‘한국언어문화듣기집’과 ‘한국 현대 문화’ 교재 구입은 용이한 편이며, 레이아웃 역시 양호한 편이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의 경우는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 도입 부분에 실제성이 높은 사진 자료가 제시된다. 관련 구성물로는 듣기 CD와 듣기 CD 목록집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교재와 연관된 자료로 ‘한국언어 문화사진집’이 있다. ‘한국언어문화사진집’은 한국의 문화를 50개의 주제로 나누어 A3 용지 크기 300장의 컬러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으로 각 사진의 뒷면에는 사진에 대한 설명과 수업에 필요한 교사말, 교실 활동을 담고 있다. 본래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은 ‘한국언어문화사진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듣기

교재로 국내외의 한국 문화 교육 현장에서 쓰일 수 있다.

‘한국 현대 문화’는 사진과 도표, 삽화가 모두 컬러로 제시되어 있고 본문의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학습 활동 부분에서도 활동과 관련 있는 실제적인 사진 및 삽화를 배치하여 현대 문화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교재 역시 ‘한국언어문화듣기집’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학습자들에게 모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문화 중심 교재의 외적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구입	용이함.		용이함.
레이아웃	양호함(흑백).		양호함(컬러).
삽화/사진자료의 실제성	· 사실성이 높음(각 단원 도입 부분에 실제성이 높은 사진 자료를 제시).		· 사실성 높음(각 단원 본문의 내용 또는 활동의 내용과 관련된 실제적 사진 및 도표 제시).
관련 구성물	· 듣기 CD, 듣기 CD 목록	· 한국언어문화사진집 (별도 구매) : 문화를 50개의 주제로 나누어 주제에 맞춰 찍은 300개의 컬러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사진의 뒷면에는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업에 필요한 교사 말, 교실 활동을 담고 있음.	없음.
사용 지	한국 및 해외		한국 및 해외

표21. 문화중심 한국어 교재의 외적 구성

② 내적 구성

㉠ 구성

㉠ 전체 구성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은 머리말, 목차, 일러두기, 각 과의 구성, 인물소개, 본 단원(한국 즐기기/한국 살기/한국 알기), 듣기 대본 및 번역, 한국언어문화사진집 사진 목록의 순서로 구성되며 일러두기에서 이 교재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각 과의 구성이라는 항목을 두어 각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단원에 등장하는 인물 소개도 나타나며 부록으로 한글 듣기 대본과 영어 번역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언어문화사진집에 수록된 사진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현대 문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차례, 책을 펼치며, 본 단원, 부록으로 나뉜다. 본 단원 앞의 ‘책을 펼치며’에서 책의 구성이나 의도 등을 간략하게 밝히고 있으나 보다 상세한 지침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본 단원의 본문에 나타나는 문화 어휘는 따로 모아 책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전체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전체 구성	• 머리말 • 목차 • 일러두기 • 각 과의 구성 • 인물소개 • 본 단원(한국 즐기기/한국 살기/한국 알기) • 듣기 대본 및 번역(한글, 영어) • 한국언어문화사진집 사진 목록	• 차례 • 책을 펼치며 • 본 단원(1~9) • 부록(한국 현대 문화 어휘 목록)

표22.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전체 구성

⑥ 단원 구성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의 단원 구성은 도입 말하기, 핵심 단어, 듣기 및 연습 문제, 활동, 단어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단원의 도입 부분에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진 아래에는 듣기 전 익혀야 할 핵심 단어 목록이 제시되고 있어 듣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듣기 후 제시되는 연습 문제는 1차, 2차, 3차, 4차 듣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뒤로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활동 부분은 두 가지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의 마지막 부분은 단어와 표현이라는 부분을 두어 본 단원에서 나온 어휘와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 현대 문화’의 단원 구성은 생각해 보기, 본문, 어휘 학습, 표현하기, 활동하기로 나누어져 있다. 단원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책을 펼치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각 단원은 다시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읽기 전 활동으로 생각해 보기, 읽기 중 활동으로 본문, 읽기 후 활동으로 어휘 학습, 표현하기, 활동하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현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로서 어휘를 바라보고 있어 어휘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어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화 어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단원 구성	• 도입 말하기 • 핵심 단어 • 듣기 및 연습 문제 • 활동 • 단어와 표현	• 생각해 보기 • 본문 • 어휘 학습 • 표현하기 • 활동하기
	• 모든 단원의 도입 부분에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진 아래에는 듣기 전 익혀야 할 핵심 단어 목록이 제시되고 있음. • 듣기 부분은 1차, 2차, 3차, 4차 듣기로 나뉘어져 있음. • 활동 부분은 2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고 있음.	• 각 단원이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구성됨(단원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책을 펼치며’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남). 읽기 전 활동으로 ‘생각해 보기’, 읽기 중 활동으로 ‘본문’ 읽기, 읽기 후 활동으로 ‘어휘학습’, ‘표현하기’, ‘활동하기’를 두고 있음. • 각 단원마다 ‘어휘학습’을 두어 문화어휘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음.

표23.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㉔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유형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은 총 5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50개의 단원은 한국 즐기 16단원, 한국 살기 18단원, 한국 알기 16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 즐기기에서는 전통문화에서 현대의 놀이 문화를 포함하여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며, 한국 살기에서는 한국의 생활 문화에, 그리고 한국 알기 부분에서는 지식이 필요한 한국 문화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고 있다.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각 단원은 주제와 상황이 함께 제시된 혼합형 교수요목을 따르고 있다.

‘한국 현대 문화’는 총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원명 아래에 소제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단원명과 소제목들만 보면 각 단원에서 무엇에 대해 학습할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단원은 한국의 현대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다른 단원들은 한국 현대 문화의 세부적인 주제들로 구성하고 있어 주제형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㉕ 학습 내용 분석

㉕ 주제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의 주제는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특성을 살려 각 단원별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양하며 전통 문화적인 요소에서부터 현대 문화, 그리고 일상문화와 성취 문화를 두루 제시하고 있다.

‘한국 현대 문화’에서는 한국의 현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의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역사와 문화유산 등의 주제는 현대 문화를 나타내는 주제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현대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나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주제	<한국 즐기기> · 인사동, 전통문화, 고궁, 탑, 운동, 노래, 연예인, 공연, 데이트, 다이어트, 여가생활, 전통놀이, 꿈 <한국 살기> · 초대/방문, 대중교통, 집, 일자리, 시험공과금, 미장원, 쇼핑, 시장, 음식, 전화, 인터넷, 결혼, 병원, 등산 <한국 알기> · 계절, 생일, 결혼식, 단군 신화, 나라, 학교, 대학시험, 명절, 식사예절, 한복, 음식, 한국인의 특징, 미신	· 한국의 이해 ·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 · 정치 · 여가와 여행 · 한국적 가치와 종교 · 경제 · 교육 · 가족과 결혼 · 변화하는 한국

표24.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 (주제)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

◆ 문법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은 ‘한국언어문화사진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듣기 교재이며, ‘한국 현대 문화’는 문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읽기 교재로 문법 학습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문법	없음.	없음.

표25.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의 문법 학습

◆ 어휘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은 단원의 세 부분(핵심 단어, 도움 단어, 단어와 표현)에서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단어에서는 듣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단어를 목록으로 제시하였으며, 단어를 제시할 때 참고가 될 만한 ‘한국언어 문화사진집’의 사진 고유 번호를 함께 적어 두었다. 사진은 본 교재의 뒷부분 사

진 목록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도움 단어 부분은 학습 활동 중 첫 번째 문제 아래에 제시되고 있는데 학습 활동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와 표현 영역은 해당 단원에서 다루어진 어휘와 중요한 문장이나 표현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단원 당 30개~35개의 어휘가 제시되고 있으며 문장 단위의 중요 표현은 2개~5개 정도 제시된다. 또한 모든 어휘와 표현에는 영어 번역이 함께 제시되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한국 현대 문화’에서 어휘는 본문에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고, 이는 다시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된다. 문화어휘에 역사적 인물의 이름도 포함하고 있어 어휘 선정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 어휘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 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혹 본문 속에서 한자나 영어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의미 제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각 과의 본문에서 제시되는 어휘의 수는 10~22개 정도이며, 어휘의 직접적인 제시는 아니지만 연습 문제를 통해서 문화어휘 외의 어휘 의미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읽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난이도가 높은 다른 어휘들을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다.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어휘	제시 방법	단원의 세 부분에서 어휘를 제시하고 있음 : '핵심단어', '도움 단어', '단어 표현'	- 한국 현대 문화 어휘 목록 제시 (본문에서 문화어휘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함. 그러나 어휘의 의미는 제시하지 않음.) '어휘학습'에서 연습 문제를 통한 의미 제시를 시도하고 있음.
	어휘 선정	- 핵심단어: 듣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단어를 목록으로 제시하였으며, 단어를 제시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사진 고유 번호를 적어 두었음. 사진은 관련 구성물인 '한국언어문화사진집'에서 보거나 본 교재의 뒷부분 사진 목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 - 도움단어: 학습 활동 중 첫 번째 문제 아래에 제시되고 있는데, 학습 활동에 필요한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음. - 단어와 표현: 각 단원에서 다루어진 어휘와 중요한 문장이나 표현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본문 관련 어휘

표26.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 (어휘)

• 발음

두 교재 모두 발음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제시 방법	없음.	없음.

표27.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학습 내용 (발음)

• 문화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은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로 한국의 문화를 50개의 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문화의 내용은 전통문화적인 요소에서부터 현대

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상문화와 더불어 성취문화 관련 요소들도 제공되고 있다. 문화를 주제로 제시되는 학습 활동 부분에서는 한국 문화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나라 문화와의 비교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쌍방향 문화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단원별로 제시되는 문화 내용들은 도입 부분의 사진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풍부한 어휘와 난이도를 고려한 단계적 듣기 활동,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 현대 문화’는 한국의 현대 문화에 중심을 둔 교재로 한국의 오늘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각 단원을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나누고 읽기 전 활동으로 사진을 보고 주제에 해당하는 문화의 내용을 추측하게 하는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읽기 중 활동으로는 본문의 읽기 텍스트와 함께 사진, 도표 등을 제시하여 한국의 현대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읽기 후 활동으로 본문에서 제시되었던 문화에 대해 조사, 비교, 토론 활동 등을 주어 현대 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본 교재 역시 ‘한국언어문화듣기집’과 마찬가지로 단원의 읽기 후 활동 대부분에서 학습자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들을 다루고 있어 문화 상호주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의 문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문화	-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로 한국의 문화를 50개의 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문화의 내용은 전통문화에서 현대 문화, 그리고 일상 문화와 성취 문화를 두루 다루고 있음. - 문화를 주제로 제시되는 학습 활동 부분에서는 한국 문화의 일방적 내용 제시가 아닌 학습자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쌍방향 문화 소통을 유도하고 있음.	한국의 현대 문화에 중심을 둔 교재로 한국의 오늘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음.

표28.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 학습 내용 (문화)

③ 학습 활동

㉠ 기능적 측면 분석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은 듣기 중심의 교재로 난이도를 고려한 4가지 유형의 듣기 연습 문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어휘 중심 듣기 연습 문제이며 두 번째 유형은 문장 중심의 연습 문제, 세 번째 유형은 담화 중심의 연습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듣기 연습 문제는 듣기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텍스트를 완성하는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듣기 연습 문제 아래에는 문제의 정답을 각 쪽 아래 거꾸로 표기하고 있다. ‘활동’이라는 항목으로 제시되는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언어문화사진집’의 사진을 이용한 듣기, 말하기, 쓰기의 활동이 제시되고 이러한 언어 기능들이 통합된 학습 활동도 나타난다. 그러나 읽기 활동은 제시되지 않는다. 두 번째 활동 유형은 비교 문화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습자 나라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현대 문화’는 읽기 중심의 교재로 읽기 전, 중, 후 단계를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학습자가 실제 문화요소들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읽기 전 활동의 생각해 보기에서는 본문을 읽기 전에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말하기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읽기 후 활동으로 표현하기에서는 본문에서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말하기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활동 아래에 공백을 충분히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쓰기활동도 함께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활동하기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학습자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여 쓰고 말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쓰기와 말하기 기능이 통합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내용적 측면 분석

‘한국언어문화듣기집’과 ‘한국 현대 문화’ 모두 본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화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용을 심화하여 학습 활동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나라와 비교하는 활동들을 다양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한국 현대 문화
연 습 활 동 의 주 제	<사진보며 말하기> · 인사동에서 하고 싶은 것 · 서울의 유명한 곳/가 보고 싶은 곳 · 유명한 관광지 · 좋아하는 운동 · 씨름 · 좋아하는 노래/가수/배우 · 아리랑 · 보고 싶은 공연 · 점 · 건강을 위한 운동 · 찜질방 문화 · 피곤할 때 하는 방법 · 놀이 문화 · 한국 친구 집 방문하기 · 교통수단 이용하기 · 한국의 전통 · 내가 살고 있는 집 · 아르바이트 구하는 방법 · 취업 준비하기 ·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 유행하는 머리모양/미용실 이용하기 · 한국의 시장 · 한국 · 한국 음식 · 휴대 전화 · 컴퓨터/인터넷 · 결혼 문화 · 병원, 약국 이용하기 · 계절 · 돌잔치 · 전통 결혼식 · 단군 신화 · 태극기 · 학교와 학생 · 한국의 대학 · 명절(추석, 설날) · 식사 예절 · 남자 물건, 여자 물건 구별하기 · 김치 · 유명한 음식 · 환갑잔치와 장례식 · 한국인의 특징 · 금기사항	<학습자의 나라와 비교하기> · 인사동과 비슷한 곳 · 인기 있는 운동 종목 · 전통적인 운동 · 대표적인 민요 · 놀이 문화 · 테이트 문화 ·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 교통수단의 종류 · 전통 집 · 아르바이트의 종류 · 인기 있는 직업 · 유명한 시장/재래시장 · 대표적인 음식 · 통신 문화 · 결혼 문화 · 병원, 약국 이용하기 · 계절 · 물건의 상징적 의미 · 옛날이야기의 동물 · 세계의 국기 · 학교와 학생 · 대학교 · 식사 예절 · 장식품 · 환갑잔치와 장례식 ·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	· 단군신화에 대해 알아보기 · 국경일 및 기념일 비교하기 · 단일민족 · 한국 대표적 포털 사이트 · 각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조사하여 통계내기 · 화폐 비교하기 · 각 도의 명칭 알기 · 서울의 문화 유적지 · 군부통치의 이해 · 한국 민주화 운동의 이해 · 이데올로기 이해 · 한국정부의 이해 · 국정기관 및 시민단체의 이해 · 실향민의 이해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알아보기 · 자기 나라의 여행지 소개 · 추석 음식 알아보기 · 한국의 시 감상하기 · 사주팔자 알아보기 · 한국의 불교 이해하기 · 신명나는 한국문화 · 수출품 비교하기 ·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 알기 · 영화 보고 토론하기 · OECD가입 국가인 한국 · 한국의 대표적인 할인마트 · 한국의 교육제도 · 한국의 입시지옥에 대한 이해 · 영화평 쓰기 · ‘강남’이라는 말의 의미 ·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비교하기 · 오늘날 한국의 결혼문화 알아보기 · 한국의 통과제의 이해하기 · 결혼식 풍습 비교하기 · 광고를 통해 본 한국의 가족주의 · 한국인의 국제결혼관 · 한국의 유망 산업과 상품 · 한류문화 알아보기

표29. 문화 중심 한국어 교재 학습 활동 : 내용적 측면 분석

듣기	활동	읽기와 표현
1. 한국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사진을 보면서 알아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운동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E5-1	E5-2	E5-3
E5-5	E5-6	E6-2
E5-4		
E6-3		

한국	여러분 나라
1.	
2.	
3.	
4.	
5.	

그림11. '한국언어문화듣기집'의 '양국 문화 비교'의 예

1 한국의 교육제도

여러분 나라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한국의 교육제도와 여러분 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해 봅시다.

나라명	학교와 수학 기간	학기
한국	4년제대학교 (4년)/ 2년제대학 (2년)	
	↓	
	고등학교 (3년)	3월 7월 9월 12월 2월
	↓	봄학기 여름방학 가을학기 겨울방학
중학교 (3년)		
↓		
초등학교 (6년)		
↓		
자 기 나 라		

그림12. '한국 현대 문화'의 '양국 문화 비교'의 예

4) 교재 분석 결과 및 제언

국내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교재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세종학당의 교재 개발에 반영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내용(문법, 발음, 어휘) 제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문법의 경우 타 교재들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의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영어나 중국어 번역을 함께 제시하여 보완하였다. 그러나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 항목이 많고 몇몇 교재는 학교 기관의 교재에 비해 문법 선정 및 제시 방법의 체계성의 떨어졌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 역시 난이도에 따른 체계적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수문법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문법에 중점을 두지 않는 세종학당 교재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대화 속에 나타나는 문법의 난이도나 체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용구나 표현항목으로 제시하여 통째로 사용하게 하되, 그 밑바탕에서는 문법의 난이도나 체계성을 보이지 않게 따져야 할 것이다. 문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문법을 내세워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문법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음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학습하는 세종학당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를 말할 기회 및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발음이 화석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세종학당 교재는 이를 반영하여 발음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테이프나 CD등의 듣기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발음 교육을 위한 듣기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의 경우 한 단위 당 다소 많은 어휘량과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어휘의 선정이 문제시되었다. 세종학당 교재의 경우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수의 어휘를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적은 시간동안 많은 양의 어휘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갖기 쉽다. 이는 곧 학습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에 맞게 적당한 수의 어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 난이도의 경우 앞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관심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문화 중심 교재를 지향하는 세종학당 교재에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문화를 단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언어 기능별 학습 활동의 균형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언어 양상을 살펴보면 언어발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관련이 높는데, 세종학당 학습자들도 그들과 유사한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들은 현지에서 한국어 듣고 말할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읽고 쓸 기회도 적다.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시간 관계상 4가지 기능별 활동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수업시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쓰기나 읽기 등의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교재와 다른 보조 자료들에서 보다 많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말하기나 듣기가 수업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기는 하나 그 수업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 두 가지 기능 또한 충분히 다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4가지 기능들이 균형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기본교재 및 연습 교재, 그리고 다매체 자료 및 DVD에 골고루 분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종학당의 주제는 실생활에 필요하고 현지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주제들로 구성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여성 결혼 이민자 교재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에 나타나듯이 학습 대상자의 요구 및 상황을 고려한 주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학당에서 학습하게 될 학습자의 성향 및 상황, 요구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세종학당 건립 거점 지역 국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 주제에 대한 문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결과들이 도출·정리되면 세종학당 교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습자들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편성 있는 주제도 제시되어야 한다. 요컨대, 교재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특수성과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주제들과 보편성 있는 주제가 균형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제시가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대부분의 교재들은 우리 문화만을 강요하고 알리는 식이었으나 ‘비즈니스 한국어 1, 2’에서는 학습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문화를 제시하고 있고 농림부 교재 도입부분에서도 비교문화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 상호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문화제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 중심 교재에서 각 단원별로 제시되는 문화를 주제로 한 학습 활동은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나라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쌍방향 문화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종학

당 교재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인 측면에서 강요하기보다는 쌍방향으로 소통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제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본 교재 외의 연습 교재, 듣기 CD, DVD, 다매체 보조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생활의 대부분을 가사일이나 직장일로 보내는 학습자들에게는 수업 시간 외에 따로 학습할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는 세종학당이 건립될 현지의 학습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한국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종학당 외의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흥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의 대학기관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센터나 이주 여성 센터에서는 대부분 자원봉사자와 같은 한국어 교육 비전공자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더군다나 그들이 제작한 교재로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교수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세종학당에서도 국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이 부족한 현지의 교사가 가르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다면 현지의 교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험이 많이 부족한 교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3.2.2. 국외 교육 자료 분석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하는 방식은 직접 분석 방식과 간접 분석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직접 분석 방식은 국외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직접 수거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며, 간접 분석 방식은 국외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교재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외의 한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에 관한 연구 보고를 검토한 결과 연구 보고에 나타난 한국어 학습 수요층은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에 치중되어 있다.¹⁷⁾ 따라서 본 연구가 비학문 목적의

17)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외 한국어 교재 관련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김정숙 외, 2006, “한국어교재론” 개발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일반인 대상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국외 교재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검토는 본 연구에 큰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기로 하였다.

1) 분석 대상 교재

국외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크게 세 가지로 대분되는데,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국내 교재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현지에서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국내 교재의 국외 사용

본 연구팀이 국외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외에서 한국어 학습에 사용한 교재를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연세대학교 교재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기는 하되 그 개발 출처가 국내의 경우에는 본 장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현지어 번역 교재

김수정(2005), 일본의 한국어 교재의 실태와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6-2.

할리나 오가레크-최(1991),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편찬과 교수 방법, 교육한글 4, 한글학회

블라디미르 부ček(1991),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한글 4, 한글학회

고송무(1991), 핀란드와 카작스탄에서의 한국어 및 고려말 교육, 교육한글 4, 한글학회

김영순&보텐명래(1998), 독일어권 한국인 2세를 위한 교재 개발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교육 9-2

한국구제교류재단 위음(2007),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하민탄(2006),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현황 및 전망, 한국학연구 15권, 119-133쪽

서상국, 김시경(2005),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 러시아의 경우: 활용되고 있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0권, 131-148쪽

Ly, Kinh Hien(2007), 베트남에서의 인문 한국학, 한국학연구 제17권, 41-61쪽

게 에르텐치맥(2006), 몽골에서의 한국학 연구, 한국학연구 제15권, 101-117쪽

국내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교재를 국외에서 현지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교재의 내적 구성이 국내 교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장의 분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재를 현지어 번역하는 경우에 교재의 외적 구성면에 대한 간단한 고찰로 이들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였다. 본 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현지어 번역 교재는 한림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교재이다.

현지어 번역 교재는 국내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책을 기본 교재로 삼고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교재의 내적 구성에 현지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어 번역 교재의 외적 구성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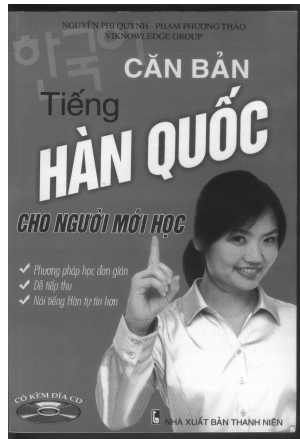


그림13. 한림출판사 한국어 교재

베트남어 번역 교재는 국내의 한림출판사에서 1992년에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원본으로 삼아 2006년에 베트남에서 출간한 것이다. 원본 교재는 18.5*25.5 cm의 크기에 140쪽 분량의 책이고, 번역된 교재는 16*24 cm의 크기에 198쪽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현지어로 번역된 교재는 원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나 그림을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원본 교재에는 삽화에 색상이 들어있지만 번역 교재에는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원본 교재의 내용 구성은 어휘제시, 발음 설명, 본문 대화, 문법 설명과 연습 문제가 수록된 후 각 과에 문화 설명이 뒤따랐지만, 현지어 번역 교재에는 문화 설

명 부분이 빠져있다. 번역 교재에는 원본 교재의 영어 설명 부분에 베트남어 번역이 부가되어 있다.

③ 현지 개발 교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현지에서 개발된 교재에 대한 분석이 이 장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이 범주에 해당되는 교재는 실질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재(KLEAR 교재 시리즈)가 개발되었지만, 이는 영어권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로서 세종학당 교육 대상에 맞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국어 교육을 위한 한글교재가 미국 등지에서 다수 개발되었으나 이 또한 세종학당의 교육 대상이 한국어를 문화유산으로 하지 않는 외국의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최근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싱가포르, 네팔, 중국 등지의 서점에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발 국가	교재명	학습대상	출판 연도
미국	KLEAR	학문 목적 학습자	2000
중국	한국어 초보자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일반인	2007
싱가포르	기초 회화용 한국어	일반인	2006
네팔	좋은 한국어	일반인	2007
뉴질랜드	나미, 안녕	비성인	2002
베트남	무역한국어	일반인(무역인)	2007
	한국어	일반인	2004
	판매원에게 한국어	일반인(판매원)	2005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어	일반인	2006
	한국어 기본문형	일반인	2005

표30. 분석 대상 교재

2) 교재 분석 항목 설정¹⁸⁾

(1) 외적 구성

- ① 레이아웃
- ② 삽화, 사진의 실제성 점검
- ③ 주 교재 관련 구성물 유무

(2) 내적 구성

① 구성

- ㉠ 전체 구성
- ㉡ 단원 구성
 - 단원의 내용 제시 순서
 -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유형

② 학습 내용

㉠ 주제

- 주제가 다양한가?
-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 실생활에 부합하는가?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

㉠ 문법

- 문법 항목이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되었는가?
- 각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의 양은 적절한가?

㉡ 어휘

- 어휘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어휘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18) 국외 교재 분석 항목도 앞 장의 국내 교재 분석에서 설정한 분석 항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외에서 개발된 교재는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에 비해 내적인 구성이 너무 빈약한 까닭에 앞서 제시된 분석 항목에 대응되는 항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어휘에 대한 의미 설명이나 발음 설명이 있는가?

㉔ 발음

-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㉕ 문화

- 문화 항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문화 내용이 적절한가?
- 일상문화, 성취문화의 비율은 적절한가?

③ 학습 활동

㉖ 기능적 측면

㉖㉔ 말하기

- 말하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말하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㉖㉕ 듣기

- 듣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듣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㉖㉔ 읽기

- 읽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읽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㉖㉕ 쓰기

- 쓰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쓰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㉖㉔ 통합 활동

-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위한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㉗ 내용적 측면

-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3) 교재 분석의 실제

(1) 「KLEAR」

① 외적구성

이 책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영어권 대학에서의 사용을 목표로 개발된 교재이다. 초급, 중급1, 중급2, 그리고 고급까지의 4단계 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는 두 권의 교과서와 두 권의 연습 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학의 학기제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편성된 교재 구성이다.

전체가 흑백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각 단원마다 실제 사진이 흑백으로 삽입되어 있다. 연습 문제 부분에는 간단한 삽화가 들어 있어서 예문에 나오는 단어의 이해를 도왔다. 문화 항목 부분의 실제 사진은 흑백으로 처리되어 실려 있다.

② 내적 구성

㉠ 전체 구성

이 책은 각과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언어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최대한 실제 상황에 어울리는 대화와 함께 자세한 문법유형 설명과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영어로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문법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별 예제와 연습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학습자 입장에서 의사소통 연습을 하기 위한 수행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본문의 영어 번역은 각 단원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어서 되도록 한국어로 생각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단원 구성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단계에 해당되는 교재의 단원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도입부분에 단원의 목표와 학습할 문법 요목 및 수행 과제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 부분은 6-8쌍의 대화문과 읽기 산문을 섞어 사용함으로써 말하기와 읽기 활동을 위한 구성을 함께 갖추었다.

㉔ 언어 내용

㉔a 주제

이 교재에 제시된 주제는 국내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교재에 제시된 주제와 대동소이한데 이는 학문 중심(academy-oriented)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사용된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㉔b 어휘

국내 교재와 구별되는 특색 중 하나는 어휘 목록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품사별 제시와 주제별 제시, 숙어적 표현과 화용적 용법을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는데, 각 단원에서 확장될 만한 어휘를 본문 바로 다음에 수록함으로써 앞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에 필요한 어휘를 학습자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명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㉔c 문법

문법항목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제시되었으며 각 설명 다음에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유형의 연습 문제가 실려 있어서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㉔d 발음

교재에 발음과 관련된 부분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㉔ 문화

단원과 관련된 문화 항목을 영어로 설명해 놓았으며 관련된 사진이 삽화 형식으로 수록되었다.

㉕ 언어 활동

㉑ 기능적인 면

각 단원을 구성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이 모두 활용되는 교재 구성으로 볼 수 있다.

㉒ 내용적인 면

학습 활동의 내용적 측면은 소개와 인사에서 시작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서 문화 관습적 내용과 전통 문화적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역시 국내 교재에 나타나는 학습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 「한국어 초보자도 한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다」

㉑ 구성

㉑ 외적 구성

중국에서 2007년 9월에 발간된 7.87*9.6cm크기의 교재로 291쪽 분량의 책이다. 각 과의 처음 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삽화가 제시되어 있고, 삽화의 실제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교재에 사용된 색상은 흑백으로 한정되어 있다. 관련구성물로는 CD(MP3파일)가 있다.

㉞ 내적 구성

㉠ 전체 구성

교재는 출판정보, 서문, 목차, 본 단원(총 74개의 주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단원 구성

각 단원은 단원명, 삽화, 관련 표현, 어휘, 실용 회화(대화 1, 대화 2)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학습 내용

㉟ 주제

주제¹⁹⁾를 일상교제와 일상생활로 나누었으며 그 주제에 관련된 문장들을 대화 쌍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제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9) 이 교재에서는 주제를 크게 일상교제와 일상생활로 나누고 있는데 교제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과 그 만남에서 나눌 수 있는 언어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일상생활은 삶과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그러나 주제 분류를 보면 교제와 생활이 혼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상 교제	일상생활
주제	· 첫인사 · 소개 · 안부 묻기 · 헤어지기 · 직업이야기 · 학교이야기 · 날씨 · 외모 · 스포츠 · 취미 · 건강 · 가정 · 결혼 · 자녀교육 · 감사 · 사과 · 칭찬 · 격려 · 신임 · 위로 · 충고 · 권고 · 말 걸 때 하는 표현 · 긴장을 완화시키는 표현 · 동의 · 긍정 · 부정 · 불명확한 표현 · 후회 · 도움 구하기	· 아침인사 · 밤 인사 · 집을 나서면서 · 집으로 돌아와서 · 집에서의 식사 · 날씨 · 시간 · 전화 걸고 전화 받기 · 전화 끊기 · 음식 시키기 · 술집 · 찻집 · 병원 접수 · 아픈 곳 설명하기 · 진찰 · 약 · 치료 상황 · 병문안 · 우체국에서 편지 부치기 · 우체국에서 소포 부치기 · 택배 부치기 · 계좌개설 · 은행예금하기 · 환전 · 은행직원 상용어 · 여행객 상용어 · 대출 · 상의하기 · 자동인출기 · 미용실 · 미용사 상용어 · 꽃집 · 세탁소 · 물건사기 · 한식당 · 일식집 · 중국집 · 양식집 · 버스타기 · 비행기타기 · 택시타기 · 지하철타기 · 여행(나들이)

표31. '한국어 초보자도 한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다' 교재의 주제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과 억양, 문화)

• 문법

문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어휘

관련 표현 다음에 어휘가 제시되고 있다. 각 단원 당 2~13개정도의 어휘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개수에 있어서 통일성은 없다. 어휘는 표현에 등장했던 어휘들이며 로마자로 읽는 방법을 표기하고 있고, 중국어로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발음

발음을 2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과 중국 한자 중에서 한국어와 발음이 최대한 비슷한 것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성조와 부정확한 발음 표기로 인해 오히려 한국어 학습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문화

문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은 전혀 없고 회화만 제시되어 있다.

(3) 「기초 회화용 한국어」

이 교재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교재이다. 한국어를 시작하는 초급 단계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① 구성

㉠ 외적 구성

싱가포르에서 2006년 발간된 교재로 161쪽 분량의 제본된 형태의 책이다. 각 과에 사진과 삽화가 들어가 있으나 삽화의 실제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교재에 사용된 색상은 제본된 형태의 책이라서 흑백으로 한정되어 있다.

㉡ 내적 구성

㉠ 전체 구성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차례 - 감사의 말 - 머리말 - 교재 구성표 - 한국의 역사와 한글 - 등장인물 - 교실용어 - 한국 인사말 - 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국가 교재들과는 달리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재 구성표를 제시하여 교재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고, 등장인물과 교실용어, 한국 인사말 등을 본 단원 전에 제시하여 수업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한글에 대하여 영어로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 단원 구성

단원 구성은 ‘학습 목표 - 대화1 - 대화2 - 대화3 - 읽고 대답하기 - 문법 설명 - 문법 연습 - 단어와 표현 - 문화노트(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1과는 한글에 관한 과로 그 구성이 상이하다. ‘모음 - 자음 - 받침 - 음절 - 쓰기(필순) - 읽기 - 발음 - 한국어 기본문장 이해하기 - 사전 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학습 내용

㉠ 주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제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제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사물의 이름과 장소 묻기 / 자기소개하기 / 음식주문하기 / 숫자 세기 / 약속하기 / 위치 묻기 / 가족과 친구에 대하여 말하기 / 원하는 것 말하기 / 지나간 일(과거) 말하기 / 여행 경험 묻기 / 숫자 말하기 / 이유 묻기

표32. '기초 회화용 한국어 교재'의 주제

㉡ 언어 내용

• 어휘

각과에 단어와 표현을 두어 각과에서 제시되었던 단어들과 표현들을 영어와 한자(한자로 표현되는 경우만)로 제시하고 있다. 30~60개 내외로 비교적 많은 어휘들이 한 과에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 문법

국내 한국어 교재들에 나타나는 문법의 순서와 비슷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다른 국외 교재들에 비해 문법 제시가 비교적 체계적인 편이다. 문법 설명은 영어로 제시되어 있으며, 문법 연습은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빈칸에 채워 넣는 연습과 짝 활동을 통해 연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문형 연습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 과제중심의 연습 문제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 발음

1과에서 한글의 발음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발음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문화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문화 노트(몇몇 과에서는 팁)라는 코너를 두어 한국 문화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학습 활동

각 과마다 읽고 대답하기 코너를 두어 짧게 제시되어 있는 본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문법 연습 코너에서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쓰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듣기 활동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재 구성표 Part 2에는 학급 과제라고 하여 말하기 활동들을 유도하는 주제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교재에서는 이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4가지 기능을 통합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들도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문형 연습을 위한 것이 주라고 볼 수 있다.

(4) 「좋은 한국어」

㉠ 외적 구성

네팔에서 출간된 14*21.5cm 크기의 214쪽 분량의 책이다. 자모음 발음 입모양을 나타내는 삽화가 흑백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삽화가 없다. 그리고 교재에 사용된 색상은 흑백으로 한정되어있다. 출판정보, 출간사, 목차, 총 35개의 작은 소재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뒤에는 어휘목록이 가나다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 내적 구성

학습 교재의 성격보다는 어휘, 기본 문장 사전에 가까운 편이다. 제시된 어휘나

문장은 다시 영어와 네팔어로 번역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법 및 발음, 문화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어휘 제시만 될 뿐 연습 문제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습내용 배열을 보면 난이도나 빈도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는 한국어 어휘나 문장들이 오류투성이라는 점이다. 철자는 물론 띄어쓰기도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아 오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5) 「나미, 안녕?」

① 외적 구성

이 책은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뉴질랜드에서 2002년에 출간된 책이다. 중학교 연령의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두 권으로 구성되었고 20.5*30cm 크기에 80쪽 정도의 분량이다.

책의 구성은 활자보다 삽화와 사진이 더 많이 수록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된 색상은 흑백에 한정되었으며 본문 대화와 게임에 제시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CD가 준비되어 있다.

② 내적 구성

㉠ 전체 구성

이 책은 10과로 구성되었는데 일주일에 두 시간씩 배우면 한 학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각과는 기본 대화와 활동, 한글 쓰기, 문화 항목, 그리고 복습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본 대화는 2-3쌍의 대화로 제시되었으며 매과마다 듣고 몸 움직이기와 듣고 입으로 따라 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기본 대화를 사용하는 Role-Play 항목이 수록되었으며, 한글은 각과에서 두 개 정도의 자음과 모음을 제시함으로써 교재가 끝날 때까지 한글 배우기가 완성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복습항목은 기본 대화 문장을 이용하여 빈칸 완성 문제나 단어 찾기 등 게임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㉔ 언어 내용

◆ 주제

이 책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매우 기초적인 인사와 몸동작과 관련된 대화 및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한정되었다.

◆ 어휘

인사말, 신체 부위 관련 어휘, 장소 이동 어휘, 교실 안에 있는 사물 관련 어휘에 한정되었다.

◆ 문법

문법이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발음

한글 철자의 발음기호가 명기되었을 뿐 그 외의 발음 연습 항목이 없다.

◆ 문화

문화 항목에 소개된 요소는 한글, 한국, 동대문, 남대문, 탈춤, 태극기, 호랑이, 무궁화, 한복, 도깨비 방망이 등으로 생활 문화적 요소보다 상징 문화 요소에 한정되었다.

③ 문제점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와 비교해 볼 때 학습량이 현저하게 적으며, 학습 목적보다는 한국어를 통한 놀이 시간 운용을 위한 지침서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6) 「무역한국어」

① 외적 구성

이 책은 베트남에서 2007년에 출간되었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1*18cm 크기의 소책자이다. 삽화나 그림이 전혀 없으며 주제별로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 번역문 문장이 병기되어 있다.

② 내적 구성

책 내용의 목차 부분과 출판 정보가 맨 뒤 페이지에 수록되었고, 나머지 전체 부분에는 무역 관련 업무 상황에 사용되는 문장들을 주제별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수록해 놓았을 뿐이어서 교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문장 사전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어휘, 문법, 발음을 학습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의 구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③ 언어 내용

◆ 주제

무역과 관련된 업무 중에 발생하는 회화 주제로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수록되었다.

인사·방문 / 회사 소개 / 인사와 안내 / 상품을 권유하는 법 / 제품 상담 / 상품 주문 / 가격 흥정 / 납기 재촉 / 계약 체결 / 선적·통관 / 클레임 / 전화 응대 / 접대 / 예약·공항·기내·호텔
--

표33. '무역한국어' 교재의 주제

• 어휘, 문법, 발음, 문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문제점

인간의 언어 활용 능력은 제한된 언어 지식으로 무한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책에서는 상황에 따라 완성된 문장들을 모두 제시해 놓아 학습자의 언어 운용 능력을 막고 있어 언어 교육용 교재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7) 「한국어」

① 외적 구성

이 책은 베트남에서 2003년에 첫 출간되었으며 14*20.5cm의 크기이다. 그림과 삽화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출판 정보가 맨 앞쪽에 책의 목차 부분이 베트남어로 맨 뒤쪽에 수록되어 있다.

② 내적 구성

12개의 주제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되었고, 각 단위에는 기본문형 항목과 회화연습, 단어, 그리고 문화 항목이 들어있다. 기본문형 항목은 5-6쌍의 대화문이 로마자 표기 발음과 베트남어 번역과 함께 제시된 후 핵심이 되는 문장의 유형을 그 아래에 써 놓았다.

회화 연습은 각 단위와 관련된 주제를 적게는 3가지 또 많게는 8가지의 소항목

주제별 상황을 대화체 문장으로 기술했는데 각 문장은 베트남어 표기 발음과 번역이 함께 수록되었다.

③ 언어 내용

◆ 주제

이 책에 실린 단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인사 / 숫자, 날짜, 시간, 용량, 거리 / 질문과 대답 / 교제 / 날씨, 환경, 정치 교통 / 식사 / 쇼핑 / 여행 / 연락 / 은행 / 질병 / 외모

표34. '한국어' 교재의 주제

◆ 어휘

각 단원에 나온 단어들을 베트남어 표기 발음과 뜻풀이가 실려 있으나, 단어 수록 순서에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 발음

한국어 문장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해 놓은 것 외에 발음 학습을 위한 항목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 문화

각 단위마다 한국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화나 관습에 대해 베트남어로 설명해놓았는데 시각 자료는 전혀 없다.

(8) 「판매원에게 한국어」

① 외적 구성

2005년 베트남에서 출간된 14*20cm의 크기의 책이다. 이 책 역시 그림과 삽화가 전혀 없이 한국어 문장들이 로마자 표기 발음과 베트남어 번역과 함께 수록되었다. 출판정보는 맨 앞쪽에 책의 목차는 뒤쪽에 베트남어로 각각 실려 있다.

② 내적 구성

이 책에 수록된 문장들은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나 물건을 사고 팔 때 유용한 문장들을 다양한 판매업에 따라 수록하였다. 학습 교재의 성격보다 문장 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휘, 발음, 문법 등의 항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원을 나누는 주제 분류에도 쉽게 파악되지 않아서 필요한 문장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장들이 오류투성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문장들도 많다. 예를 들자면, 비둘기 고기를 찾는 문장이 예문으로 실렸는데 한국 사회에서 비둘기가 식용이 아니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9)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어」

① 외적구성

2006년 베트남에서 출간된 14.5*20.5cm의 크기이다. 책과 함께 두개의 카세트테이프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 관련 사진이 흑백으로 처리되어 간간이 실려 있는데 단원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 실린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동일한 사진이 두 군데 이상에 반복해서 실린 경우도 있다. 출판정보는 맨 앞쪽에 책의 목차는 맨 뒤쪽에 수록되었다.

② 내적 구성

120개의 상황을 각 과로 편집하여 각 상황에 따른 대화문이 각 과마다 2쌍 내지 3쌍씩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문장 아래에는 로마자 표기의 발음과 베트남어 번역이 제시되었다. 또 대화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이 베트남어로 부가되어 있는데 모든 과에 문화 설명이 부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도 상황에 따른 대화문만 사전식으로 수록해 놓았을 뿐 단어나 문법, 발음 등 어학적 학습을 위한 항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10) 「한국어 기본문형」

① 외적 구성

2005년에 베트남에서 출간된 14.5*20.5cm의 크기의 180쪽 분량의 책이다. 본문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 관련 사진이 흑백으로 간간이 들어가 있다.

② 내적 구성

이 책은 90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는 기본문형 제시와 예문, 연습 문제로 구성되었다. 기본문형은 볼드체로 베트남어 번역과 함께 제시되었고, 그 아래 예문이 8개가량 베트남어 번역과 함께 수록하였다. 연습 문제는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베트남어 문장은 한국어로 각각 5문장 정도를 번역하는 것인데 두 과마다 제시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한과마다 제시되기도 하였다.

책 뒷부분에는 부록으로 단위명사, 불규칙 동사표, 부사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③ 언어 내용

교재 구성이 문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제 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휘 및 발음, 그리고 문화 항목을 위한 구성도 제시되지 않았다.

④ 문제점

문형에 대한 문법 설명이 전혀 없고 다만 베트남어 번역만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구문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4) 국외 한국어 교재의 분석 결과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재 사용 실태는 대부분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개발된 교재를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내 교재는 국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맞게 제작되어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환경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된 교재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국외에서 개발된 교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분석된 교재는 영어권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인 ‘KLEAR’이다. 이 교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한국어 교재의 수준 향상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어휘는 학문 중심의 학습자에 맞추어져 있고, 문법에 대한 설명도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또 한 단원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어휘 수가 평균 50여 개에 이르고 문법 항목의 수도 6개 이상이나 된다. 즉, 학습 내용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학문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 발간된 교재들은 일반 대중 중심의 교재이며, 비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이들 교재를 보면 여행에 필요한 한국어, 무역에 필요한 한국어, 판매 관련 현장에 필요한 한국어 등 다양한 범주에서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 수요층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재의 수준이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교재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국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교재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난개발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재에 심각한 언어적 오류 현상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성인용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국외의 한글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이며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재는 언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해외 교포 학습자가 모국어를 배우면서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언어 학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재미 위주로 언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통해 학습 동기를 끌어내고 학습을 심화시키는 방법은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교육은 언어 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어휘를 습득하고 문법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 주제의 설정에 일관성과 목표성이 있어야 하고, 예문에 사용되는 어휘도 난이도와 빈도수를 검증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에서 출간된 교재들은 대부분 문화 항목을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고 있더라도 한국의 상징물을 현지어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완성된 언어 학습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작되는 교재는 문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교수요목에 대한 개발을 심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2.3. 국내 주재 해외 문화원 교육 자료 분석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 문화원 및 어학센터 중 중국의 공자학원, 한불 문화 재단 산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문화원 내 괴테 어학 연구소, 일본 국제 교류기금 서울문화 센터 및 영국 문화원의 어학 프로그램 및 그 교재를 분석한다.

영국 문화원 내 어학센터의 성인 대상 영어 프로그램은 총 42시간/21시간으로 주 4회/2회 수업을 실시하며 매 회 수업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정규 영어 회화 코스 외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중 특정 영역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특별 코스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문화원 산하 괴테 어학 연구소는 단계별 매 회 3시간 수업(1시간은 45분 단위), 주 3회, 8주로 구성되어 있고 영국 문화원은 90분 수업, 주 4회, 7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는 완전 초보 학습자이거나 단계적인 프랑스어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Initial 1로 수업을 하고 있다. 문법 연습, 어휘, 발음, 기본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학습 진도가 빠르지 않고 문법은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Initial 2에서는 독해력과 작문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학습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문법, 어휘, 회화 등 Initial 1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매 회 100분 강의로 주3회, 8주 동안 1단계 학습이 진행된다.

공자 아카데미 서울 센터에서는 입문, 기초회화, 실전 회화별로 단계를 나눠 매일 50분, 2개월 코스를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를 배우는 초보자에게 정확한 발음과 성조 및 중국어 기초 문형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는 전후기 각각 13주간의 과정을 열고 있다. 고교생은 등록할 수 없으며 최근 4년간 일본어능력시험 1급 합격자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타 어학 센터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심화된 일본어 학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분석 대상 교재

	도서명	저자	발행처	출판 연도	권 수
영 어 교 재	New Headway	Liz & John Soa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
	New English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	Clive Oxenden, Christina Latham-Koenig, Paul Selig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
독 일 어 교 재	Tangram aktuell Niveau A1/1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Til Schönherr	Max Huever Verlag	2005	1
	Tangram aktuell Niveau A1/2				1
	Tangram aktuell Niveau A2/1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Til Schönherr			1
	Tangram aktuell Niveau A2/2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Beate Blüggel, Anja Schümann			1
불 어 교 재	initial 1 livre de l'élève	Sylvie POISSON-QUINTON, Marina SALA	clé international	2006	1
	initial 2 livre de l'élève			2002	1
중 국 어 교 재	차이나 파노라마(입문편)	여필송,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대외한어교육발전센터	Language & Culture Press (동양문고)	2007	1
	차이나 파노라마(기초회화편)				
	차이나 파노라마(생활회화편)				
	차이나 파노라마 실전회화 기본편	오숙평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대외한어교육발전센터			
일 본 어 교 재	일본어 초보 I	국제교류기금 The Japan Foundation	YBM si-sa	2006	
	일본어 초보 II			2005	

표35. 분석 대상 교재

2) 교재 분석 항목 설정²⁰⁾

(1) 외적 구성

- ① 레이아웃
- ② 삽화, 사진의 실제성 점검
- ③ 주 교재 관련 구성물 유무

(2) 내적 구성

① 구성

- ㉠ 전체 구성
- ㉡ 단원 구성
 - 단원의 내용 제시 순서
 -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유형

② 학습 내용

㉠ 주제

- 주제가 다양한가?
-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 실생활에 부합하는가?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

㉠ 문법

- 문법 항목이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되었는가?
- 각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의 양은 적절한가?

㉡ 어휘

- 어휘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어휘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 어휘에 대한 의미 설명이나 발음 설명이 있는가?

20) 국내 교재 분석의 틀을 따름.

㉔ 발음

-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㉕ 문화

- 문화 항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문화 내용이 적절한가?
- 일상문화, 성취문화의 비율은 적절한가?

③ 학습 활동

㉖ 기능적 측면

㉑ 말하기

- 말하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말하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㉒ 듣기

- 듣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듣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㉓ 읽기

- 읽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읽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㉔ 쓰기

- 쓰기를 위한 연습 활동이 있는가?
- 쓰기 활동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㉕ 통합 활동

-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위한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㉖ 내용적 측면

-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연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3) 교재 분석의 실제

(1) 외적 구성

교재 구입의 경우 중국어와 일본어 교재는 한국의 출판사에서 독점 출판을 하고 있어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영어 교재도 보편화되어 있어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으나 독일어, 불어 교재는 각 어학센터에서 수강생의 수에 맞게 해외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어 구입이 쉽지 않았다.

레이아웃과 삽화의 경우 영어, 독일어, 불어 교재는 4도의 컬러 교재로 사실성 높은 사진과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삽화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권 교재인 중국어는 문화 항목에만 사실적인 사진을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3도 정도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 교재의 경우 흑백 구성에, 아주 단순한 삽화만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재의 외적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 교재	독일어 교재	불어 교재	중국어 교재	일본어 교재
구입	쉬움.	쉽지 않음.	쉽지 않음.	쉬움.	쉬움.
레이아웃	• 두 종류 모두 4도 컬러 구성 • 표지 2, 3은 여백으로 처리	• 4도의 컬러 구성 • 표지2에는 독일 지도, 표지3에는 인접 국가의 지도를 넣어 지리, 문화적 측면을 표지부터 강조 • 교재의 전반부에는 학습용 내용이 후반부에는 연습 문제수록	• 4도의 컬러 구성 • 1권 표지2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유명한 지표가 되는 것들을 수록 • 1권 표지3에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국가나 지방을 색깔별로 차이 나게 표시해 놓음.21) • 2권 표지2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도 수록, 각 나라명과 국기를 그려 놓음. • 2권 표지3에는 프랑스 지도를 수록. 각 지방명과 지방의 주요 도시 명을 수록해 놓았고 현재 프랑스령인 나라들도 작게 표시해 놓음.	• 4도의 컬러를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컬러가 주는 화려한 느낌은 없음. • 표지2, 3은 여백으로 처리	• 표지에만 4도의 컬러를 사용, 내용물은 모두 흑백으로 처리
자료의 실제성	사실성 높음.	사실성 높음.	사실성 높음.	<입문>편 • 문화항목에만 사실성 높은 사진 • 캐릭터 중심의 삽화 (상황 표현)	• 사실성 떨어지는 흑백삽화
관련 구성물	• New Headway: CD/ 카세트테이프 • New English File : CD, Video, MultiROM: www.oup.com/elt/englishfile/elementary • New English File Elementary Work Book • New English File Teacher's Book	CD	• CD • initial 1 cahier d'exercices • initial 1 livre du professeur • initial 2 livre de l'élève • initial 2 cahier d'exercices	카세트테이프 1, 2	없음.
사용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	한국	한국

표36. 외적구성

21) 독일어 교재와는 달리 언어·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교재이다.



그림14. 독일어 교재의 표지2



그림15. 독일어 교재의 표지3



그림16. 불어 교재의 표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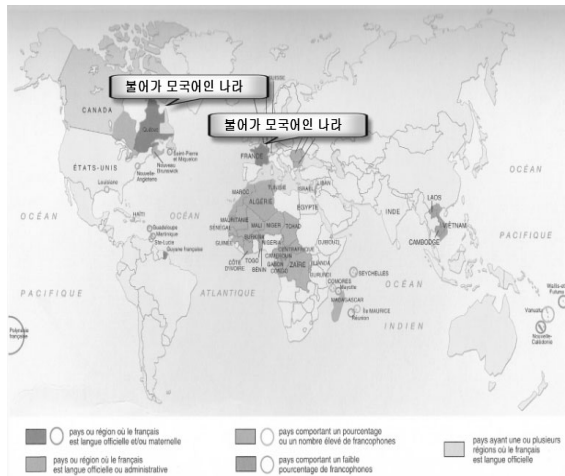


그림17. 불어 교재의 표지3

위 그림과 같이 독일어 교재와 불어 교재에서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백지 여백으로 처리되어 오던 표지 2면의 부분에 지정학적 정보와 자국에 대한 내용 소개를 담음으로써 한 눈에 언어 문화적인 상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종학당의 표지 2면과 3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세계지도에 한국의 위치를 표시하고 세종학당이 설립되는 나라마다 표시를 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한국 지도에 지명과 특산물, 평균 기온 등 기후적인 요건 등을 표시해 넣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2) 내적 구성

① 구성

㉠ 전체 구성

교재들의 일반적인 전체 구성은 본 단원 앞부분, 본 단원, 본 단원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본 단원의 앞부분에는 교재의 차례, 구성, 일러두기, 교수요목을 제시하여 교재의 구성 원리나 사용 시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각 교재의 전체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 교재	독일어 교재	불어 교재	중국어 교재	일본어 교재
전 체 구 성	New Headway · 내용 구성표 · 본 단원 · 듣기 지문 · 문법 보충 참조 · 어휘 색인 · 부록(동사활용) · 발음 기호	· 서문 · 내용 구성표 · 전반부: 본 단원 · 후반부: 학생용 · 정답 · 문법 확인	· 서문 · 교재 구성 방식 요약 · 내용 구성표 · 본 단원 · 문법 지침(연습 문제 포함)	· 서문 · 등장인물 · 본 단원	· 서문 · 본 단원
	New English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 · 내용 구성표 · 본 단원 · 말하기 정답 · 듣기 지문 · 문법 정리				

표39. 각 교재의 전체 구성

영어 교재 New Headway 는 총 14과, New English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은 총 9개의 unit로 구성되어 있고 unit 1-8 당 4개의 ABCD까지의 하위 단위 과와 1개의 실용 영어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unit 9는 AB와 어휘, 발음 복습 및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어 교재는 타 교재들과는 달리 책의 전반부에는 본 교재, 후반부에는 학생용 workbook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어 교재는 교재의 끝 부분에 문법 복습 격인 문법 지침 파트가 들어있는데 연습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중국어 교재는 본장의 분석 대상 교재 중 유일하게 등장인물을 삽화로 소개하고 있다. 일본어 교재는 특징으로 지목할 만한 것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문법번역 위주의 교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㉔ 단원 구성

New English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에서는 어휘, 발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이 과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순서 없이 제시되어 있다. 독어와 불어 교재의 경우도 과의 주제나 상황에 맞춰 단원 구성의 내용 및 형식이 자유롭게 바뀐다. 특히 독어 교재는 어학 교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주제나 상황에 맞춰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색다른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교재나 일본어 교재는 일관성 있는 단원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동양어권 교재들이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 내용보다는 문법 번역 중심, 문형연습 위주의 학습을 지향하고 있는 데서 오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 교재	독일어 교재	불어 교재	중국어 교재	일본어 교재
단 원 구 성	New Headway • 도입 • 전개 • 문법 연습 • 어휘와 발음 • 읽기와 듣기 • 생활 영어	• 과제 및 연습 • 학습 기술 • 음성학(발음) • 보충 표현 • 혼동이 되는 동사구별 • 자가 평가 • 통제 연습 • 학습 어휘	• 본문(듣기) • 어휘 • 활동(듣기, 역할극) • 발음 • 문법	• 핵심 표현 • 새 단어 • 본문 회화 • 본문 해설 (문법, 표현) • 문형연습	• 본문 • 연습 • 새 단어
	New English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 • 어휘 • 발음 •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 문법				

표40. 각 교재의 단원 구성

㉔ 단원명 및 교수요목 설계

영어, 독일어, 불어 교재의 경우 주제와 상황이 혼합된 교수요목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단원명도 ‘만남’, ‘일과 여가’와 같은 주제명과 ‘저는 ○○○을/를 찾는 데요’와 같은 상황 중심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영어, 독일어, 불어 교재를 비교 분석해 보면 독일어 교재의 단원명이 가장 주제명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중국어와 일본어 교재는 본문의 대표 문장이 단원명으로 제시되어 있어 본 단원의 상황이 어떤지 미리 예측 가능하다. 초급 교재의 경우 ‘만남’이나 ‘여가’ 등의 추상적인 주제명으로 단원명을 주는 경우 학습자들의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반면에 단원명을 본문의 대표 문장으로 할 경우 초급 학생들이 쉽게 외울 수 있고 체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중급 이상의 교재인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이나 주제어나 핵심어를 파악하는 연습을 목적단원명의 주제어로 주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② 학습 내용 분석

㉕ 주제²²⁾

<주제> 분석의 대상이 된 교재 중 3개 이상의 교재에 중복되어 나온 주제는 인사, 소개, 만남, 건강, 가족, 음식, 의복, 여행, 휴가, 날씨와 계절, 집 등이었다. 이 주제들은 각 언어권별 교재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다.

22) <주제>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국내 해외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 중급의 모든 교재의 주제를 모두 조사하였다. 이는 주제의 중복도를 조사하여 차후 세종학당 교재에서 다루게 될 주제 선정에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영어 교재	독일어 교재	불어 교재	중국어 교재	일본어 교재
주 제	New Headway · 인사 · 소개 · 만남 · 일 · 거주지 · 언어 · 현재/과거 · 시간/기간 · 음식 · 의복 · 외모 · 인생 · 능력 · 경험	· 인사 · 소개와 만남 · 위치 · 쇼핑 · 일 · 여가 · 가족 · 가정 · 수도 · 일상생활 · 짧은이 · 휴가 · 여행 · 건강 · 색깔 · 모양	· 인사 · 소개 · 외모 · 가족 · 생일 · 쇼핑 · 구매 · 장소 · 위치 · 집 · 일상생활 · 계절 · 영화 · 약속 · 휴가 · 취업 · 관광 · 연극 · 건강 · 출장 · 실수 · 음식 · 시험 · 과거/현재 · 인터넷 · 인구 · 시대 · 거리 · 관광지 · 룸메이트 · 기후 · 날씨 · 조언 · 태도 · 휴가 · 방문	· 인사 · 소개 · 감사 · 일정 · 집 찾기 · 국적 · 약속 · 제안 · 거절 · 수업 · 신문 · 쇼핑 · 음식 · 생일 · 축하 · 외모 · 신발 · 운동 · 전화 · 편지 · 관광 · 선물 · 날씨 · 계절 · 식욕 · 주문 · 건강 · 일 · 교통 · 초대 · 소포 · 송금 · 시험 · 방 예약 · 여행 · 기분 · 운 · 덕담 · 새해인사 · 언어 · 서비스 · 농담 · 서명 · 도움 · 식사 · 망신 · 구경	· 국적 · 소개 · 인사 · 물건 · 전화 · 쇼핑 · 계획 · 시간 · 일상생활 · 날씨 · 공부 · 교통 · 요리 · 스포츠 · 언어 · 가족 · 사진 · 분실 · 신문
	New English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 · 인사 · 만남 · 요일 · 능력 · 취미 · 쇼핑 · 사랑 · 여행 · 사고 · 국적 · 신원 · 차 · 기호 · 예술 · 음악 · 유명 · 인사 · 외모 · 시간 · 역사 · 집 · 이웃 · 음식물 · 명절 · 카드 · 연예 · 도시 · 의복 · 약속 · 책				

표41. 각 교재의 학습 내용 - 주제

㉠ 언어 내용(문법, 어휘, 발음, 문화)

㉠ 문법

서양어권 교재와 동양어권 교재가 판이하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법> 항목이다. 영어, 독일어, 불어 교재의 경우 상황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내

용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상황 내용 중의 일부분으로 극소화시켜 접근하고 있다. 설명을 본 단원에서 거의 하지 않고 뒷부분 부록에서 문법 보충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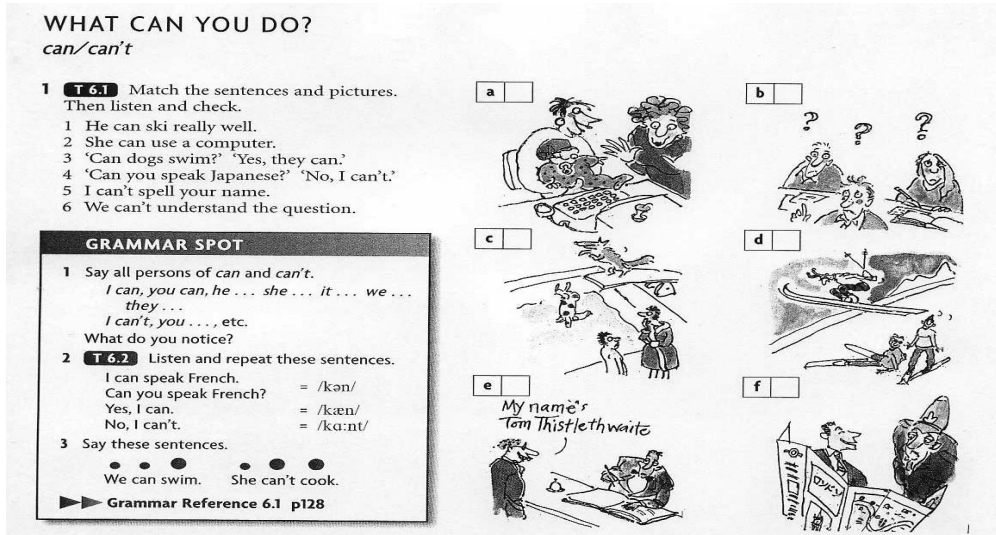


그림18. 영어 교재 New Headway :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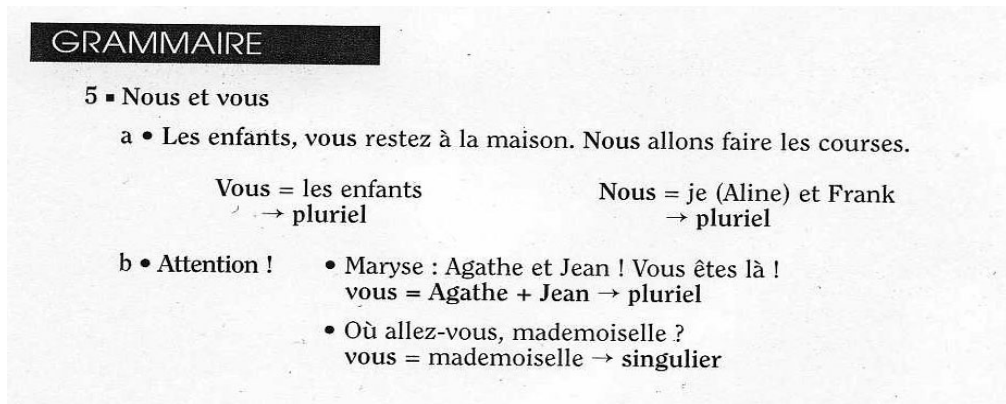


그림19. 불어 교재 : 문법

문법 항목은 설명 위주의 제시가 아니라 본문이나 본 단원의 듣기나 읽기를 통해 문법 요소를 찾아내도록 하는 연습 문제 형식으로 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출판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다. 영어 교재에서는 문법 설명을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문제로 제시해 해결해 보게 하고 설명은 <Grammar References>를 참조하라고 쪽 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불어 교재의 문법 항목 설명은 최소한으로 절제된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장황한 언어적 설명 대신 ‘+’ 나 ‘→’ 표시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양어권 교재에서 다루는 문법이 주로 관사나 조동사,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 법(mode) 등이기 때문에 비교적 도식화시켜 설명하기 쉬운 항목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⑥ 어휘

서양어권 교재에서 문법 항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어휘 항목이다. 삽화나 사진을 넣어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제시하며 어휘 학습을 시키고 있다.²³⁾

VOCABULARY AND SPEAKING
Leisure activities

1 Match the words and pictures. Tick (✓) the things that *you* like doing.

- ☐ playing football
- ☐ dancing
- ☐ skiing
- ☐ watching TV
- ☐ going to the gym
- ☐ taking photographs
- ☐ cooking
- ☐ playing computer games
- ☐ sailing
- ☐ listening to music
- ☐ swimming
- ☐ reading
- ☐ eating in restaurants
- ☐ going to the cinema
- ☐ jogging
- ☐ sunbathing

2 Discuss in groups what you think your teacher likes doing. Choose five activities.

I think he/she likes cooking. *No, I think he/she likes eating in restaurants.*

Ask your teacher questions to find out who is correct.

Do you like cooking? *Do you like eating in restaurants?*

그림20. 영어 교재 New English File : 어휘

23) 독일어 교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휘 학습에 할애하고 있다. 부록에 첨부될 모범 단원에서 내용을 제시했다.

VOCABULARY coffee and snacks

- a Look at the coffee shop menu. Match the words and pictures.
- b In pairs, cover the words and test your partner.

Café Espresso



	regular	large
☐ Filter coffee	1.50	1.70
☐ Espresso	1.65	2.85
☐ Cappuccino	1.95	2.95
☐ Chocolate chip cookies	1.50	
☐ Brownies	1.85	

그림21. 영어 교재 New Headway English : 어휘

Écoutez.

La journaliste : Monsieur Lebrun, c'est dur, la vie des cultivateurs ?

M. Lebrun : Oui, l'été surtout.

On est dans les champs du matin au soir. On se lève à cinq heures et on se couche à dix ou onze heures.

Et ici, il fait très chaud l'été !

La journaliste : Qu'est-ce que vous cultivez ?

M. Lebrun : Le blé. La vigne aussi. En octobre, on fait les vendanges.

C'est dur, aussi. Il pleut souvent, en Alsace.

La journaliste : Et l'hiver ? En hiver, il fait froid mais c'est tranquille ?

M. Lebrun : C'est tranquille mais il y a les bêtes.

Il y a toujours quelque chose à faire, à la campagne.



VOCABULAIRE



• un cultivateur



• les bêtes



• les vendanges

les saisons :



• le printemps



• l'été



• l'automne



• l'hiver

• tranquille • un champ • le blé • la vigne • cultiver • pleuvoir • quelque chose
• la campagne • octobre

그림22. 불어 교재 :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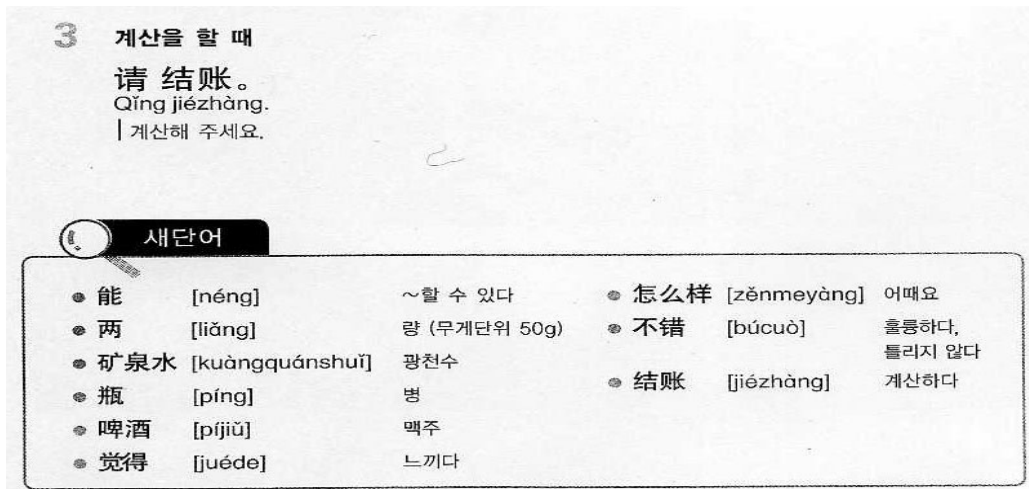


그림23. 중국어 교재 : 어휘

영어 교재에서는 실제 사진과 어휘를 번호로 연결하는 형태로 어휘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형용사의 반의어 찾기와 형용사를 이용한 문장 쓰기 연습으로 어휘 학습을 확장하고 있다. 문장을 만든 후 테이프를 들으며 정답을 확인하고 따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휘 학습이 의미 변별에만 그치는 기초적인 어휘 학습이 아니라 생성과 확장을 고려한 다면적인 연습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불어 교재의 어휘 제시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새 어휘는 본문 아래에 어휘(vocabulaire) 소개용 박스 안에 넣어서 제시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어휘나 관용 표현은 본문에 나오는 새 어휘와 분리해서 여러 곳에 나눠 제시하고 있다. 한 곳에 제시되는 표현의 숫자는 1~2개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어휘를 배워야 할 때 갖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고 적절한 상황에 맞는 표현을 바로 암기하여 구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 군데에서 이런 형태의 작은 박스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어 교재의 새 어휘 제시는 각 단원마다 첫 페이지에 출현 어휘를 제시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 일본어 교재에서는 새 단어를 본문 뒤에 제시하였다.

㉟ 발음

D.3 Sie sind in Graz an der Tourist Information (Ecke Landhausgasse/Herrengasse). Arbeiten Sie zu zweit und spielen Sie Auskunft.

Dom, *m* ♦ Franziskanerkloster, *n* ♦ Landhaushof, *m* ♦ Oper, *f* ♦ Schauspielhaus ♦
 Schlossbergbahn, *f* ♦ Stadtmuseum, *n* ♦ Stadtpfarrkirche, *f* ♦ die ...straße ♦ Antiquitäten, *pl* ...

Können Sie mir sagen, → wie ich zum Theater komme? ↗
 Zum Schauspielhaus? ↗ Ja, gern. ↘ Gehen Sie hier die Herrengasse entlang → bis zur großen Kreuzung dort hinten, → das ist der Hauptplatz. ↘ Dann gehen Sie rechts in die Sporgasse → und dann die zweite wieder rechts, das ist die Hofgasse. ↘
 Bis zur Kreuzung, → dann rechts und die zweite wieder rechts? ↗
 Genau, ↘ und dann immer geradeaus. ↘ Das Schauspielhaus ist auf der linken Seite, → gegenüber vom Dom, → neben dem Burgtor. ↘
 Vielen Dank! ↘

그림24. 독어 교재 : 발음(억양)

3 PRONUNCIATION verb + -ing

a Practise saying the words in the six sound pictures. Then put two words from the box in each column.

smoking dancing going playing
 asking calling doing moving
 talking crying driving raining

b 6.11 Listen and check. Practise saying the words.

c 6.12 Listen to a man on a mobile. Write the six present continuous sentences.



그림25. 영어 교재 New English File : 발음

독일어 교재에서는 알파벳의 이름과 음소의 음가, 본 단원의 도입 부분에서 나오는 문장들의 억양을 표시해 주고 있다. 이는 다른 언어권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독일어 교재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 단원마다 강세와 억양을 표시한 부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New Headway’에서는 음소의 발음과 영어 강세 부분을 그림을 통해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어휘 연습과 결합시켰다. 이는 단순히 발음만을 듣고 따라하는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세종학당 교재에서 발음을 다룰 경우 학습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New English File’에서는 해당 음소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삽화 처리하고

그 그림 안에서 해당 음소의 모양을 찾아내도록 한 시도가 눈에 띈다. 특히해서 주목을 끌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어 교재의 발음은 음소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기, 듣고 해당 음소가 들어 있는 단어 찾기 수준의 연습이 많았으며 중국어는 단어나 문장의 중국어식 발음 표기를 제시했고 일본어 교재에는 발음에 대한 제시 부분이 없었다.

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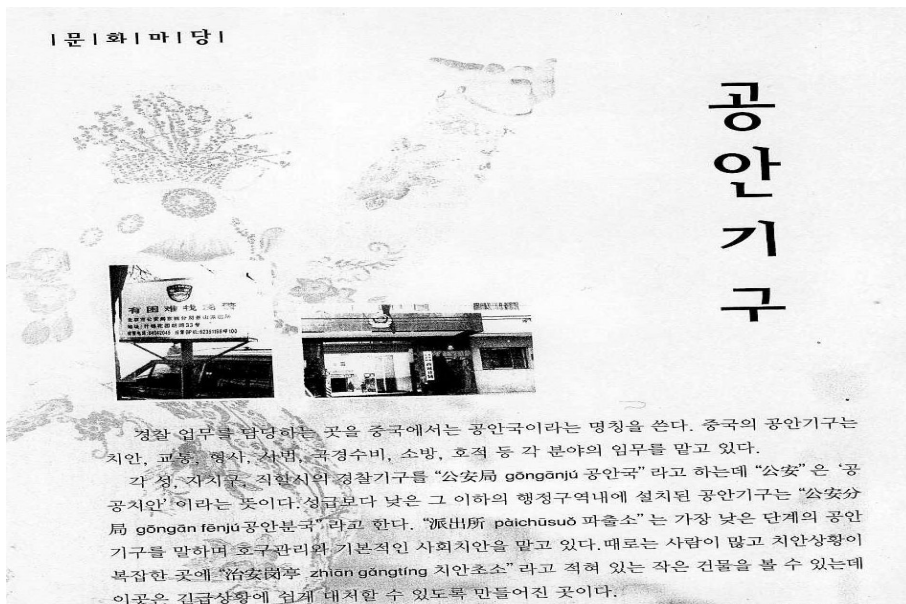


그림26. 중국어 교재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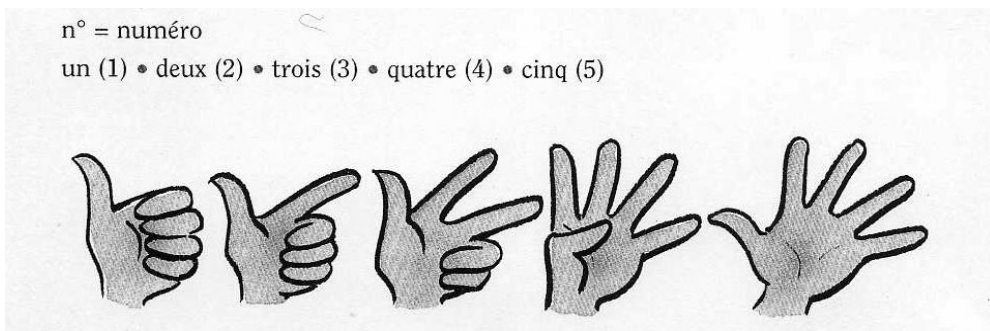


그림27. 불어 교재 : 문화

문화를 항목으로 설정하여 제시한 교재는 중국어 교재 차이나 파노라마의 입문편이 유일하다. 중국어 교재의 경우도 본 단원의 학습이 끝나고 마지막 페이지에 주로 중국 생활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생활 문화적 단편 지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문, 음식점, 오락 장소, 공중전화, 도시 교통,公安 기구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통적 문화의 내용은 결혼을 소개하는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다.

불어 교재의 어휘 학습 항목에 나오는 내용이다. 수를 학습하는 어휘 항목으로 설정 제시되어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수를 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우 사소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프랑스인들의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생활 문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서양 언어권 교재의 문화 항목은 단일 항목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본 단원의 주제나 상황에 맞게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해되어 들어가 있다. 읽기 활동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의 텍스트를 통해 문화적 내용이 도출되도록 하였고, 독일어 교재 ‘베를린, 베를린!’에서처럼 도시나 여행지 소개 또는 교통을 다루는 과에서 현지 문화를 소개하는 식의 내용으로 문화를 접목시키고 있다.

앞으로 세종학당의 수업이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문화 항목은 한국을 소개하는 역사, 전통적 문화나 한국의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습성, 생활 문화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습 활동

① 기능적 측면 분석

	영어 교재 New Headway	영어 교재 New English File Elementary	독일어 교재	불어 교재
말 하 기	· 소개하기 · 묻고 답하기 · 정보 파악하고 전하기 · 인터뷰하기 · 질문 완성해 말하기	· 강세, 억양 잘 듣고 홍내 내며 질문하고 대답하기 · 어휘 넣어서 문장 완성하고 말하기 · 인터뷰하기 · 설문 조사 후 결과 보며 이야기하기 · 사진 보며 묻고 답하기	· 주어진 문장 이용해서 사진에 있는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 해당 문법 사용해 묻고 답하기 · 안내판 보고 대화 만들기 · 그림 보고 상황에 맞는 대화 만들기	· 통제된 역할극 · 상황에 맞는 역할극 만들기 · 인터뷰하기 · <보기>참조해서 말하기 · 듣고 따라 하기
듣 기	· 듣고 맞는 것 표시하기 · 듣고 빈칸 채우기 · 듣고 대화 완성하기	· 듣고 맞는 것 표시하기 · 듣고 빈칸 채우기 · 듣고 차트에 표시 하기	· 듣고 O/X 표시하기 · 듣고 맞는 내용에 표시하기 · 듣고 화자의 감정, 태도 알아내기 · 듣고 알맞은 것과 연결하기 · 듣고 전화번호 받아 적기 · 듣고 서류 완성하기 · 상황 골라 역할극하기 · 소그룹으로 이야기하기	· 듣고 맞는 것에 표시하기 · 듣고 문장 완성하기
읽 기	· 읽고 알맞은 것과 연결하기 · 실제 자료 읽고 답 쓰기 · 설문지 읽고 답하기	· 글 이해하고 답 표시하기 · 웹사이트 정보 읽고 문장 완성하기 · 인터뷰 질문과 대답 읽고 맞는 사진과 연결하기 · 잡지 기사 읽고 주제어 찾기 · 글 읽고 중점 단어의미 유추하기	· 글 읽고 주제어와 연결하기 · 광고 보고 해당하지 않는 단어 지우기 · 통계 읽고 텍스트 완성하기	· 요리법 읽기(2권) · 자료 글과 표 읽고 T/F 표시하기(2권)
쓰 기	· 질문에 맞는 답 쓰기(빈칸 채우기)	· 빈칸에 답 채우고 틀린 단어 지우기 · 이메일/편지 쓰기 · 잡지 기고 글쓰기	· 주어진 정보로 안내판 완성하기 · 질문 문장과 대답 문장 완성하기	· 빈칸에 단어 써 넣어 문장 완성하기 · 자기 생각 글로 쓰기(2권)
통 합 활 동	· 읽기+듣기+쓰기 · 듣기+읽기 · 읽기+쓰기 · 읽기+듣기 · 듣기+말하기	· 듣기+말하기 · 쓰기+말하기 · 읽기+쓰기 · 읽기+말하기 · 어휘 연습+말하기	· 읽기+말하기 · 듣기+쓰기 · 쓰기+듣기	· 듣기+말하기 · 듣기+읽기(들으며 읽기) · 듣기+쓰기 · 읽기+쓰기(2권)

표42. 학습 활동: 기능적 측면

영어 교재에는 현시대의 조류에 맞춘 웹 사이트에서 정보 찾기, 이메일 읽기 등이 다른 교재에 비해 많이 나오고 있다. 문장의 수가 많거나 난이도가 높은 읽기 자료를 제시할 경우 어휘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듣기를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해 놓았다.

독일어 교재 읽기의 경우 표를 보고 정보를 파악한 후 신문 기사 형식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실제 자료를 주거나 실제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제시해서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독일어 교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불어 교재 'initial 1'에서는 거의 모든 활동이 듣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순수한 읽기나 쓰기는 전혀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기의 경우 텍스트를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도록 지시하고 있다. 순수한 읽기 'initial 2'의 뒷부분에서 처음 나온다.

② 내용적 측면 분석

학습 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모든 교재에서 일반적인 주제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어 교재와 일본어 교재는 일반적인 주제를 문형 중심의 대화로만 제시하고 연습 문제를 통한 학습 확인 부분만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서양어권 교재에서는 실생활에 유용한 주제를 적절한 활동으로 연결하여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각 교재에서 나타난 내용적 측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영어 교재 New Headway는 본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내세운 문법과 어휘는 평이한 편이나 보충 자료나 읽기 활동 자료로 제시한 자료의 내용에는 상당한 언어 지식과 상식과 경험,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 가능한 것들이 있어 초급 학습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New English File Elementary는 New Headway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읽기나 쓰기 활동도 실생활에 유용하면서도 난이도는 높지 않은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어 초보 학습자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독일어 교재는 다양한 실제 자료를 제시하며 일상회화를 제시한 후 스스로 규칙을 습득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각 권에서 제시하는 주제는 많지 않으나 가장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각 활동들은 한 개의 활동을 한 후 다시 확인 후 확장하는 식으로 2-3개씩 연

계가 되어 있기도 하다.

불어 교재 1권의 경우 실생활 위주의 대화를 응용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난이도도 높지 않다. 추상적 내용을 토대로 한 활동은 없다. 그러나 2권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상식을 요구하는 읽기 자료가 많고 활동도 아주 어려워진다. 각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특이한 내용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주제가 들어있는데, 이는 중국어 교재와 일본어 교재,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은 불어 교재에 나오기는 하지만 출장 일정에 관한 것도 실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분석 대상이 된 모든 교재들이 일반적인 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므로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와 활동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 영역의 관심사를 깊이 다루지는 않고 있다.

2
At a hotel
PRACTICAL ENGLISH

VOCABULARY hotel words

a Match the words and symbols.

reception	☐ the lift	☐
a single room	☐ the (ground) floor /floor/	☐
a double room	☐ the bar	☐

b In pairs, cover the words and test your partner.

CHECKING IN

a **2.16** Cover the dialogue and listen. Answer the questions.

- How many nights is Mark's reservation for?
- What's his room number?

b Listen again. Complete the YOU HEAR phrases.

c **2.17** Listen and repeat the YOU SAY phrases. Copy the rhythm.

d In pairs, roleplay the dialogue. Use your name.

YOU HEAR

Good evening, sir.

¹ Can you _____ that, please?

For five nights.

² Can I _____ your passport, please?

³ Can you sign here, _____?

Do you want a smoking or non-smoking room?

⁴ Here's your _____. It's room 425, on the fourth floor.

⁵ It's over there. Do you need help with your _____?

Enjoy your stay, Mr Ryder.

YOU SAY

Hello. I have a reservation. My name's Mark Ryder.

R-Y-D-E-R.

Yes, that's right.

Just a moment. Here you are.

Non-smoking, please.

Thank you. Where's the lift*?

No, it's OK, thanks.

Thank you.

* lift = British English
elevator = American English

SOCIAL ENGLISH

a **2.18** Listen and complete the chart.

	Mark	Allie
Where are they from?		
Are they married?		
Do they have children?		
How old are they?		

b Why does Allie think the phone call is from Mark's wife?

c Who says the USEFUL PHRASES, Mark or Allie? Listen again and check. How do you say them in your language?

USEFUL PHR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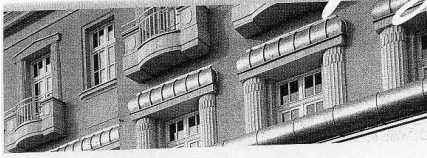
Sorry. → That's OK.

What do you think?

Would you like another drink?

I have to go now.

그림28. 영어 교재 'New English File': 실생활 관련 활동



KEMPINSKI HOTEL FÜRSTENHOF LEIPZIG

Das Kempinski Hotel Fürstenhof Leipzig ist heute wieder eine erste Adresse, die sich bereits seit weit über 200 Jahren durch vorzügliche Gastfreundschaft auszeichnet. Das Kempinski Hotel Fürstenhof Leipzig liegt direkt am Innenhof zwischen dem erlesenen parkähnlichen Rosental mit Zoologischen Garten und der historischen Altstadt, die jeweils in wenigen Minuten zu Fuß erreichbar sind. Willkommen im feinen kleinen Grand Hotel.

Kategorie	Einzelzimmer	Doppelzimmer	Kinder bis 12 Jahre im Zimmer der Eltern kostenfrei.
Standard	€ 170,-	€ 195,-	Wochenend- und Gruppenpreise auf Anfrage.
Superior	€ 200,-	€ 225,-	Preise inklusive Bedienungsgeld und Mehrwertsteuer, gültig ab 1. Januar 2002.
Suite	€ 230,-	€ 255,-	
Presidenz	€ 325,- bis 1050,-		
Historisch	€ 15,50 pro Person		

Lage: Im Zentrum der Stadt; ca. 17 km vom Flughafen Leipzig/Halle; ca. 500 m vom Hauptbahnhof.
Zimmer: 92 Zimmer und Suiten mit Klimaanlage, 3 Telefone mit Voice-mail, Safe, Radio, TV, Fax- und PC-Anschlüsse, Minibar.
Gastronomie: Restaurant „Fürstenhof“, Bar „Wintergarten“, Hofgarten im Sommer.
Dienstleistungen: 5 Konferenzräume für bis zu 100 Personen (29-115 m²), Wellnessbereich „Aqua Marina“.
Parkplätze: 44 Plätze, direkter Zugang zum Hotel.
Telefon: 0341/140-0 • Fax: 0341/140-3700



Informationen aus dem DJH-Landesverband Sachsen e.V.

Am neuen Standort in Klein-Paris:

Jugendherberge Leipzig-Centrum

Anschrift:
Jugendherberge Leipzig-Centrum
Volkgartenstraße 24
04347 Leipzig
Herbergelleiter: Michael Bopp
Tel. 0341/2457011 Fax: 0341/2457012

*Meine Leipzig hat sich mehr,
es soll ein kleiner Ort sein,
für die neue Jugend.

Geeignet für alle DJH-Mitglieder, besonders für Gruppen, Einzelgäste und Familien, die auf Leipzig und die Sachsen neugierig sind, aber auch für Tagungen und Seminare ...

Lage: Die JH liegt zwischen dem Stadtzentrum Ost und der Neuen Leipziger Messe im Stadtteil Schönefeld.

Anreise: Bahn: Leipzig Hbf., dann Straßenbahnlinie 17, 27, 37, 57 bis Haltestelle Löbauer Str. (7 Stationen);
Auto: A 14, Abfahrt Leipzig Nordost, Richtung Stadtzentrum auf der B 87, dann rechts in die Permoserstraße einbiegen.

Raumangebot: 176 Betten in 2- bis 6-Bett-Zimmern. Die Sanitärbereiche befinden sich zentral auf den Etagen. Leiter- und Familienzimmer sind vorhanden.

Freizeitmöglichkeiten: Tischtennis, Sportraum, TV, Video, Videokamera, Dia- und Tageslichtprojektor, Leinwand, Flipchart, Programm- und Kartenservice in der JH.

ÜF: Jun. 12,00 €; Sen. 14,50 €

Voranmeldung wird empfohlen, 5 Tage vor Anreisetermin ist eine telefonische Reservierung möglich.

LEIPZIG KOMMT!

Der Leipzig Tourist Service hilft Touristen bei der Suche nach einer Unterkunft.
Hören Sie die Telefonanrufe und ergänzen Sie die Tabelle.

Name	Telefonnummer	Wie viele Personen?	Wie lange in Leipzig?	Gewünschte Lage für das Hotel	Preisvorstellung
Uschi Mai			eine Woche	zentral	
Riethenschneider					
Sibylle Schneider					
Edelmann					

그림29. 독어 교재 : 실생활 관련 활동

영어 교재에서 나온 실생활에 유용한 활동은 사인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는 어휘 연습 후 호텔 체크인 대화 연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학습자가 들을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빈칸에 빠진 단어를 듣고 쓰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가 말해야 하는 문장도 제시하고 있다. 초급 학습자에게 유용한 말하기 활동이다.

독일어 교재에는 구매에 필수불가결한 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압축되어 들어 있다. 현금 출납기를 실제 사진으로 제시했고 돈 단위 읽는 법과 환율에 관계된 자료를 보고 대화 연습을 하는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 아래 가능한 모든 부분을 포함한 특성 있는 내용과 구성이다.

불어 교재에 유일하게 비즈니스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출장 일정과 출장 목적 성사 여부에 관한 간단한 의사 표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즈니스 관련 내용의 활동은 없다.

4) 교재 분석 결과 및 제언

지금까지의 국내 해외문화원 어학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세종학당의 교재 개발을 위해 제안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본 단원의 언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교재에 수록할 언어 내용을 정해야 한다. 이 장의 분석 결과, 참신한 구성과 치밀하고 빈틈없는 언어 내용을 제시한 교재로는 독일어 교재가 단연 으뜸이었다. 다면적인 언어활동 및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어 교재의 경우 어느 교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본문이 제시되지 않는 대신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듣기, 읽기 자료를 통해 어휘, 문법 등을 학습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형식과 구성은 초기 학습 단계의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독일어 교재와 같은 구성을 하려면 초급을 넘어선 난이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급 교재 개발 이후 중급 교재를 계속 개발하게 된다면 독일어 교재의 구성 원리나 언어 내용 제시 방식에서 일부를 수정 적용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어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단조로운 중국어 교재는 서양어권 교재에 비해 구성이 단순하고 단편적이다. 특정 등장인물들이 계속 해당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일부 한국어 교재에서도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식의 본문 구성이 많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규명, 제시하여 그 상황에 맞게 번갈아 등장시키는 형태의 내용을 담은 본문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세종학당 교재에도 적용 가능하다.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도 학습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현시대의 한국인의 모습을 대표할 만한 등장인물을 설정하거나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현지인을 등장인물로 설정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 영어 교재 New Headway는 주로 가벼운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하는 도입 단계를 거쳐 본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독일어 교재와 마찬가지로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연습과 활동으로 본 단원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경우 담당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출범을 위한 세종학당의 교재 형식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불어 교재의 경우 본문을 듣는 것으로 본 단원이 시작된다.

이때 들어야 되는 내용에는 여러 개의 상황이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삽화나 사진과 연결시키며 듣도록 제시하고 있다. 듣기 스크립트는 각 단원 첫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영어나 독일어 교재에 비해 초보 학습자들을 배려한 구성으로 평가된다.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는 목표 상황이나 주제로 몰입시킬 수 있는 도입 질문이나 간단한 이야기 활동의 주제가 제시되고 이와 관계된 짧은 대화가 듣기 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다뤄야 할 짧은 대화, 혹은 이야기의 주제나 상황, 포함하여야 할 기능 등을 설정한 후 문법, 발음, 어휘 항목에 대한 배열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본 단원의 내용을 표현 학습을 강조한 내용으로 구성할 경우 제시하는 문법의 수는 제한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한번에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도식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문법에 대한 설명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지만 한 국어에는 있지만 세종학당의 교재가 사용될 국가의 모국어에 이와 대응하는 문법이 없을 경우 번역의 효용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되는 문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등장인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는 <tip> 형식의 짧은 설명이 더 유용할 것이다.

발음 항목 제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첫 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세종학당의 교재가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발음 제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음을 어떤 식으로 표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자세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표준발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ㅎ 약화’ 현상은 한국어로 발음 표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문말 억양 등을 제시할 때 올림 정도를 어떤 식으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어 교육 현장의 통일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한국어 혹은 현지어로 발음 표기가 백 퍼센트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다 하더라도 CD나 테이프 등의 청각 자료들이 함께 출판 배포될 경우 표기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분석 대상이 된 서양 어권 교재들에서는 듣기 활동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다. 이는 비단 순수한 듣기 활동만을 제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은 물론 말하기와 읽기 심지어 쓰기 활동까지도 듣기 활동이 기초적으로 먼저 이뤄진 상태에서 본 활동이 가능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어휘 활동을 한 후 정확한 답을 들으면서 확인하도록 제시된 영어 교재도 앞에서 제시되었다. 세종학당의 교재가 사용될 지역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듣기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영어 교재에서와 같은 시도가 이들 학습자를 위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듣기에 노출될 시간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를 접할 기회도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실제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읽기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재 분석 결과를 볼 때 아시아권 교재들에서는 문형 중심의 쓰기와 읽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서양어권 교재들에서는 통합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세종학당의 교재는 아시아권 교재와 서양어권 교재들의 장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교재로 개발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내 출판 한국어 교재는 한 권의 책 안에 모든 연습 문제와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책의 무게나 활자의 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교재를 본 단원이 들어있는 주 교재와 학생용 부교재로 나눈 후 주 교재에서는 본문과 유용한 부가표현, 문법 tip, 발음, 말하기, 듣기 등 통합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부교재적인 학생용 workbook이나 독일어 교재의 부속물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기초 연습 책 형태의 작은 책자에서는 문형 연습과 단순한 쓰기 연습, 실제적인 읽기 자료를 수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부교재에서 하게 되는 연습은 과제물로 제출하고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어휘 학습을 예로 들면, 새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골라 넣는 형태의 연습은 본 교재에서 제시하고 새 단어를 넣어 문장을 쓰거나 문맥에 맞게 재배열하는 등의 충분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학생용 workbook에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습을 할 수 있고, 수업 후에 학습자들은 부교재를 통한 연습을 스스로 함으로써 배운 어휘에 대해 충분히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교재와 부교재의 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학습을 위한 학습 내용이 아니라 한 번 배워 두면 언제든지 실제로 사용가능한 학습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실제성, 중요성, 빈도 등이 우

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뒷장에서 제시될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 분석 결과도 반영하여 적절한 주제와 상황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의 교육 과정이 먼저 확정이 돼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커리큘럼의 초급 과정 설계가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몇 개의 급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후 적절한 주제와 상황을 배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칫 많은 상황을 초급에 모두 제시한 후 중급 수준의 교재 개발 시 주제나 상황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를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의 문화 제시가 필요하다.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역사와 관련된 전통적 문화 제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은 본문과 관계없이 따로 제시가 돼도 무방할 것이다. ‘옛날 한국에서는’식의 제목 하에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문화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생활 문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현지에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은 교사 몇 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생활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문화 관련 CD롬 교재나 동영상 자료가 반드시 함께 출판돼야 할 것이다. 생활 문화는 전통 문화 부분과 연계가 되면서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요즘 한국에서는’식의 제목으로 제시가 돼도 좋을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찜질방’을 한국에 유행하는 ‘방 문화’의 하나로 단순하게 소개를 했다면 세종학당의 교재에서는 옛날 한국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방을 덥히던 것이 현대에 이르러 찜질방의 원조가 되었음을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청각 자료가 함께 제시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해당 국가의 전통이나 상황과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다른 나라에서는’식으로 자국 문화와 외국 문화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장단점이나 비판 등을 말하거나 써 보게 하는 형식의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문화 교수는 한국 문화의 장점과 우수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행해졌다. 과거 한국의 김치를 소개할 때 김치가 우수한 먹을거리라는 것을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이런 시각을 바꿔, 김

치는 한국인이 발명한 발효 식품이며 해당 국가의 대표적 발효 식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게 한 후 왜 한국에서는 '김치'라는 발효 식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왜 학습자의 나라에서는 다른 발효 식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한국의 기후, 산업, 시대적 배경과 특성 등을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꿈꾸는 세종학당 교재의 문화 항목은 일방적인 한국 문화 소개와 수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다문화를 수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의 교재에 대한 자세한 교수 방법과 활동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한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교사를 한국에서 교육, 파견한다 할지라도 교재에 대한 이해와 학습 활동 지도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법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어휘 확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학습 활동을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제는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 예상보다 정해진 내용의 수업이 일찍 끝날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보충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 자세히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비전공자들도 교재와 지침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연구하고 수업에 임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세하게 기술한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재와 지침서의 내용을 토대로 교사 교육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교사 교육을 대신할 모범 수업 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국외 한국어 학습자 요구 조사 분석

이 설문 조사는 국외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건립할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 제작되었다.

국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는 학습 동기가 매우 뚜렷하며 학습 단계, 학습 연령 등이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명확한 학습자이지만,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 한국어를 접하게 될 학습자는 그에 비해 잠재적이며 불명확하다. 따라서 세종학당 교재는 대학이나 학원 등과 같은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와 달라야 한다.

이 설문지의 연구 대상은 국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여건 상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설문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주로 한국의 일반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삼았다.²⁴⁾

1) 설문 대상과 범위

(1) 설문 대상

세종학당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 지역은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권역으로서 2007년 ~ 2011년까지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며, 제2단계 지역은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 권역으로서 2012~2016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설문지 제작 초기에 반영되어, 본 설문지는 중국과 베트남,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한국어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배포되었다.

설문지는 10월 22일(월)부터 11월 13일(화)까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학생과 결혼이민자 수업, 보문동 한글학교에서 조사되었다.

우선, 설문에 응답한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은 61.78%, 남성은 37.58%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주요 학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그대로

24) 설문의 대상은 노동자, 결혼 이민자 이외에 일반 대학이나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 중 초급, 중급 단계의 학습자도 포함시켰다.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응답의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한국어 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²⁵⁾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자	남자	무응답	계
응답자 수	97	59	1	157
백분율	61.78%	37.58%	0.64%	100%

표43. 남녀별 응답자 수

국외 세종학당의 교육 대상은 성별, 학력, 직업의 제한이 없는 초등학교 학력 이상의 보통 사람들이다. 이 설문지는 이에 따라 10대부터 30대까지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10대	20대	30대	40대	무응답	계
응답자 수	12	114	16	1	14	157
백분율	7.64%	72.61%	10.2%	0.64%	8.91%	100%

표44. 연령별 응답자 수

또한 세종학당 설립의 주요 권역에 맞추어 조사된 본 설문지 응답자의 주요 출신지역은 다음과 같다.

국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및 기타
	중국	일본	몽골				
응답자 수	28명	27명	15명	41명	25명	11명	10명
총							157명

표45. 응답자 출신 지역

25) 남녀에 따른 요구 조사가 다른지에 대한 요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한국어 학습은 성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간단하게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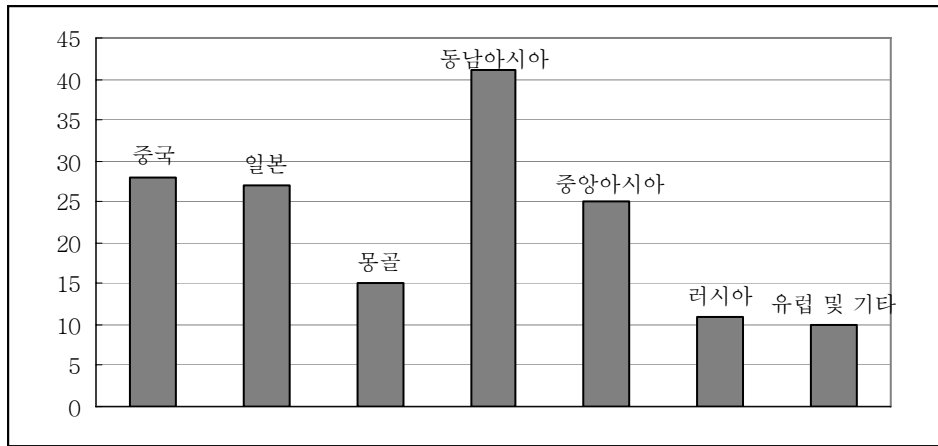


그림30. 응답자 출신 지역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 등은 이번 세종학당 설립의 주요 권역이 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설문 조사 대상 역시 주요 권역에 맞추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자의 자세한 국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응답자 수	국가	응답자 수
베트남	31	대만	2
일본	27	필리핀	2
중국	26	인도	2
몽골	15	인도네시아	2
우즈베키스탄	11	말레이시아	1
러시아	11	태국	1
유럽국가	8	네팔	1
카자흐스탄	7	미얀마	1
아제르바이잔	3	캄보디아	1
키르기스스탄	2	이집트	1
우크라이나	2	호주	1
총	157명		

표46. 국가별 응답자 수

(2) 연구방법

설문은 한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기초 자료 조사이니만큼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항에 주관식 항목을 두어 자유 의견을 적도록 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엑셀 2003과 SPSS 7.0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 등은 하지 않았다.²⁶⁾ 설문은 학습 단계에 따르기보다는 통합적인 요구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응답자에 따른 자세한 변별점 등은 이 설문 분석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다.

(3) 설문의 주요 영역

이 설문지의 주요 영역은 응답자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와 한국어 교육 및 교재 조사 부분이다. 기초 자료 조사에서는 국적과 성별, 연령에 대한 문항이 제시되었고, 한국어 교육 부분에서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내용 주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언어 형식 주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항목이 제시되었다.

2) 요구 조사 분석 결과

(1) 전체 요구 조사

① 한국어 교재 요구 조사

한국어 교재에 대한 조사에 앞서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 유무와 공부했다면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제시되었다.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공부한 학습자는 전체 응답자의 79.6%이며, 공부하지 않은 학습자는 20.38%로 나타났다.

26) 설문지 배포와 수거가 일치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충분한 안내 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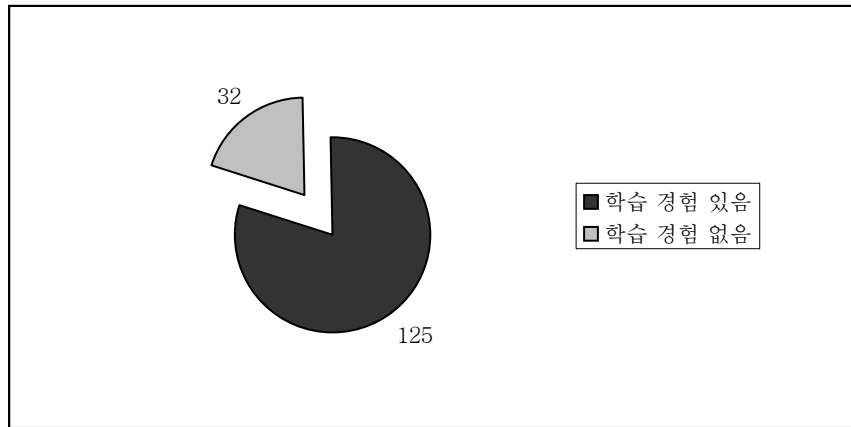


그림31. 한국어 학습 경험

한편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들이 현지에서 사용한 한국어 교재는 크게 현지에서 출판된 것과 한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교재의 사용면에서는 현지 출판 교재는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에서 출판된 교재를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중국	한국어(5), 표준한국어(7), 기본한국어(1)
대만	한국어한국글(1), 최신한국어회화(1), 쉽게 배우는 한국어(1), 한국어(1)
일본	한국어초급(1), 언어의 가교(3), 조선어를 배우자(1), 한국어 중급 1(1)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교재(1)
베트남	한국어 회화(문장과 단어)(1), 한국어회화(1), 초급 한국어2(1), 한국어학습교재(1) 연수생을 위한 한국어(1)
러시아	한국어(베르호블랴크?), 모스크바 대학(번역, 통역)(1)
우크라이나	한국어(모스크바 출판)(1)
호주	korean(1)

표47. 현지 출판 교재

현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대부분은 국내 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

27) 이 책들 중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설문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교재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이다. 연세대학교 교재가 빈도 21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서울대가 12, 경희대가 9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이외에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한국어’라는 이름만을 제시한 학습자도 3명이나 되었다. 이를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	출판사(교재)	빈도
1	연세대	21
2	서울대	12
3	경희대	9
4	고려대	8
5	가나다 korean	7
6	이화여대	6
7	서강대	1
7	한국외대	1
7	KLPT	1
7	Speaking Korean	1
7	Easy Korean	1
7	극동대	1
8	한국어(알 수 없음)	3

표48. 현지에서 사용하는 국내 교재

②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주제 조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주제 조사는 전체 제시 항목 중 가능한 것을 모두 체크하는 중복 체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과 지역별 순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순위	항목	비율
1	음식	73.9
2	소개 및 인사	72.61
3	여행	72
4	교통, 전화, 공공장소	70.7
5	물건 이름	69.42
6	취미	68.2
7	날씨	65.6
8	쇼핑	63.1
9	위치, 약속	62.42
10	계획	60.5
11	날짜	58
12	편지	54.1

표49.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주제(전체)

순위 권역	1	2	3	4	5	6
중국	음식	여행	쇼핑	소개/인사	날씨	교통
일본	소개/인사	공공장소	음식	전화	약속	여행
몽골	소개/인사	전화	음식	약속	공공장소	계획
중앙 아시아	물건이름	소개/인사	교통	음식	전화	날씨 여행 계획
동남 아시아	교통	위치	공공장소	물건이름	여행	날짜 날씨 음식
유럽 외	음식	약속	여행	소개/인사	교통	날씨 전화 물건이름

표50. 권역별 필요 주제

주제에 대한 요구는 각 민족의 특성과 관심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중국인 응답자의 경우 개인적 관심사가 우선적이고, 공공에 대한 것이 다음인 반면, 일본인 응답자의 경우는 공공이 우선이고, 개인적인 것이 다음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동남아시아인 응답자의 경우 위치, 장소, 교통 등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경우 다른 권역 응답자와 전혀 다른 ‘물건이름’이 첫 번째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는 중국과 비슷하게 개인적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권역의 민족적 관심사와 학습자 요구 조사는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족한 설문 조사에도 불구하고 위의 자료는 국외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종학당의 기본 목표인 상호 문화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바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 교류 활동 혹은 교재에서의 능동적 활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 외 전체 순위	항목	비율(%)
1	음식	10
2	약속	9
3	여행	9
4	소개 및 인사	9
5	교통	8
6	물건이름	8
7	날씨	8
8	전화	8
9	쇼핑	7
10	공공장소	7

표51.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필요한 주제

세종학당의 교재가 가르쳐야 할 항목의 표준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세종학당이 설립되는 현지 지역에서의 교육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인이 원하는 내용을 교수 내용과 방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③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언어 범주 조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언어 범주 조사 역시 ‘주제’ 조사와 같이 전체 제시 항목 중 가능한 것을 모두 체크하는 중복 체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을 순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순위	항목	비율(%)
1	발음	84.1
1	문법	84.1
2	어휘	82.8
3	듣기	79
4	읽기	75.8
5	쓰기	74.5
6	유용한 표현	59.2
7	관용어	47.134
8	속담	40.8
9	담화표지	40.13

표52. 필요한 언어 표현(전체)

설문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언어 항목은 발음과 문법으로 이 두 항목이 동시에 84.1%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문법’이 차지한 위상에 대하여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문법번역식 교육이나 청각구두식 교육이 아니라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문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국어 문법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선다. 학습자들의 문법에 대한 요구는 한국어라는 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언어 사용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듯하다. 즉, 의사소통 이전에 문법에 대한 명쾌한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학습자들의 문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교재가 제시해야 할 문법의 변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²⁸⁾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어휘로서 의사소통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과 어휘, 발음을 학습자들이 우선순위로 꼽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주요 권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 권역	1	2	3	4
중국	발음	문법	듣기, 읽기	쓰기
일본	문법	발음	어휘	듣기
몽골	쓰기	어휘	발음, 문법, 읽기, 유용한 표현	듣기
중앙 아시아	발음, 어휘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동남 아시아	듣기	문법, 쓰기	발음, 어휘, 읽기	유용한 표현
유럽 외	문법, 읽기	발음, 어휘	듣기, 쓰기	유용한 표현, 관용어, 담화표현

표53. 권역별 필요로 하는 언어 표현

위의 표에서 주목할 사실은 역시 주요 권역에 따라 요구도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발음과 문법의 중요성이 비슷하게 드러나지만 몽골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쓰기와 듣기가 중요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학습자의 연령 때문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특색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표현의 중요성 때문인지는 이 조사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권역의 요구 내용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8) 방성원(2003)에서는 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의 특성을 규명하고 문법 교육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해 사용 중심, 실제성, 범주학습, 발견 학습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중국 전체 순위	항목	비율
1	발음	28
2	문법	27
3	듣기	26
3	읽기	26
4	쓰기	24

표54. 중국에서 필요한 언어 표현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범주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겠다.

④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범주 조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범주도 전체 제시 항목 중 가능한 것을 모두 체크하는 중복 체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을 순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순위	항목	비율
1	전통 음식	72.6
2	현대 대중문화	69.42
3	전통 옷	58
4	현대 옷	51
5	전통 잔치, 현대 일상 음식	50.3
6	전통무술	46.5
7	전통 집	45.86
8	현대 잔치	43.31
9	현대 집	38.2

표55. 필요한 문화 범주(전체)

주제 항목을 고려한 후 문화 항목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바로 설문 응답자들이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주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음식이 문화 항목의 범주에서는 ‘전통 음식’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최근 한류(韓流)의 흐름을 반영 하듯이 현대의 대중문화가 2위를 차지했고, 패션 즉 전통/현대 옷이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연령이 20대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대는 한국의 전통 문화보다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현대 문화에 더 관심이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교류하는 한국의 20대 혹은 30대의 특성에 맞추어 문화 교육의 코드를 맞추는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적인 분포는 세종학당의 학습 연령이 다양한 까닭에 한계점을 지니기도 한다. 이를 권역별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권역 \ 순위	1	2	3	4
중국	전통음식	현대 대중문화	전통옷	현대음식
일본	현대대중문화	전통음식	전통옷	전통잔치
몽골	현대대중문화	전통음식	전통잔치 현대집 현대음식	전통무술
중앙 아시아	전통음식	전통옷	전통잔치 현대 대중문화	전통집
동남 아시아	전통음식	현대대중문화	전통옷	현대음식
유럽 외	전통음식 현대대중문화	전통집 현대음식	전통옷 현대집	전통무술 전통잔치 현대잔치

표56. 주요 권역별 필요 문화 항목

문화 범주에서는 주제 범주, 언어 범주와 달리 주요 권역의 관심사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국외에서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는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의 문화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위 내용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⁹⁾

29) 이 그림은 백분율이 아니라 응답자 수 분포를 나타내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57명 중 110여명이 문화 항목 조사에 응답을 보였다. 이 그림에서 막대그래프는 각 지역의 관심사를 개별적으로 나타내며, 그것이 합쳐진 누적된 총 관심사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현대 옷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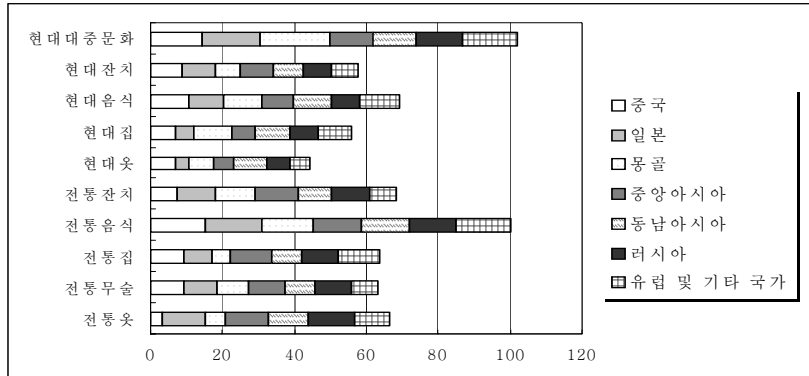


그림32. 주요 권역별 필요 문화 항목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각 권역의 해외 학습자들은 다른 문화 항목보다 현대 대중문화와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외 지역에서는 전통 음식을, 일본, 몽골, 유럽 외 지역에서는 현대 대중문화를 배우고 싶은 문화 항목으로 답변하였다.

⑤ 주관식 문항

이 설문은 대규모 연구 설문지가 아니므로 주관식 항목을 두어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응답자 157명 중 총 23명이 응답하여 14.65%의 응답률을 보였다.

대한 개별 국가의 관심 분포에서 일본은 가장 낮고, 동남아시아는 현대 옷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전체 국가 중국,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유럽 외 국가를 모두 합쳐 45명 내외로 현대 대중문화(105여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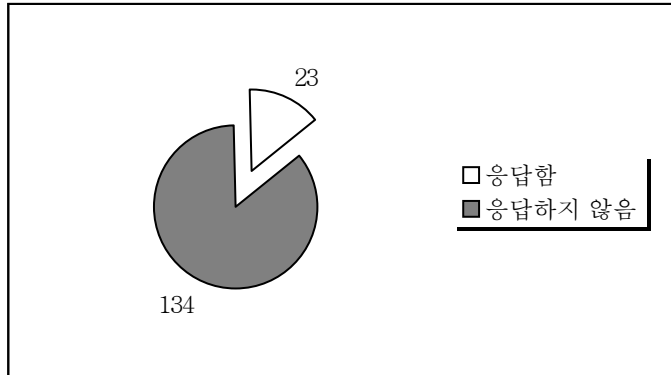


그림33. 주관식 응답 비율(%)

주관식 응답률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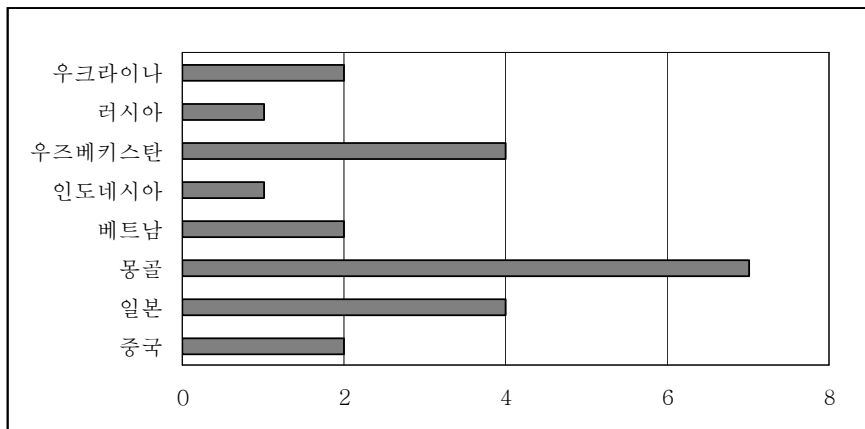


그림34. 국가별 주관식 응답자 수

각 국의 주관식 응답 내용은 세종학당의 교재 개발을 위한 참고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지의 한국어 교재 전반에 대한 요구와 한국어 교육 상황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전문적인 분야의 교재에 대한 요구나 사전, 한국 문학, 한자어와 고유어에 대한 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주관식 응답자의 다수가 한국어로 회화 혹은 대화 연습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손한 말하기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이다.³⁰⁾

3) 결론

이 설문은 세종학당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 연구는 완벽한 연구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 자료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종학당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진행된 이 설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주제,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언어 범주,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문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객관식 위주의 문항 외에 주관식 문항을 두어 학습자들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학생 특히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재단장학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경희대학교 결혼이민자과정의 수업 수강생, 보문동 한글학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설문 조사 대상의 국적 혹은 권역 비율을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가 비슷하게 분포하였고, 동남아시아는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30) 주관식 문항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문어 중심이 아닌 구어 중심의 한국어 교육, 실제적인 문화 교육 내용, 문법, 어휘, 문화 등의 모국어 번역, 다양한 계층과 층위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 모국어 지원 전자 사전 필요 등 다양한 요구들이 제시되었다.

4. 국외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의 원리

이 장에서는 세종학당의 운영 목적에 맞는 ‘문화 중심’ 교재 개발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교재 제작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세종학당 교재의 개발 원리를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5장에서 세종학당 정규 과정 교재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4.1. 기존 교재의 한계점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교재에 대한 평가³¹⁾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교재의 특정 부분이나 형식적인 틀만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교재의 특성과 교육 내용, 개발 원리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교재의 총체적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 기관의 교육 철학과 목표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재 개발의 목적과 교육 철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등의 한계로 인해 연구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논외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재 개발의 원리, 목적, 특성은 교재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경우 교육 대상에 따른 특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재 자체의 내적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낮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³²⁾ 그러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 철학과 목표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평가의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기존 교재를 평가할 때는 교재 자체의 내적 원리 외에도 교육 철학과 목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재를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 교재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해당 기관의 교육 목표와 철학,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정의와 한정을 인

31) 이 보고서 3.2절의 교재 분석 및 백봉자(1999), 황인교(1999), 이해영(2001), 민현식(2002), 조현용(2005) 참조

32)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들은 언어의 내용과 기능 혹은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구성보다는 한국 생활 특히 가정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어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각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목표와 철학을 교재의 특성과 연결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단선적인 평가가 아닌, 교육 목표와 교재 내용 등이 연결되는 입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기존 교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교재 분석 결과와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세종학당 교재 개발을 위한 주요 쟁점을 10가지로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은 학습자와 교사 변인에 의한 교재 외적 요인과 문법, 어휘, 문화 등의 교육 내용과 관련한 교재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교재 외적 요인으로는 학습 지속의 한계와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 및 교사 지침서 개발을 들 수 있으며 교재 내적 요인으로는 문법 중심의 단원 배열, 문형 중심 교육, 내용의 단순성, 문화 항목의 선형적 제시, 현지화의 문제, 언어 내용(어휘·문법·발음)의 범위, 언어 기능의 비중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10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1. 교재 외적 요인

1) 학습 지속의 한계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경우 각 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200시간에 맞추어 교육 내용이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학당에서 개설하게 될 한국어 정규과정의 경우 초급1부터 중급2까지 단계별로 48시간(12주)씩 교육하게 되어 있다. 단계별 교육 시간만으로 본다면 기존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게 될 때 1년간 교육을 받아야 초급1을 겨우 마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높은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1년 동안 같은 교재를 학습하게 되고 그 수준이 초급1에 머물러 있다고 느낀다면 학습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있어 오후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배우게 될 것이므로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종학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교수요목이 정리되고 교재가 개발되어야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

2) 멀티미디어 교재의 개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이나 생활 문화에 대해 별도의 교육 없이 '삶이 교육'이 되는 환경에 있지만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언어 교육 이전에 한국의 현실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 도구로서 멀티미디어 교재가 가장 적합한데 현재 부교재는 비교적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되어 있지만 한국의 실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DVD 교재는 별로 없다. 현지의 세종학당 학습자 역시 한국 방문을 아예 한 일이 없거나 방문한 지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학습자가 많다고 볼 때 주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심화·확장시킬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 주 교재 듣기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CD교재 개발도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은 개발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적, 정책적인 지원이다. 교재 제작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이 들고, 일부 멀티미디어 교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을 참신한 내용으로 외국의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3) 교사 지침서의 개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전문적인 교수 능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이 같은 논의는 한국어교육 기관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일란(2007)에 의하면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어 강사나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수료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학생이나, 주부, 일반 직장인에 이르고 있어 그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용 교재 중 교사 지침서가 함께 출판된 교재는 극히 소수이며 개발된 지침서의 내용 또한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실제 교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세종학당에서 가르치게 될 교사의 특성에 맞게 주교재의 개발과 동시에 교사용 지침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1.2. 교재 내적 요인

1) 문법 중심의 단위 배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일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대부분의 교재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표방하고 있지만 주요한 학습 영역으로 문법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문법이 어휘, 주제, 문화 등의 영역보다 난이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비교적 배열이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급 단계에서 종결어미를 처음 배울 때 '-입니다/습니다'를 먼저 배우게 되는데, 이는 '-입니다/습니다'는 비격식체 종결어미인 '-아요/어요'보다 쓰임이 적지만 형태적으로는 인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학습 형태의 용이성에 따라 혹은 문법적 난이도의 분포에 따라 '-입니다/습니다'를 '-아요/어요'보다 앞에 배치한다. 또한 이러한 종결어미와 기본 연결어미 '-고, -지만' 등을 배우고 나면 중급단계에서는 초급에서 배운 연결어미보다 어려운 연결어미를 통해 문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연습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 항목의 배열은 난이도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문법의 사용 면에서는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문

장의 구성 및 발달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³³⁾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재의 주요 목표가 되는 ‘주제’와 문법의 분포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재에서 문법만을 중심으로 했을 때, 목표 문법의 성취 이후에 학습자들이 주제나 문화 등 의사소통적 교육 목표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문형 중심 교육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지면의 상당 부분을 문형 연습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배운 문형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현장 적응력 배양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장과 동떨어진 학습이 된다. 또 문형 중심이란 결국 문장 단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언어란 문장에서 나타내는 표면적인 표현 이외에 담화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 하므로 문형 중심의 단순 연습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문형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의 배경문화와 능동적 상황 구성보다는 수동적인 형식을 익히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재 중 대부분이 자음과 모음, 간단한 인사말을 익힌 이후 본격적인 학습 단원의 1과에서 ‘명사이다’ 구문을 제시하고 있다. 1과의 주요 목표는 ‘이다’ 구문의 발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이것이 책입니까?”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이 과에서는 ‘맞는 것에 ○표 하십시오’의 형태로 주격조사인 ‘이/가’의 연습 후 통제된 대화쌍에서 ‘명사입니다’의 형태를 발화하도록 요청 받는다. 그리고 말하기 과제 수행에서는 제시된 질문인 “이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다양한 ‘명사’를 교체하여 ‘입니다’ 구문을 완성하는 연습을 한다. 문제는 이 문장을 배우고 나서 학생들이 교실 밖 실제 생활에서는 학습한 언어 항목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 담화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무엇입니까?”의 질문과 “그것은 ○○입니다.”의 대화쌍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어미 항목을 교육할 경우 사용 중심의 담화 맥락보다는 ‘드릴(drill) 연습’의 기계적인 연습 형식을 통해 문장을 연결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33) 김제열(2004) 참조

한 이렇게 연습한 개별 항목은 각 연결어미에 따른 고유한 문장 유형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문장을 연습하는 패턴 반복에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분리된 문장으로 익힌 문법을 다시 온전한 문장으로 완성해서 발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종종 언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학습 패턴은 학습자의 살아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학습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 담화에서 적용할 수 없거나 발화 가능성이 낮은 문장을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흥미를 잃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3) 내용의 단순성

문법에 초점을 맞춘 교재의 경우 교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문, 듣기 지문 그리고 읽기 자료의 구성이 문형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기초한 내용에 중심을 둔 구성이 아니다. 또한 듣기나 읽기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단원의 주제를 중심으로 확장·심화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형의 반복적인 사용에 중심을 두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도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문법을 익힌 후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되는 활동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학습한 문형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으)니까’를 문형으로 학습 한 후, 읽기 활동에서 제시된 읽기 자료에서 주제와 상관없이 본문에 ‘-(으)니까’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 문화의 내면적 깊이를 간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한류 열광하는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를 한국어 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

4) 문화 항목의 나열식 제시

언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에는 언어와 문화를 별개로 보고 언어 교육의 범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최근 출판된 대부분의 교재에는 단원 내에 문화 항목을 포함시켜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의 제시가 ‘쉬어 가기’나 ‘문화 tip’이나 ‘부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내용이 단편적이고 언어 교육에서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또한 문화 항목도 단원의 내용과 유기적인 관련이 없어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교재 내용으로 접하는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교재에 등장하는 지명, 인명, 음식 이름 등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원의 대화문에서 ‘인사동’이나 ‘이태원’의 지리, 서울 지하철의 이용 등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는 대화가 많은데 이는 국내 상황과 교실 중심적 수업 배경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어 교재의 내용 대부분이 교사와 함께 교실에서 수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다룰 세종학당 교재 개발에서는 이러한 문화 요소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고 교육하면 학습자가 해외에서도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문화를 직접 느끼고 한국 문화와 함께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현지화의 문제

최근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표방하면서 대부분의 주제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실생활’에 기반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외에서 다루기에는 전체 내용이 지나치게 한국적이어서 제시된 주제, 어휘 등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 지리 안내’, ‘문화 센터 이용하기’, ‘자녀의 학교 방문하기’ 등은 현지 학습자들에게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공허한 제시일 뿐이다.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가 어떠한지를 모를 뿐 아니라 한국

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느닷없이 제시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현지 사정에 맞게 현지화하면서 한국 문화를 줄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언어 내용(어휘 · 문법 · 발음)의 범위

교재 개발은 학습자의 요구 조사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 교재를 사용하게 될 지역 및 학습 대상자 등에 대한 고려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교재 구성 시 포함해야 할 어휘, 문법, 발음 교육 내용 등 언어의 내적 범주가 정해진다. 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로서 어휘, 문법, 발음 등의 배열 방법과 제시 범위 등이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교재 개발 시에 이들에 대해서 쟁점화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어휘

어휘는 의사소통에서 최소 단위의 기능을 하는 언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된 문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몇 개의 어휘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휘는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휘가 교재 구성의 중요한 항목인 주제와 기능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언어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요소로서의 ‘어휘’ 역시 국내용 교재인지, 해외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어휘는 해당 단원의 주제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요소인데, 주제 자체가 현지에 맞지 않아 다루기 어렵고, 어휘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의 교재라면 한국 전통 음식점의 이름을 생각할 때 전통적 이미지가 강조된 ‘토속촌’이라는 대중적인 이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등장하는 식당 이름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는 ‘토속촌’라는 어휘가 어렵기도 하고 학습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떨어지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2) 문법

문법 중심 교재에서 문법은 주제를 설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소재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또 문법은 문법 자체의 제시에서부터 난이도로 인해서 정해지는 배열 문제, 제시 방법 등 교재 전체의 중심이 된다. 기존의 교재 중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에서는 대체로 문법 항목을 난이도 순으로 체계화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특수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서는 그리 체계적이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의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었으며 문법 항목의 수는 많은 편이었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는 난이도에 따른 체계적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수 문법이 누락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종학당 교재가 문법 중심 교재가 아니라면 문법을 어떻게 그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제시할 수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문법 요소들을 짧은 시간에 교육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 어떤 교수법으로 문법을 교육할 것인가? 대중 학습자에게 문법 교육이 의미가 없다면 과연 이들에게 문법 없이 언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문법을 노출시키지 않고 문법을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발음

언어 내용 요소로써 교재에 발음을 기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분분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습자와 해외에서 한국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접하는 학습자의 경우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정확한 발음은 '유창성'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한 마디를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되기 위해서 발음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실시한 교재 분석에 의하면 현재 출간된 대부분의 교재는 발음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발음은 자신의 초기 언어 습관이 화석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습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7) 언어 기능의 비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능력은 쉽게 발전하지만 읽기나 쓰기 능력은 많이 뒤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앞서 분석한 교재들의 경우,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적으며 대부분 말하기 영역이 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중 충북교육청의 교재를 보면 말하기 활동은 각 단원마다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활동들은 없었다. 이는 다른 교재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하기 활동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구성하더라도 읽기와 쓰기 활동 또한 체계성을 갖추어 추가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학습자들은 입력과 출력 상황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듣기를 통한 자연스러운 입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 산출물은 말하기라는 구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학당 학습자들은 국내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구어와 문어를 접할 기회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언어 기능의 비중을 학습자에게 맞추어 교재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여성 결혼 이민자	세종학당 학습자
주요 입력	듣기	듣기	읽기/듣기
주요 출력	말하기	말하기	쓰기/말하기

표57. 학습자별 입력 - 출력 환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있음에도 세종학당의 정규과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기존 교재의 다음과 같은 한계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학습 지속의 한계로 기존 교재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맞추어 200시간 단위로 등급화 되어 있기 때문에 48시간 단위의 세종학당 교육과정에는 맞지 않아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다.

둘째, 해외에서 교육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동감 있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DVD 등 멀티미디어 교재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세종학당에서 가르치게 될 교사가 교수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세한 교사용 지도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넷째, 문법 중심으로 단원이 배열되어 있어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동적인 학습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배운 문형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현장 적응력 배양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실제성이 떨어지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주제에 기초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목표 문법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내용 전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문화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 한국문화의 일방적 전달 내지는 문화 내용의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덟째, 해외에서 교육하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한국적이어서 제시된 어휘, 주제 등 학습 하나 하나가 학습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아홉째,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언어 내용의 범위가 국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내용의 범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째, 국내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노출 정도가 약한 세종학당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를 덩어리로 제시하여 학습이 곧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4.2.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원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은 학습자 구성, 교육 장소, 배경 문화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요소 중 세종학당의 교재는 국외에서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교재 개발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학당의 교육 목적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현지 문화 배경 속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과 한국어 실용 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교재 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 대상자의 규정인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될 학습 대상자는 일반 대중이며 연령과 학습 목적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학습자 층이 다양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내용을 올바르게 추출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의 교재는 현지의 문화가 배경 문화로 작용하여, 현지의 외국인이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더 나아가 현지의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에 교육의 초점이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 사용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재는 국외의 현지 환경과 국내 한국 문화의 반영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4.2.1. 일반적 원리와 목표

위와 같은 기본 맥락에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관련된 주요 원리를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⁴⁾

첫째,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설계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재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요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주어진 활동에 스스로 흥미를 느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교과서 구성 원리는 학습자의 특성을 매개로 한 보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사용 능력이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는 실천적 지식과 기능,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교재 구성을 위해

34) 백봉자 외(1997), 노명완(2001), 민현식(2002), 조항록(2003) 참조.

내용 요소로서의 어휘, 문법, 문화, 발음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과 함께 경험적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계는 통합적이며 다양한 언어로 표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통합적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은 이러한 통합적인 세계관과 배경 지식에 기초해야 한다. 더구나 세종학당의 교재는 다양한 학습자 구성으로 인해 문화를 배경에 둔 통합적 교육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언어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세계를 통합적으로 인식한다는 관점 아래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즉, 교사 주도적이 아닌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한 교재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학습에서 ‘자기 주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재 내에서 충분히 ‘동기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배열과 입체적인 구성이 필요하며 충분한 연습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듣기 CD 및 연습 교재 등 여러 종류의 부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 주도적인 성취도 평가와 함께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평가’도 병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기 평가’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내용을 학습 목표의 확인 수준 정도의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항목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최근의 교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과정 중심 읽기 혹은 쓰기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하여 과정에 따른 전략적 읽기 또는 쓰기 모형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언어 교수 이론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의 경향은 교수 또는 학습의 결과가 아닌 과정 및 절차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가 주도하는 수업의 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큰 특징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여덟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생생한 최신 것이며 실생활에 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학당의 교재가 해외에서 사용

되는 만큼 현지의 한국인과 의사소통 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 세종학당의 교재는 다양한 문화에서 쓰이게 되는 만큼 다양한 배경 문화를 지닌 학습자들이 교재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의 편리성 또한 교재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재 개발의 일반 원리에 맞추어 교재를 개발한다면 교재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일반적 원리에 따라 교재 개발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학습자의 요구 분석에 기반해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목표어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재 개발에서는 학습자가 목표어 문화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로 실제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성의 반영은 해당 교재가 얼마나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학습 내용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네 번째 목표는 ‘과제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재의 내용이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가 직접 활동하면서 언어를 연습하고 이를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습단계의 연결고리가 긴밀해야 한다. 한 단원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개별 단위의 완성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단위들이 전체를 이룰 때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들의 연결이 긴밀하고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재 개발의 목표는 개발 원리와 맞물려 각 교육 기관이 표방하는 교육 목표와 목적, 학습 장소, 학습자의 특성과 배경 문화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 한국어 교재개발의 목표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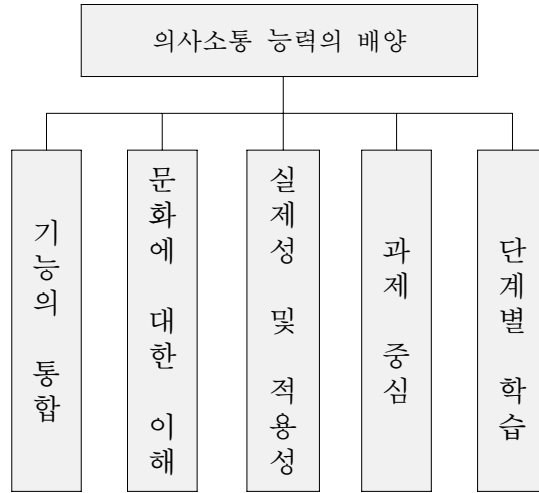


표58.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 개발의 목표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 개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단원이 구성이 되는 ‘기능 중심’ 교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중심 교재는 언어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한다해도 학습자가 한국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여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배경지식으로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학습하는 경우 이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일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 기능의 통합에 기반 하여, 학습자의 배경 지식으로서의 ‘문화’를 통해 목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세종학당 교재의 기본적인 체제는 언어의 기능과 내용으로서의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지식을 통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본다.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지식 영역은 자신의 모국어에 기반 한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로서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인 ‘문화 상대주의’가 잘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체제에 대한 도출에도 불구하고 세종학당의 광범위한 학습자를 염두에 둔 교육 항목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남는다. 즉 의사소통 목적에 맞게 말하기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다고 할 때 문법과 어휘 등 정확성 향상을 위한 언어 요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읽기와 쓰기 같은 영

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문법의 경우 세종학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 성인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한 암기나 표현의 숙달보다는 문법에 대조언어학적인 설명을 주교재가 아닌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여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 맥락에서 어떻게 유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표현·사용 위주의 문법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문법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문법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써 제시되어야 한다.

읽기의 경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서 읽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화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텍스트를 선정하여 내용 영역으로서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 교재가 ‘통합’ 교재를 지향한다면 이는 언어 ‘기술’의 통합 및 배경 지식으로서의 ‘내용’의 통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세종 학당 교재 개발의 목표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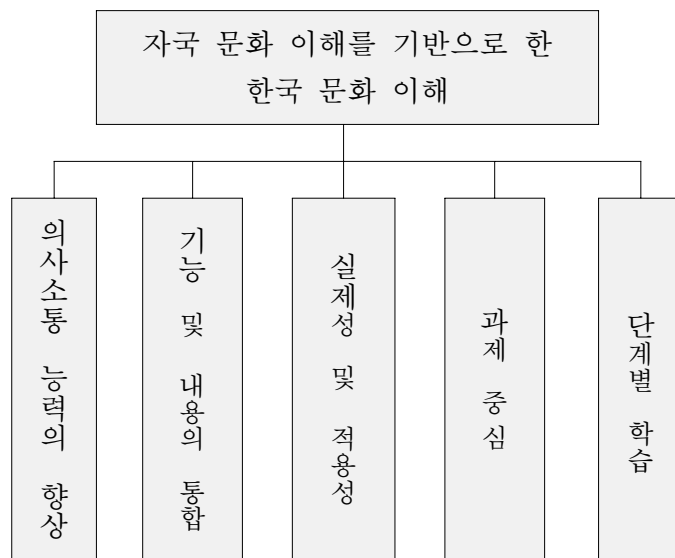


표59.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개발의 목표

위와 같이 교재 개발의 목표는 교재 개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4.2.2. 세종학당 교재의 구성 원리

세종학당의 교재는 앞 절에서 제시한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원리를 모색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세종학당의 교재는 문법 중심의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기능을 분류, 개발하는 기존의 틀과는 달리 기능별 자료들이 기능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통합되고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통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 교재여야 한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기본 교재 체제는 언어의 기능과 언어 행위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통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교재 구성을 두 개의 영역으로 정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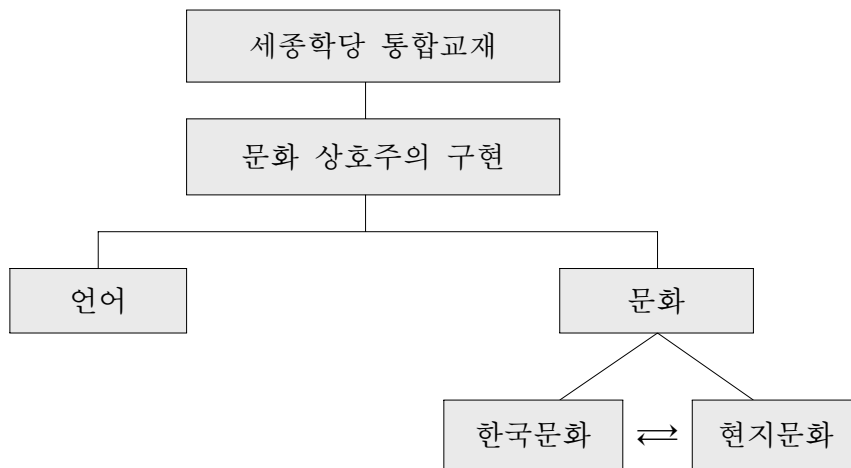


표60. 세종학당 교재의 구성 원리

둘째, 문화 항목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낯선 문화인 한국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흥미를 둘 수 있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간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류애적인 교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교육에서 문화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이해하는 배경

이 문화이며 이러한 배경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의 일방적 전달 내지는 문화 내용의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화 내용의 일방적 전달은 문화적 배타성 혹은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 현지의 경우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는데, 이들이 금기시하는 음식(삼겹살, 돼지갈비 등)이나 다소 배타적인 종교들을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제시가 필요하다. 일상문화만의 제시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함께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 사회로서 한국 문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며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 문화만을 알리는 것에서 탈피하여 상호 문화 교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 출판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의 도입 부분에서는 질문을 통해 이민자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을 두었는데 상호 문화 교류적인 시각에서 보면 좋은 활동이다.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강요하기 보다는 상호작용하며 알아가는 문화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문화적인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교재가 앞에서 분석한 문화 중심 교재들이다. 각 단원별로 제시되는 문화 주제 학습 활동은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쌍방향 문화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현지화가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언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해외 사정에 맞게 현지화 시킬 수 있는 원리에 대해 김중섭(2005:14-15)에서는 문화적 균형성의 원리, 학습자 중심 원리, 최신 언어학습 이론 반영의 원리, 현지 교수학습 환경 반영의 원리를 꼽고 있다.

이 중 세종학당의 교재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리가 문화적 균형성의 원리로,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현지 학습자들의 관련 문화를 고려하고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교나 관습, 정치와 경제, 의식주 등의 생활 문화, 언어문화 등을 망라하며 언어교육의 특성상 목표 언어인 한국어와 관련한 한국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문화와 현지 문화의 균

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재 구성 시 상당 부분 현지에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어 학습의 목적은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는 하나, 자국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또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schema)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동기 유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문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현지의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제인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기’, ‘직장 예절’ 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현장성이 높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놀이처럼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즉, 각 단원에 제시되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역할극(role-play)을 하면서 언어 학습과 문화 체험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종학당의 교재가 문화 체험을 통한 학습 교재가 될 때,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학습기관은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나누는 장소로 인식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교재를 통해 익힌 한국어가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단원의 주제는 현지 학습자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교재와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 구분	기존 교재	세종학당 교재
문화 교육의 목적	한국 문화 전달	상호 문화 교류
문화 교육의 영역	지식의 영역	체험의 영역
문화 교육의 목표	한국 문화의 내용과 특징 이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문화 교육의 내용	한국 전통 문화나 일상문화의 나열식 제시	전통 문화, 일상 문화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생성되는 한국 문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
문화 제시 형식	본 단원의 학습 내용과 상관없이 별도 제시	단원 내 학습 및 활동 내용으로 제시
교수 방법	교사의 설명과 질문, 학습자의 질문과 대답	교사-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 활동
언어 기능	읽기 위주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네 가지 기능의 통합
질문 예시	한국에서 서로 어려울 때 돕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나라에도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표61. 교재 내의 문화 제시 방법

위의 표에서 보듯이 언어 교육과 문화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목표어 문화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속한 문화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어 문화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 이해에 기반 한 문화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화 항목은 ‘언어 교육의 완성은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원리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언어 습관과 사고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 항목에 대한 개발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 제시되고, 현지의 문화와 잘 맞는 부분 즉 한국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 항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재의 학습 방향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 수행 과제가 단원의 핵심적인 학습 내용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과제는 학습한 내용의 반복적 연습이 아닌 다양화 되거나 심

화되는 과정을 거쳐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교재의 외적 구성도 문법책과 같은 딱딱한 분위기를 지양하고 학습자에게 문화 체험 지도를 보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각 단원의 주제가 선열 구도로 단선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담고 있는 현장 사진을 통해 다선적이고 다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문화 현장 안에서도 학습자가 체험한 문화 요소가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재의 제작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종이 교재에서도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적용시킨 편집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재 디자인과 편집의 다양화는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교재의 외적 구성이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함께 교재의 가독성을 높인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개발 단계에서는 먼저 교재에 담아낼 수 있는 한국 문화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주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각 주제 안에서 다양한 언어 수행 과제가 생길 수 있도록 항목들을 개발한다.

여덟째, 문화 중심의 과제 해결 학습 과정은 어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학습자들이 지치지 않고 능률적으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문법과 발음은 주 교재에서는 최소한의 것만을 팁 형식으로 다루고 연습 교재와 같은 부교재에서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1) 형식적 원리

교재개발의 일반적인 구성 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배열 및 단원 구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서 각 언어 영역, 언어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되지 않으면 학습자는 필요 이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각 언어 내용과 언어 영역의 우선순위, 난이도 문제 등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배열되어야 한다.

(1) 배열 기준

교육 내용 배열은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난이도나 학습의 용이성, 사용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최근에는 문법 및 어휘 항목의 순환적 배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를 표현하거나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거나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그것이 한 번 교육되는 것으로는 숙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순환적 배열은 수업 시수가 많고, 체계적으로 문법과 어휘 항목이 배열되는 교재에서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나, 상호 문화 교류를 우선적으로 하는 세종학당 교재와 같은 개발 목표 아래에서는 그 중요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³⁶⁾

세종학당은 한국과 현지의 문화 교류 및 상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심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가능한 문화 요소와 주제를 중심으로,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청각구두식의 교수법 단원 구성은 “대화문 → 어휘 → 문법/문형 → 연습”의 순서였다. 그러나 최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중심을 이루면서 단원의 모형도 “도입 → 제시·설명 → 연습 → 사용 → 마무리”와 같은 순서로 변화하고 있다.

36) 세종학당 교재의 경우는 기존 교재와 내용 배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순환적 배열은 현재까지 매우 중요한 배열 방법이지만, 세종학당의 배열은 문화 항목이 먼저 배열된 후 언어 내용과 요소들이 배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단원의 구성

단원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본 단원의 언어 내용 제시를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언어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듣기, 읽기 자료를 통해 어휘, 문법 등을 학습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문을 제시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언어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전자는 참신한 구성이기는 하나 세종학당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숙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난이도의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초급 초기 학습 단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등장인물들이 해당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식이나 기존 교재에서 많이 사용된 문형 연습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도 논의의 대상이다. 특정 인물들의 등장은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로 가공되어 단원의 상황에 맞게 번갈아 등장시키는 형태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세종학당 교재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현시대의 한국인의 모습을 대표할 만한 등장인물을 설정하거나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현지인을 등장인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문은 문화가 배경이 된 짧은 대화를 비디오로 도입하고, 주된 이야기의 주제나 상황, 그 단원에서 포함해야 할 기능과 과제 등을 삽입한다. 그렇게 한 후 그 대화에 맞는 어휘, 문법, 발음 항목에 대한 배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라 세종학당의 단원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원 제목, 학습목표, 도입, 대화문 제시 및 연습, 발음 제시와 연습, 표현 연습(어휘와 표현), 문법 Tip, 문법 연습, 응용연습(활동 1, 2)
--

표62. 단원의 구성 요소

이 중 상호 문화 교류가 가능한 문화 배경과 주제는 도입 부분에 도입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대화문에 반영하며, 연습에서는 표현 연습과 문법 부분에서 단원의 핵심이 되는 언어적 요소를 훈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

을 고려하여 마무리 부분에서는 응용 연습으로 과제 해결을 하도록 한다. 이를 학습 절차를 고려해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63. 단원 제시 순서

이외에 제시는 발음의 확장 제시, 도입 대화의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은 교사용 지도서에, 문법의 정리 및 연습 부분은 부교재인 연습 교재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연습 교재를 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한다. 단원 구성의 모형은 5장에서 제시한다.

(3) 유형별 개발 교재 목록

가. 기본 교재

세종학당 정규 과정 기본 교재는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지와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³⁷⁾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국외 한국어 학습자는 국내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주기가 짧고 학습 환경 또한 열악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본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문법 제시와 설명을 줄이고 다양한 발화 상황과 활동으로 제시하여 학습과 동시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본 교재 듣기 CD

기본 교재에 수록된 대화 내용 듣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 발음과 억양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재에서 학습한 대화의 패턴 연습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 내용이 확장, 심화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현지에서 한국인을 거의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의 경우는 발음을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교사용 지도서)과 함께 반복적인 발음 연습이 가능하도록 듣기용 CD를 제작해야 한다.

다. 기본 교재 DVD

기본 교재는 한국 문화 중심의 교수요목으로 구성되므로 기본 교재에서 다룬 문화 내용에 대한 실물 자료를 동영상 또는 사진,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또한 기본 교재의 발화 내용과 발화 상황, 화법을 변형하거나 그와 연계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37)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문화는 관념적인 문화가 아닌 대중적이며, 실생활 중심에서 이해되고 공유될 수 있는 문화이다. 그래서 단선적 문화 제시보다는 다중적, 다선적인 내용의 문화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교재들은 본교재의 교육 내용을 더욱 자세히 혹은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교재에서 의사소통 기능으로서 '물건사기'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 DVD 교재에서는 교재보다 좀 더 현장감 있게 대화 장면이나 사물을 통해 과제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한다.³⁸⁾

특히 의사소통 기능의 확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이해의 수준을 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 이해 능력의 증진은 다양한 영상,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내용 역시 기본 교재 DVD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라. 교사용 지도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교수하게 될 교사는 전문가에서 비전문가까지 그 계층이 다양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사용 지도서는 교재의 내용, 수업 과정,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등 여러 형태의 교수 내용과 방법을 기술한다. 또한 교사가 현지 사정에 맞추어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또는 상황별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문법의 의미, 기능, 화용적 맥락 등에 대해 대조언어학적 입장에서 깊이 있는 설명이 현지어로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교사를 한국에서 교육, 파견한다 할지라도 교재에 대한 이해와 학습 활동 적용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문법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어휘 확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학습 활동을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제는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 예상보다 정해진 내용의 수업이 일찍 끝날 때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보충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교육적 효과가 높은 판서는 어떤 것일까 등의 내용까지 자세히 제시해 비전공자들도 교재의 내용과 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업에 임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한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재와 지침서의 내

38) 이 문제 또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부재한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의 사정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교실 내에서 역할극을 하게 할지라도 실제적인 자료를 통한 실제적인 대화의 연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용을 토대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실제적인 교사 교육이 이뤄진다면 더욱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교사 교육을 대신할 모범 수업 동영상 등의 배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학생용 연습 교재(Workbook)

학생용 연습 교재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주 교재에서 학습한 문법, 어휘의 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능력 중에서 정확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문법 연습의 경우 대치, 응답, 완성형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습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어휘는 새로 학습한 것을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등의 연습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습 교재를 통한 기능 확장 및 문화 능력의 증진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자료로 구성할 수 있다.

세종학당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을 부각시키지 않는 문화 중심 내용 전개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연습 교재에 제시되는 문법 연습에서는 단순 완성형, 대체 연습, 응답 연습 등 다양한 유형의 연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장 단위 연습은 다시 맥락 중심의 담화로 이어져 결국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아우르는 통합교수법의 형식을 취하게 할 것이다.

바. 언어문화 학습용 보조 자료 개발(다매체)

언어문화 학습용 보조 자료는 기본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문화를 다양하고 폭넓게 제시한다. 이 교재에서는 주교재의 내용과 관련성은 있지만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게 되는데 교실에서의 적용은 확장을 통한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교재의 주제가 ‘이사’였다면 ‘집들이란? - 집들이 선물의 종류와 의미 - 한국의 전통 가옥’ 등으로 확대해 관련성 있는 주제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 교재에서는 한국어 대화문의 제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규범적인 언어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반해 보조 자료에서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실생활 담화들을 제시할 수 있어 활용 가능

성이 높은 연습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의사소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조 자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성을 담보한 보조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더욱 높여 줄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한 보조 자료 개발도 가능한데 이러한 보조 자료를 통해 한국어 구어의 특징을 더욱 잘 학습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어 및 유행어 등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내용적 원리

내용적 구성 원리에서는 문화요소의 분류와 주제, 과제, 어휘, 문법 팁, 발음, 문화의 비교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문화 요소

세종학당의 교재가 국외에서 사용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문화 요소는 어떤 것인가? 외국인에게 소개해야 하고 소개할 만한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 담아낼 수 있는 문화 요소는 크게 생활문화와 정신문화 그리고 예술문화의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생활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요소는 다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둘째, 정신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한국적 가치관이나, 한국인의 정서, 대인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예술문화는 성취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문화 요소들 중 최종 선택되는 문화 요소는 학습자 자신의 문화와 비교·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한 항목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외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들의 문화 항목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출되었다.

가족, 가치와 종교, 감정과 정서, 개국 신화, 결혼, 경제, 계절, 고객 응대, 공공시설과 제도, 공연, 부탁 예절, 공중전화, 광고 문화,

교통수단, 국경일 및 기념일, 금기사항, 놀이 문화, 대표적인 기업
 가, 대표적인 상품, 대표적인 할인마트, 대화 예절, 데이트 문화,
 동료와의 관계 유지, 동료와의 예절, 명절, 명함을 주고받을 때의
 예절, 몸짓 언어, 문서를 작성할 때의 예절, 문화 유적지, 물건의
 상징적 의미, 미용실 이용하기, 방문, 한국의 방 문화(노래방, 찜
 질방, 만화방 등), 병원, 부탁 예절, 비즈니스 문화, 사고방식, 사
 람들의 특징, 사회적 지위의 변화, 상사 앞에서의 에티켓, 상차리
 기, 성별에 따른 문화, 손님맞이, 수출품, 식단 구성, 식사 예절,
 아르바이트 문화, 약국, 언어생활, 여가와 여행, 여행지, 옛날이야
 기, 운동, 유명한 관광지, 유명한 시장, 유행하는 머리모양, 음식
 점, 의식주 생활, 인사 표현, 일생, 잔치 문화, 장보기, 전통 가옥,
 전통 결혼식, 전화 통화 예절, 접대 예절, 정치, 좋아하는 노래/
 가수/배우, 근무 환경, 지리와 계절, 직업 선택, 직업 종류, 경조
 사 챙기기, 통과례, 통신 문화, 음주 문화, 대표적 포털 사이트,
 현대 산업 문화, 화폐 이용, 호칭, 회사의 면접/ 방문 예절, 회의
 예절, 휴대 전화 사용 예절 등

위의 문화 항목은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문화권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특히 현지의 문화와 국내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문제, 한국인과 현지에 있는 학습자의 감
 정과 가치관, 태도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교재에 반영될 수 있는 문화 항목
 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제

문화 요소가 결정되면 이를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하
 다. 각 단원의 주제는 문화적 배경을 포함하지만 학습자의 특수성과 사회 활동 범
 위를 고려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소재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주제는 학습자
 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자가 이미 소유

하고 있는 개념 범주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대개는 정적인 자료 구조인 프레임이나 사건 또는 행위의 시간적 계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크립트 등의 단위 구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의미 범주나 배경지식 범주로 교재를 구안한다. 이때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최대한으로 활성화 되도록 삽화를 적절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제시한다거나 언어적 단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의미 범주나 배경지식 범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하는, 사회생활 범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제 항목으로 꼽을 만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격, 가정/가족, 감사 표현, 거리, 거절 표현, 건강, 격려, 결혼, 경치, 경험, 계약, 계절, 계좌개설, 계획, 공과금, 공부, 공연, 과거/현재, 관광지, 교제, 교통, 구경, 국적, 권고, 긍정/부정 표현, 기분, 기호, 꿈, 나라, 날씨, 날짜, 노래, 농담, 능력, 대중교통, 덕담, 데이트, 도시, 도움 구하기, 동의, 만남, 말 걸기 표현, 명절, 물건, 물건사기, 미용실, 방 예약, 병문안, 병원 접수, 병원, 분실, 사과, 사랑, 사진, 상의하기, 상품 주문, 새해인사, 색깔, 생일, 서비스, 선물, 소개, 소포, 안부 묻기, 송금, 쇼핑, 수도, 술집, 숫자 세기, 시간/기간, 시장, 식사, 식사예절, 신문, 신발, 실수, 아픈 곳 설명하기, 약, 약속, 여가생활, 여행 경험, 여행객 상용어, 역사, 연극, 연락, 연예인, 영화, 예술, 예약, 외모, 요리, 요일, 우체국, 운, 운동, 위로, 위치, 유명한 것, 은행, 음식 주문, 음악, 의복, 이웃, 이유 묻기, 인구, 인사·방문, 인생, 인터넷, 일, 일상생활, 일자리, 일정, 장소, 전통놀이, 전통문화, 전통 의복, 전화 걸기와 받기, 제안, 조언, 주문, 직업, 집, 차, 첫인사, 축하, 출장, 충고, 취미, 취업, 칭찬, 태도, 편지, 한국인의 특징, 현지인의 특징, 헤어지기, 환경, 회사 소개, 후회, 휴가 등

이러한 친숙한 범주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

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중심 단위로 하여 교재를 개발하면, 학습자의 학습 의욕과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과제

과제란 주제가 제시하는 문화 현장에서 언어 수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외식’이라는 주제는 한국인의 현대 생활 문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생활 주제이다. 이 주제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언어 과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언어 수행 현장을 식당으로 한정한다고 할 때, 식당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 행위, 즉 자리 잡기, 음식 주문하기, 종업원의 주위 끌기, 요구하기 등이 학습 과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화 중심 교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바로 과제 해결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는 단원 주제의 문화와 관련된 언어 사용 현장에서 학습자가 당면할 만한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과제 해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원의 주제가 ‘인사’ 문화라면 이와 관련된 현장은 가정, 식당, 가게, 사무실,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연습 현장은 시각 자료를 이용한 제시가 바람직하다.

(4) 어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이 조남호(2003)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논의는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잣대는 아니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어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종학당의 교재 구성 시에는 단계별 교수요목에 따라 현지에서 다룰 수 있는 어휘들을 주제별 내지는 상황별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제 중심 학습 방법에서는 문법 학습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어휘 학습에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고 학습자도 어휘 학습에 적극적인 편이다. 어휘는 문법 항목과는 달리 어휘 자체에 의미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된 어휘 수에 비례하여 표현력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언어 교육이 어휘 의존적인 만큼 어휘 제시에 규칙성이 필요하다. 기본 어휘, 확장 어휘, 심

화 어휘 등과 같은 분류 체계를 설정하여 학습 단계에 따른 체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세종학당 교재의 어휘 선정은 또 다른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그것은 현지에서 적절하게 쓰이는 어휘가 한국어의 배경 지식과 같은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세종학당 교재의 사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현지 교사의 어휘 선정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해진다. 또한 교재를 구성할 때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 체계와 한국어의 어휘 목록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 때문인지 등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필요하다.

(5) 문법 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해야 하고, 모국어 문법과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그 특성이 쉽게 드러나야 한다. 기존 교재에서는 문법적 요소가 학습 초기 단계부터 정확성을 위하여 강조된 측면이 많았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 ‘정확성’을 무시하면 승급을 할수록 언어 능력이 신장되지 못하고 초기의 오류가 그대로 화석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사소통 연습을 할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법적 요소는 가능하면 문형의 형태로만 제시하거나 팁과 같은 간단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³⁹⁾

세종학당이 추구하는 문화 중심 교육은 문법 연습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 항목을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문법적 규칙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문법적 규칙성을 찾아내느냐 찾지 못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문법 유형을 추출하여 문형 연습과 같은 학습 활동을 지양한다. 여기에서의 문법 설명은 학습자가 규칙성을 찾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좋다. 예

39) 또한 기존 교재의 경우 문법의 나선형 배열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그 교육 내용이 단계적인 나선형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히 반복·심화·확장되도록 면밀하게 교육 내용을 계열화하여 조직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문법의 난이도 측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학생들의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는 말하기와 쓰기에 나타난 오류를 찾아 통계를 내는 것으로 조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법적 요소를 교재에 반영할 때는 유의미한 의사소통적 맥락 안에서 적절하게 다뤄야 한다.

를 들어, 동일한 문법기능을 가진 요소가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 경우에 이형태가 나타나는 환경을 설명하는 일은 학습자에게 문법 설명으로 느끼지 않고 단순히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한편, 연습 교재와 같은 부교재를 이용하여 팁에서 다루지 못한 문법 내용을 보충하고 학습자들이 문법을 응용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문법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팁 항목에는 문법 외에 발음과 관련된 설명도 포함한다. 문법과 발음을 팁 항목으로 다루게 될 때, 또 다른 장점은 교재를 현지화 하는 과정에서 각 언어권의 특성에 따라 팁 항목의 내용이 가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재의 현지화에 유연성이 높인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6) 발음

한국어는 다른 언어권과 다른 발음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음을 대조하여 개별 음운 및 발음에 대한 해당 언어권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 정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종학당의 교재가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발음 제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음을 어떤 식으로 표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다. 한국어 혹은 현지어로 발음 표기가 백 퍼센트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다 하더라도 CD나 테이프 등의 청각 자료들이 함께 출판 배포될 경우 표기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세종학당 교재의 발음 제시는 한국어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음과 경음화, 자음동화 등 특별한 발음 규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주 교재에도 명시적으로 개별 낱말 단위가 아닌 어절 단위 혹은 문장 단위의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발음만을 단독적으로 연습하기 위한 무의미한 연습이 아니라 유의적인 맥락 속에서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장 안에서 발화하고 연습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 문화 비교하기

최근의 언어 학습 이론에서는 모국어에서 목표언어로의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국어와 목표언어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언어의 각 기능보다 언어를 통한 상호 이해, 문화 교류라는 이전보다 더 넓은 방향으로 언어 학습의 목표가 바뀌면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화 교육’이라는 것을 꼭 한국 문화로만 혹은 한국적인 것으로만 제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⁴⁰⁾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논의를 고려할 때, 다문화를 수용한다는 입장에서의 문화 제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한국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면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은 빼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전통 문화 제시는 꼭 해야만 하는 부분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세종학당 교재는 국외 학습자의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렵고 생소한 전통 문화는 번역을 동원하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문화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상호 교류, 문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현지와 한국의 공통적인 혹은 전 지구적으로 공통적인 생활 문화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우호감을 증대시키고 친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문화는 일방향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입부 혹은 교재 전반의 배경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면 교사의 설명과 부교재(CD, 비디오, 오디오, 동영상, 사진 등)의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좋다. 특히 본문을 토대로 하여 한국 문화가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세종학당 교재에서는 문화가 양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므로 단원 주제의 문화를 학습자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식

40) 먼저 한국어 교육이 일차적으로 한국어 담화 공동체 안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므로 교재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한국적인 것,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어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류 보편적인 관심사나 가치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에까지 의견의 합일이 이루어져 한국어 교육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피해야 한다는 논의로도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정숙 외(2006), 참조)

당' 현상이 나타나는 문화 단위이라면 한국의 식당 문화와 학습자 나라의 식당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식당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리에 앉는지 안내를 받는지?
- 식사 후에 돈을 내는지 식사 전에 돈을 내는지?
- 식사 값을 음식 먹은 자리에 앉아서 내는지? 카운터로 가서 내는지?
- 팁을 내야하는지?
- 남은 음식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 음식과 별도로 물(또는 차) 값을 내야하는지?

이렇게 '상호 문화 교류' 혹은 '쌍방향 교류'에 대한 최우선적인 설정이야말로 세종학당의 교재가 다른 교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며, 또한 현지에 가장 적합한 교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4.3.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세종학당 교재 개발을 위한 구성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에 출판된 교재 사용의 한계에서부터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 및 교재 개발의 목표 그리고 문화 중심 교재로서의 세종학당 교재가 갖추어야 할 교재 개발의 목표 및 개발 원리까지 단계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제2언어 환경'이 아닌 '외국어 환경'인 국외 현지에서 '상호 문화 이해에 기반 한 한국어 의사소통'을 교육 목적으로 하는 세종학당의 교육 철학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의 실행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교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학생 - 교사 - 교재'로 집약되는 교육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현재 우리가 명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며 교육과정의 실현이 교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짚어 보았듯이 세종학당에서 지향하는 '문화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단순한 언어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문화’라는 내용적 요소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 교재에는 학습 초기부터 자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목표 언어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학습 내용과 활동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와 한국 사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여, 이를 언어와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언어 사용 맥락 및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문화를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주제와 과제, 어휘와 문법 팁, 발음, 문화 비교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요소들의 유기적인 통합이 세종 학당 교재 개발의 관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종학당의 교육 이념이 올바르게 구현된 교육과정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교재 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새 정부가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 발전은 국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가 화급한 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선진화 전진”을 위한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 국제 사회는 안보, 경제, 문화 이 세 영역에 의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질서 체계가 수립된다고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와 함께 “문화 한국”으로 가야하며, 그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한류”나 “기업 이미지”를 통한 문화는 이미지 중심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약점이 있는 반면에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의 전파는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더디지만 그 영향력의 지속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열풍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국제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호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류로 열광하는 학습자를 한국어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제라도 “세종학당”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외국인을 호기심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차원으로 또한 진지한 학습의 장으로 이끌어 들여 한국을 알고 이해하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지한적인 인물

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종학당을 한국 문화의 센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에게도 장기적인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현지 문화 교육 터전이 필요하다. 일회성을 지양하고 전시 행정적 차원이 아닌 한국어문화 센터가 세계 곳곳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서 교육 과정의 수립과 다양한 유형의 교재 개발,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은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고 세계인과 교류하는 데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즉 세종학당이 다른 선진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과 같이,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상징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또 한류로 열광하는 현지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고, 한국적 놀이 공간으로서, 한국의 영화나 영상물을 편히 감상할 수 있는 해외의 한국 문화 터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어 교육용 자료의 빈곤은 경험이 부족한 해외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삽화가 들어 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기본 교재 제작은 물론, 언어 교육과 연계한 교육용 한국문화 자료 제작과 영상물의 제작이 꼭 필요하다.

5. 세종학당 정규 과정 교재 모형

이 장에서는 세종학당 교재 중 정규 과정⁴¹⁾ 기본 교재의 단원 모형을 제시한다. 단원 모형은 I 과 II로 나누었으며 모형 I 은 세종학당에서 K1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형 II는 K2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⁴²⁾

그러나 모형 I 과 모형 II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단원 배열을 달리 하였다. 모형 제시는 기본 교재,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연습 교재의 순서이며, 단원 모형 2도 이에 따랐다.

41) 세종학당 정규 과정은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의 4개 교과 과정이 있으며 각 과정은 12주로 운영된다. 이 연구에는 초급1을 K1, 초급2를 K2, 중급1을 K3, 중급2를 K4로 하였다.

42) 단원 모형 1은 K2 교육 과정 중 후반부로, 단원 모형 2는 K3 교육 과정 중 전반부로 상정하여 두 등급 간 교육 수준의 차이는 크게 두지 않았다.

5.1. 단원 모형 I

5.1.1. 기본 교재

단 원 명

오늘은 제가 살게요.

● 학습 목표 ●

- 한국인들의 외식 문화와 관련된 생활문화 양식 이해하기
- 식당에 가자고 제안하는 상황과 한턱내기 문화 이해하기
- 한턱내기 문화를 통한 한국인의 정 이해하기
- 식당 내의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학습자 나라의 문화 비교하기



도입

(다양한 장면이 포함된 식당 안 모습을 비디오 자료로 제시)

- ①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 ② 음식을 고르는 모습
- ③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는 모습
- ④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모습

● 도입 활동

- 식당에 갈 때 주로 누구와 함께 가요?
-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 음식 값을 각자 내요?
- 친구에게 식사를 사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요?
-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불러요?
(아주머니(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언니, 여보세요, 여기요, 저기요)



대화

종업원: 주문하시겠어요?

흐 영: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주문할게요.

흐 영: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것으로 주문하세요.

민 수: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흐 영: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1. 대화 내용을 듣고,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표시하십시오.

1) 흐영과 민수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 회사

☐ 시장

☐ 식당

2) 오늘 식사 값은 누가 낼까요?

☐ 흐영

☐ 민수

☐ 흐영과 민수

3) 오늘 흐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 회사에 취직했어요.

☐ 돈이 생겼어요.

☐ 휴가를 받았어요.

2. 본문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으십시오.

〈보기〉 무슨 좋은, 살게요, 이따가, 것으로, 보너스, 잠깐만요

종업원: 주문하시겠어요?

흐 영: _____. 조금 _____ 주문할게요.

흐 영: 오늘은 제가 _____. 맛있는 _____ 주문하세요.

민 수: _____ 일이 있어요?

흐 영: 오늘 회사에서 _____ 을/를 받았거든요.



발음

살게요[살께요]

한턱낼게요[한텅낼께요]

좋은 일이[조은니리]

+ 더 해 봅시다!

- 주문할게요 내일 올게요 기다릴게요
이걸 먹을게요 내가 낼게요

- 한턱내다 무남독녀 막내 국내 한국말 숙녀

-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집안 일이 힘들어요 남은 일이 많아요



어휘

주문하다, 한턱내다, 좋은 일이 생기다, 보너스를 받다, 종업원

어휘 연습 !



- ♦ 누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어요?
- ♦ 누가 음식을 주문받고 있어요?
- ♦ 누가 한턱낼 것 같아요?

어휘 연습 2



• 티나가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고르십시오.

- ☐ 여보세요 ☐ 누구세요 ☐ 여기요 ☐ 저기요
☐ 아가씨 ☐ 아주머니 ☐ 있잖아요 ☐ 계세요

어휘 연습 3

(그림 또는 사진)

겹옷을 챙겨 입으며 사무실을 바빠 나가는 장봉
 턱을 괴고 앉아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랑팡
 전화를 받으며 즐거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수미

• 다음의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 무슨 일이 생겼어요?
- 2)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 3) 무슨 나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세요!

“식당에서 자리 잡기”

일반적으로 한국 식당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자리에 직접 가서 앉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업원이 자리를 안내해주는 식당도 많아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된다.(현지어 번역)

- ♦ 창가 자리 있어요?
- ♦ 흡연석 있습니까?
- ♦ 가운데 자리에 앉아도 돼요?
- ♦ 조용한 자리 좀 주세요.



표현 연습

표현 I “한턱내기 의사를 표현하기”

⇒ 한턱내겠다는 의사표현은 언제 하는 것이 적당할까?

대부분 식당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한턱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주 함께 식당에 가는 사이라면 미리 한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식사가 끝난 후에 식사 값을 계산할 때 한턱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식사 전에 미리 한턱낸다고 밝히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마음대로 메뉴를 고르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식사 전에 한턱내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상대방에게 식사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현지 어 번역)

♦ 식사 전이나 후에
“오늘은 내가 살게요.”

♦ 식당에 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한턱낼 테니 점심 먹으러 갑시다.”
“오늘 내가 쓸게”

♦ 식사 후에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오늘 식사 값은 내가 낼게요.”



문법 Tip

-(으)ㄹ게(요)

미래형 종결어미 ‘~겠습니다’와 비슷하나 일인칭주어 문장에서만 사용되며, 말할이가 자신의 계획을 표현하는 문형이다. 특히 말할이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할 때 사용한다.(현지어 번역)

- 그 일은 제가 할게요.
- 내일 다시 올게요.
- 다음에 또 올게요.
- 싸게 해 드릴게요.
- 이따가 도와드릴게요.



문법 연습

다음의 담화상황에서 자신의 계획을 약속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현지어 번역)

1. 세탁소에 세탁물을 찾으러 갔는데 주인이 아직 안 됐다고 대답하면서 미안해했다. 그러자 효영 씨는 내일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다.(현지어 번역)

효 영: 어제 맡긴 옷을 찾으러 왔어요.

세탁소 주인: 아직 안 됐는데요. 미안합니다.

효 영: 그래요. 그럼 _____.

2.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샀다. 가게 주인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서 사과를 더 넣어 주었다. 나는 고마워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대답하였다.(현지어 번역)

가게 주인: 여기 있습니다. 사과를 두 개 더 넣었습니다.

나 : 고마워요. _____.

3. 백화점 입구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아기 엄마를 보았다. 장충 씨가 얼른 다가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었다.(현지어 번역)

장 충: _____
아기 엄마: 감사합니다.



표현! 연습

1) 사무실 친구들에게 당신이 식사를 사겠다고 말하십시오.



2) 식사가 끝난 후 당신이 식사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3) 메뉴를 고르기 전에 당신이 한턱내는 것을 말하십시오.



표현 2 “한턱내기 의사에 반응하기”

⇒ 누군가 한턱내겠다고 제안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축하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턱내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기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지어 번역)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셨군요.”

“웬일이세요?”



표현2 연습

• 다음과 같은 식사대접 제의에 알맞은 표현으로 반응하십시오.

1) 동료: 오늘 내가 점심 살게.

나:

2) 후배: 오늘 식사 값은 내가 낼게요.

나:

3) 선배: 이걸 내가 계산할게.

나:

표현 3

“한턱내는 이유를 설명하기”

⇒ 한턱낼 만큼 기쁜 일이란 어느 경우일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자신에게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경우에 한턱을 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의 한턱내는 문화는 기분을 즐기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현지어 번역)

“저 승진했거든요.”

“오늘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어제 딸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이가 입학시험에 합격했거든요.”



문법 Tip

-거든(요)

말할이는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만 들을이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담화상의 전제를 내포하는 종결어미다. 보통 선행문장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현지어 번역)

- 오늘 제가 점심을 살게요. 어제 딸아이가 태어났거든요.
-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제가 회의에 늦었거든요.
- 저는 녹차로 주세요. 아까 커피를 마셨거든요.



문법 연습

• 다음의 문장들을 뒤 문장이 앞 문장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담화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1. 오늘 제가 한턱내겠어요. 어제 보너스를 받았어요.



2.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3. 우산을 가져가세요. 밖에 비가 와요.





표현3 연습

♦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한턱내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1) 동료: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나:

2) 선배: 웬일이야?

나:

3) 후배: 좋은 일이 생기셨나 봐요?

나:

표현 4 “한턱내는 이유를 듣고 반응하기”

⇒ 한턱내는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기쁜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지어 번역)

“어이구, 정말 축하드려요.”

“와, 정말 기쁘시겠네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셨군요. 축하드려요.”



표현4 연습

♦ 한턱내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1) 친구: 새 직장에 취직했어요.

나:

2) 후배: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나:

3) 선배: 제 아이가 일등을 했어요.

나:



A상황과 B상황을 짝지어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 ## 활동 1 대화모형

가: 오늘은 (). 같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나: 무슨 ()?
다: 어제 ().
라: 어이구, ().

활동2

- ♦ 상황A: 오늘 당신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은 평소에 자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웬지 당신이 대접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모두 마친 후 계산대에 가기 전에 당신이 식사 값을 모두 계산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없지만 그냥 사고 싶다고 말하십시오.(현지어 번역)
- ♦ 상황B: 오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턱내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축하할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턱내겠다고 한다면 부드럽게 사양하면서 각자 내자고 제안하십시오.(현지어 번역)

활동2 대화모형

가: 오늘은 ().

나: 무슨 ()?

다: 그런 게 아니라, ().

라: 그러지 말고 ().

활동3

♦ 상황A: 당신은 파울로입니다. 오늘 당신은 호영 씨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호영 씨가 한턱냈기 때문에 오늘은 당신이 한턱내야 할 것입니다. 식사 후에 당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호영 씨는 당신의 경제 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한턱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호영 씨의 말은 고맙지만 그래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십시오.(현지어 번역)

♦ 상황B: 당신은 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당신이 식사를 대접한 파울로 씨와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에 파울로 씨가 식사 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하면 부드럽게 제지하십시오.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한사람이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파울로가 대접하고 싶어 한다면 식사 대신 차를 사도록 권유하십시오.(현지어 번역)

활동3 대화모형

파울로: 지난번에 호영 씨가 냈으니 ().

호 영: 오늘은 식사 값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_____.

파울로: 그래도 저도 한번 _____.

호 영: 그럼, 식당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_____.



문화 나누기

- 1) 여러분 나라에서는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이 한턱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 2)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턱을 냅니까?
- 3) 한국에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5.1.2. 교사용 지도서

단 원 명

오늘은 제가 살게요.

● 학습 목표 ●

-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한국인들의 외식 문화와 관련된 생활문화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 식당에 가자고 제안하는 상황과 한턱내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외식과 회식 문화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정과 생활 문화를 이해해보자.

학습 내용

문화	• 식당 안에서의 행동 양식 배우기 • 한턱내기 문화 이해하기 • 한턱내기 문화와 한국인의 정 이해하기
표현	• 한턱내기 의사 표현과 한턱내기 의사에 대한 반응 표현 익히기 • 회식문화와 관련된 한국인의 정서 표현 익히기
어휘	• 외식 활동과 회식 문화에 사용되는 어휘 학습
발음	• 경음화 현상, 자음동화 현상, ‘ㄴ’ 첨가 현상
문법	• 일인칭 주어 문장과 약속형 종결어미 ‘-(으)르게요’ • 설명형 종결어미 ‘-거든요’의 담화 환경
과제	•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즐거운 기분을 옆 사람과 나누기 • 나라별로 한턱내기 문화 비교하기

수업개요

총200분=50분*2시간*2일

구분	수업내용	수업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도입	한국의 외식 문화에 관련된 생활양식 익 히기	식당 내의 다양한 담 화 상황 이해하기	식당 내의 다양한 장면이 실린 사진이 나 비디오물	15분
문화 인식 하기	학습자 나라의 외식 문화인식하기	외식 문화와 관련된 학습자 나라의 생활 양식 소개하기	학습자들이 준비한 사진 자료	20분
대화	기본 대화 듣기	·대화 듣고 따라 하기 ·대화 상황 이해하기 ·대화에 사용된 표현 어구 주목하기	듣기 CD	15분
발음 연습	발음 변화 어휘 연습 하기	경음연습, ㄴ첨가, 자 음변화연습		10분
어휘 연습	·어휘 뜻 익히기 ·실제 표현 연습	실제 사용되는 표현 을 연습하기	실제 상황을 보여주 는 그림이나 사진	20분
문법 Tip1	약속형 ‘-(으)르세요’	상황에 적합한 약속 답화 만들기		20분
표현 연습	한턱내기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 및 반응 표현	·상황 설명하기 ·표현 이해하기 ·표현 연습하기		30분
문법 Tip2	설명형 종결어미 ‘- 거든요’	‘-거든요’의 담화 조 건 익히기		20분
과제1	말하기/듣기	한턱내기 상황과 관 련된 적합한 담화 구 성하기		30분
평가 하기	한국문화와 학습자 문화의 비교	한국문화 적용하기		20분



수업과정

도입(15분)

- 다양한 장면이 포함된 식당 안 모습을 보고 각 장면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게 한다.
- 각 장면에서 어떠한 담화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한다.
- 교재에 제시된 질문을 이용하여 한국의 문화적 특색을 인식하게 한다.
- 데이트할 때 누가 음식 값을 내요?
- 식당에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요?
(가운데 자리, 창가 자리, 구석 자리, 흡연석, 금연석)
-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문화 나누기(20분)

이 코너의 목적은 본 단원에 제시된 주제가 문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본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자국의 생활양식을 되돌아보고 교실에서 나누게 함으로써 앞으로 본 단원에서 전개될 학습 내용이 자국의 문화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 학습자들에게 외식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게 한다.
- 학습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나라에 있는 문화 양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들이 자국의 문화 양식을 발표하는 동안에는 한국의 문화 양식을 소개하거나 강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 대화 익히기(15분)

- 듣기 CD를 통해 대화를 듣게 한다.
- 교재에 실린 대화 내용 이해 질문을 이용하여 대화 상황을 파악하게 한다.
-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대화의 빈칸을 완성시키는 연습을 통해 본 단원의 표현 연습에 필요한 어귀(expression chunk)들을 주목하게 한다.
- 도입 대화를 따라 하게 한다.

발음 연습(10분)

본문 대화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발음을 연습시키고 발음 변화와 관련된 원칙을 간략히 설명한다.

♦ 살게요[살께요]

/ㄱ, ㄷ, ㅈ/ 초성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낼게요>낼께요, 갈등>갈똥, 갈증>갈똥

♦ 한턱낼게요[한텅낼께요]

/ㄱ, ㄷ, ㅈ/ 발음 다음에 유성인 초성 /ㄴ, ㄹ/을 만나면 유성자음으로 변하여 /ㅇ, ㄴ, ㄹ/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예) 숙녀>송녀, 한국말>한궁말, 국내>궁내

♦ 웬일이세요[웬니리세요]

/ㄴ, ㄹ/ 발음 다음에 /이/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합성되는 경우에 합성 경계에 /ㄴ/음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예) 나뭇잎>나문닙, 무슨 일>무슨 닐, 집안 일>집안 닐

어휘 연습(20분)

어휘 연습은 2단계로 학습시킨다. 첫 단계는 어휘의 뜻을 학습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 단계는 학습자가 어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연습시킨다.

주문하다

(1) 어휘 뜻 익히기

- ① ‘주문하다’와 ‘주문받다’의 어휘 짝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을 이용한다.
☞ 누가 주문하고 있고 누가 주문받고 있는 상황인지 학습자에게 발표시키도록 한다.
- ② 음식을 주문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 ③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이외에 ‘주문하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넓혀준다. 예를 들어 책장을 주문하다, 노래를 주문하다 등등.

(2) 실제 상황에서 ‘주문하다’라는 어휘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는지 연습시킨다.

☞ 종업원의 경우

- 주문하시겠어요?
 - 뭘 드릴까요?
- (‘주문하다’라는 단어 사용 없이 주문받는 상황이다.)

☞ 손님の場合

- 여보세요,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 저는 불고기로 주세요.
- (‘주문하다’라는 단어 사용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불고기를 주문하겠어요’보다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한턱내다

(1) 어휘 뜻 익히기

사진을 보고 누가 한턱 낼 것 같은지 추측하게 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게 한다.

(사진 예)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즐거운 일이 생긴 것 같은 사람

☞ ‘한턱내다’의 유행어 표현으로 ‘쏘다’를 확장시켜주면서 유행어 표현은 친구 사이에서는 친근함을 주지만, 저속함도 있기 때문에 점잖은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주지시킨다.

(2) 실제 표현 연습

제가 한턱내겠습니다.
한턱내셔야겠군요.
한턱내십시오.
제가 쓸게요.

종업원

(1) 어휘 뜻 익히기

본문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업원을 부르는 경우에 종업원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기혼인지 미혼인지를 고려해서 호칭을 결정하는 것이 예의이다. 미혼 남성은 총각이고 기혼 남성은 아저씨이며, 미혼 여성은 아가씨이고 기혼 여성은 아주머니다. 그러나 주문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미혼 남성이나 미혼 여성을 부를 때 총각이나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여보세요’ 등으로 주위를 끈 후에 부탁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 실제 표현 연습

- ① 종업원을 부르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예) 여보세요, 여기요, 저기요, 아가씨, 언니, 아주머니, 총각, 아저씨 등.
- ② 그림사진을 이용하여 손님인 티나가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고르게 한다.

문법 Tip (20분)

-(으)ㄹ게(요)

- 미래형 종결어미 ‘-겠습니다’와 같은 뜻이나 일인칭주어 문장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구별시킨다. 이 문형이 사용되는 상황은 말할이가 자신의 미래 행동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주지시킨다.

교재에 실린 대로 말할이가 자신의 계획을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알맞게 ‘-(으)ㄹ게요’ 문장을 발화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생활환경과 어울리는 상황을 추가로 더 제시하여 연습시킨다.

※ 형태 연습은 워크북에서 할 수 있게 지도한다.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 그 일은 제가 할게요

이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도와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 ~ 올게요

싸게 해 드리겠습니다. → ~ 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 ~올게요

표현 연습(30분)

(1) 한턱내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표현 시점에 따라 표현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익히도록 한다.

- 식사 전이나 후에 한턱낼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오늘은 제가 살게요.

- 식당에 가기 전에 한턱낼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오늘은 제가 한턱낼 테니 점심 먹으러 갑시다.

- 식사 후에 한턱낼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 오늘 식사 값은 제가 낼게요.

(2) 누군가 한턱낼 의사를 표현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표현 방식을 익히도록 한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셨군요.

웬일이세요?

(3) 한국 사람들이 좋은 기분을 표현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한다. 또한 한턱내는 문화가 자신의 좋은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기분 문화라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저 승진했어요.

취직했어요.

오늘 보너스를 받았어요.

사실은 어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아이가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지난번엔 제가 대접받았으니까요.

(4) 한턱내는 이유를 들은 후에 반응: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즐거운 일을 기뻐하는 태도 및 언어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어이구,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셨군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잘 먹겠습니다.

문법 Tip (20분)

-거든요

- ① 설명: 직설서법의 종결어미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갖지만 직설서법과 구별되는 화용상 특성을 주지한다. 즉 들을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할이가 설명한다는 담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손 서법을 요구하는 담화 환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시킨다.
- ② 용법 연습: ‘-거든요’ 종결어미가 주로 사용되는 용법은 선행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와, 후행문장의 배경을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지만 본 단원의 용법에 해당되는 전자의 경우만을 제시한다.

♦ 선행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예:

오늘 제가 점심을 살게요. 어제 딸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제가 회의에 늦었거든요.
저는 녹차로 주세요. 아까 커피를 마셨거든요.

〈참고〉 후행 문장의 배경을 설명하는 예:

이 길로 가면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과장님은 지금 통화중이시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과자 제가 만들었거든요. 좀 드시겠어요?

- ③ 활용 연습: 뒤 문장이 앞 문장의 이유가 되는 담화 상황에서 ‘-거든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문맥을 긴밀하게 만들도록 연습시킨다.

연습은 교재에 실린 대로 기쁜 일이 생겨서 한턱내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며 ‘-거든요’를 발화하도록 한다(단, 형태 연습은 학생용 연습교재에서 한다).

- 1) 오늘 제가 한턱내겠어요. 어제 보너스를 받았어요.
- 2)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 3) 우산을 가져가세요. 밖에 비가 와요.

활동(30분)

과제1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A 상황과 B 상황의 제시문을 각각 읽은 후에 단원에서 익힌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 수행을 하도록 돕는다.

대화 모형1

A: 오늘은 제가 한턱 낼 테니 점심 먹으러 갑시다.

B: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A: 어제 우리 집에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B: 어이구,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화모형2

A: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B: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A: 아니, 그냥요.

B: 그러지 말고 각자 부담으로 해요.

대화모형3

파울로: 지난번에 호영 씨가 났으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호 영: 오늘은 식사 값이 많이 나올 텐데 같이 내요.

파울로: 그래도 저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호 영: 그럼, 식당 앞에 있는 커피 집에 가서 차 한 잔 사 주세요.

- 교사는 학습자들이 대화를 만드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학습자의 발음을 수정해 주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도와준다.
- 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짝을 지어 발표하게 한 후 다른 팀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 유연성을 갖게 한다.

과제2

- 문화 나누기 코너에 마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나라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이라고 화두를 열도록 연습시킨다.

평가하기(20분)

- 한국인의 한턱내기 문화의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자의 의견을 말하게 한다.
- 학습자가 현재 어떠한 일로 한턱낼 수 있을지 상상해보게 한다.
-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턱낼 계획인지 말해보게 한다.
- 한턱낼 때의 기분이 어떨지 표현해보게 한다.

5.1.3. 학생용 연습 교재(Workbook)

단 원 명

오늘은 제가 살게요.

1. 다음은 본문의 대화 상황을 설명한 글입니다. 빈칸에 적당한 표현을 채워 넣으십시오.

〈보기〉 주문받다, 메뉴, 조금 이따가, 보너스를 받다, 한턱내다

호영과 수지가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영이 종업원에게 () 주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영은 오늘 회사에서 (), 그래서 오늘 수지에게 () 계획입니다.

2. 다음 그림을 보고 손님이 종업원을 부르는 말을 골라 쓰십시오.

〈보기〉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기요, 저기요, 아가씨, 아저씨, 아주머니, 있잖아요, 계세요.

① (그림 또는 사진) 종업원은 젊은 남자이고, 손님은 젊은 여자	② (그림 또는 사진) 종업원은 젊은 남자이고, 손님은 나이 많은 남자
손님:	손님:
③ (그림 또는 사진) 종업원은 젊은 여자이고, 손님은 나이 많은 여자	④ (그림 또는 사진) 종업원은 나이 많은 여자이고, 손님은 젊은 남자
손님:	손님:

3.

- 1)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나 : 두 사람이에요. _____(창가 자리 찾기)
- 2) 종업원: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나 : 여기 말고, _____(조용한 자리 찾기)
- 3) 종업원: 어서 오세요. 편한 곳에 앉으세요.
나 : _____(흡연석 찾기)
- 4) 종업원: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나 : _____(금연석 찾기)

4.

- 1)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
- 2)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
- 3) 내가 커피를 뽑아오겠습니다. ➡
- 4) 과장님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
- 5)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

5.

- 1) (). 같이 식당에 갑시다.
- 2) (). 맛있는 것으로 주문하세요.
- 3) (). 걱정하지 마세요.
- 4) ().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 5) ().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6. 다음 상황과 같은 제안을 받고 적절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 1) 상황: 오늘 내가 한턱낼게요. ➡
- 2) 상황: 오늘은 내가 쓴다. ➡
- 3) 상황: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
- 4) 내가 한턱낼 테니 식사하러 갑시다. ➡

7. ‘-거दन요’를 사용하여 선행문장으로 기술되는 상황의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1) 오늘 점심 값은 내가 낼게요. ().
 (어제 보너스를 받았어요)
- 2) 난 그만 먹을게요. (). (다이어트 중이에요)
- 3) 좀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 (아이가 자고 있어요)
- 4)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 5) 먼저 퇴근하세요. (). (저는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8.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기쁜 소식을 듣고 적당한 표현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 1) 상황: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
- 2) 상황: 우리 아이가 오늘 돌이에요. ➡
- 3) 상황: 내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
- 4) 상황: 저 우리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
- 5) 상황: 우리 아이가 한국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

5.2. 단원 모형 II

5.2.1. 기본 교재

단 원 명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 학습 목표 ●

- 한국인들의 경기 관전 문화 이해하기
- 한국인들의 응원 문화 이해하고 사용 표현 익히기
- 내기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의식 이해하기
- 관전할 때 나타나는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학습자 나라의 문화 비교하기



도입



● 도입 활동

-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 스포츠 경기를 자주 보는 편인가요?
- 특별히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나요?
- 직접 구경을 가거나 응원에 참가해 본 적이 있나요?
-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 가장 유명한 팀은 어느 팀입니까?
- 유명한 선수나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대화

친구: 오늘 축구 어떻게 될까?

호영: 글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친구: 그래? 난 왠지 좀 불안해. 질 것 같아.

호영: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실력이 훨씬 나아.

친구: 그렇기는 해도 경기에서는 운도 중요하거든.

호영: 그럼, 우리 누가 이기나 내기 하자.

1. 대화 내용을 듣고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표시하십시오.

1) 친구와 호영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 축구 경기
- ☐ 응원과 경기 결과
- ☐ 상대 팀의 경기

2) 친구는 왜 불안해합니까?

- ☐ 응원하는 팀이 질까 봐
- ☐ 상대 팀이 잘할까 봐
- ☐ 경기를 보지 못할까 봐

2. 본문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으십시오.

〈보기〉 될까, 글썄, 웬지, 질 것 같아, 실력, 훨씬, 운, 내기 할까

친구: 오늘 축구 어떻게 _____ ?

호영: _____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친구: _____ 난 좀 불안해. _____.

호영: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_____이 _____ 나야.

친구: 그렇기는 하지만 경기에서는 _____도 중요하거든.

호영: 그럼 우리 누가 이기나 _____ ?



발음

· 이길 것 같은데[이길 께 가튼데] 질 것 같아[질 께 가타]
 올 것 같아[올 께 가튼데] 갈 수 있어[갈 수 이써]
 할 수 있어[할 수 있어]

· 불안해[부란해] 살아[사라] 불어[부러]

· 그렇기는 해도[그러키는 해도] 좋기는 해[조키는 해]
 넣지 마[너치 마] 낱고[나코]



어휘

이기다, 지다, 불안하다, 낫다, 중요하다

어휘 연습 1



- 경기 결과 나왔어요?
- 무슨 걱정 있어요?
- 어느 팀이 더 잘해요?
- 실력 있는 팀이 이기겠지요?
- 왜 자리에 안 앉고 왔다 갔다 해요?

어휘 연습 2



- 다음 중 응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모두 고르십시오.
- ☐ 힘내라! ☐ 잘해라! ☐ 잘한다! ☐ 아자!
- ☐ 파이팅! ☐ 이길 수 있어! ☐ 여기요. ☐ 거기 앉으세요.



이걸 아세요?



한국의 ‘붉은 악마’를 아십니까?

‘붉은 악마’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때 만들어진 한국 축구의 공식 응원팀입니다. ‘붉은 악마’는 빨간 색 유니폼을 입고 대형 태극기를 들고 열성적으로 끝까지 응원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경기를 보러 가거나 길에서 응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짹짹 짹 짹! 대-한민국, 짹짹 짹 짹!”이란 응원을 들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응원도 ‘붉은 악마’들이 만들어 낸 응원 구호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은 어떨습니까?

- 여러분 나라에도 공식 응원팀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팀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응원단 이름	특 징
붉은 악마	빨간색 상의, 태극기, 아리랑, 박수와 구호(짹짹 짹 짹, 대-한민국!)



표현 연습

표현 1

승부와 관계된 표현

- -이/가 이길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가 이겼어요. (이길 거예요. 이길 것 같아요. 이기면 좋겠어요.)
- -이/가 졌어요. (질 거예요. 아깝게 졌어요. 형편없이 졌어요. 질 것 같아요.)
- -하고 -이/가 비겼어요. (무승부예요. 동점이에요.)

표현 2

순위와 관계된 표현

- -이/가 우승했어요. (1등 했어요. 1등이에요.)
준우승했어요. (2등 했어요. 2등이에요.)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이에요.)
금메달(은메달, 동메달)을 땄어요.
제일 못했어요. (꼴등이에요. 꼴찌예요.)

표현 3

경기 내용과 관계된 표현

(점수 차가 많이 났을 때)

- 형편없이 졌어요.
- 실력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 점수 차가 많이 났어요.
- 큰 점수 차로 이겼어요.
- 점수 차가 많이 났어요.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았을 때)

- 아깝게 졌어요.
- 막상막하였어요.
-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였어요.
- 겨우 겨우 이겼어요.
- 운이 좋아서 이겼어요.

표현 4

경기 관전 시 쓸 수 있는 감정 표현

- 긴장 돼요.
- 웬지 불안해요.
- 조마조마해요.
-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법 Tip !

-(으)니까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질문으로만 쓰인다.(현지어 번역)

- 내일 비가 올까요?
- 저 영화가 정말 재미있을까?
-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을까요?
- 저 팀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 내기에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문법 연습

다음의 대화상황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질문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현지어 번역)

1. 내일은 어머니의 생신이다. 호영은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해 걱정이다.(현지어 번역)

호영 : _____

친구 : 화장품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2.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호영은 친구가 병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현지어 번역)

호영 : _____

친구 : 괜찮을 거야. 해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걱정을 벌써 해?

3. 오늘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가 농구 시합을 하기로 했다. 이기는 회사에게는 많은 상품이 주어질 것이다.(현지어 번역)

친구 : _____

호영 : 글썄……. 실력은 비슷할 것 같은데.



문법 Tip 2

-(으)ㄹ 것 같아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일이나 현재의 일을 막연히 추측할 때 쓴다.(현지어 번역)

- 비가 올 것 같아요.
-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 저 사람은 착할 것 같아요.
- 오늘은 게임에서 질 것 같아요.
- 우리 팀이 우승할 것 같지요?



문법 연습

다음의 상황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질문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현지어 번역)

1. 축구 경기를 보러 축구장에 왔다. 친구는 자기 팀이 이길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현지어 번역)

친구 : 오늘 누가 이길까? 우리 팀이 우승 후보인데.

호영 : 글썄..... .

2.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방안도 캄캄해졌다. 친구가 날씨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현지어 번역)

친구 : 어,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네.

호영 : 정말.

3. 친구와 함께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갔다. 나는 사과를 5개만 사고 싶었는데 친구는 10개를 사자고 한다.(현지어 번역)

친구 : 사과 10개쯤 사면 되지?

호영 : 먹을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



들어보세요!



친 구: 와, 우리 팀 선수들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축구에서 5대 1이란 점수는 흔하지 않거든.

흐 영: 그것 봐. 내가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했잖아.

친 구: 그래. 그런데 다른 팀들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흐 영: 라디오를 잠깐 들어 보니까 두 팀이 2대 2로 비겼대.

친 구: 그럼 내일 결승전에는 누가 올라오는 거지?

★ 새 단어: 흔하다, 이기다, 경기 결과, 비기다, 결승전, 올라오다

• 들은 내용과 같은 것에 ○표 하십시오.

- 1) 두 사람이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 졌다, 비겼다)
- 2) 점수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1:2, 5:1, 2:2)
- 3) 다른 경기에 나온 두 팀은 (2:2, 2:1, 1:2)로 (이겼다, 졌다, 비겼다)
- 4) 친구는 내일 결승전에 나올 팀을 (안다, 모른다)



활동

활동!

♦ 다음 글을 읽은 후 위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참조하여 친구와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 ○팀과 ☆팀이 농구 경기를 했는데 ○팀의 승리로 끝났다. 점수는 100: 55이었다. 점수 차가 꽤 컸다. 우리는 ○팀을 응원했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다. 내일은 결승전이 있다. 내일 상대가 누가 될지 궁금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팀이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온다고 한다. 하지만 ◇팀이 워낙 잘하는 팀이라서 걱정이 된다. 내일도 우리 팀이 이겨서 우승하면 좋겠다. 우리 팀, 파이팅! (○☆◇: 현지 지역 팀 이름)

활동1 대화모형

가: 와, 팀이 이렇게 ().

나: 그것 봐. 내 생각에는 ().

가: 네 말이 맞았어. 그런데 ().

나: ()니까 ().

가: 그럼 내일 결승전에는 ().

나: 응. 내일도 우리 팀이 이기면 좋겠다.

활동2

- ♦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의 이름을 넣어서 자유롭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외워서 발표해 보세요.

활동2 대화모형

가:

나:

가:

나:

활동3

- ♦ 지금까지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최근에 본 경기에 대해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경기 보러 가기 전

- 무슨 경기를 보러 가요?
- 경기는 언제 있어요?
- 어느 팀을 응원할 거예요?
- 누가 이길 것 같아요?
- 왜 그렇게 생각해요?
- 내기할까요?
- 무슨 내기를 할까요?

가:

나:

가:

나:

가:

나:

경기 보고 난 후

- 경기 보고 나니까 어때요?
-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 지금 기분이 어때요?
- 다음에 또 경기 보러 갈 거예요?

가:

나:

가:

나:

가:

나:



잠깐 쉬어 갑시다!

★ 여러분 나라에서는 내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내기를 할 때 “가위, 바위 보”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가위, 바위, 보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위, 바위, 보를 3번 해서 2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것으로 내기를 마치기도 합니다.

내기와 관계된 표현

- ♦ 우리 내기하자.
- ♦ 우리 내기할까요?
- ♦ 뭐 걸까?
- ♦ 뭐 내기 할까요?
- ♦ 점심 사기로 하자.
- ♦ 이기면 -고 지면 -기로 하자.
- ♦ 가위, 바위, 보로 정하자.
- ♦ 간단한 게임을 해서 정하자.

★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드십시오.

A와 B는 직장 동료이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하고 있다. 여덟 시가 지나자 두 사람은 배가 고팠다. 하지만 먹을 것을 사러 나가기 싫었다. 그래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결정하자고 한다.

(사용 표현) 입이 심심하다, 귀찮다, 가위 바위 보, 이기다, 지다

가:

나:

가:

나:



읽어 봅시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는 씨름을 들 수 있다. 씨름은 원시사회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무술로서 행해졌고 시간이 지나며 무예로 발전하였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 되면 남자들은 자기 마을 또는 이웃 마을 사람들과 함께 씨름경기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력 8월 한가위, 즉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고장 대표들이 모여 자기 고장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하기 위해 애를 썼다. 우승자에게는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다. 옛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이었다는 점과 또한 한국은 예로부터 농업국이므로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뜻에서 황소를 부상으로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명절에 열리는 장사 씨름대회에서는 소 대신 승용차를 부상으로 주기도 한다.

1. 다음은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해 오던 전통 스포츠 및 놀이들의 사진입니다. 사진과 알맞은 이름을 연결해 보세요.



•



•



•



•



•



•

제기차기

씨름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줄다리기

2.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전통 스포츠와 놀이가 있습니까? 친구와 같이 한국의 전통 스포츠와 놀이에 대해 조사한 후 비교해서 말해 보세요.

♦ 한국의 전통 스포츠/놀이

스포츠/놀이명	언제	누가	어디에서	준비물
윷놀이	명절	가족, 친구, 동네 사람	집, 마당 등	윷, 말, 윷판

♦ ()의 전통 스포츠/놀이

스포츠/놀이명	언제	누가	어디에서	준비물

5.2.2. 교사용 지도서

단 원 명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 학습 목표 ●

- 한국인의 경기 관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경기 관전 시, 경기 결과에 대해 쓸 수 있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 한국인의 응원 문화를 이해하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현을 익힌다.
- 한국인의 내기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말할 수 있다.

학습 내용

문화	• 관전문화 이해하기 • 응원문화 비교하기 • ‘내기’를 통한 문제 해결 이해하기
표현	• 승부, 순위, 경기 내용, 경기 관전과 관련된 표현 익히기 • 내기와 관련된 표현 익히기
어휘	• 관전문화와 내기문화에 사용하는 어휘 학습
발음	• 경음화/연음, 유기음화
문법	•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는 ‘-(으)ㄴ 것 같다’ • 질문형 추측 표현 ‘-(으)ㄴ까요?’
과제	• 읽기: 한국의 응원 문화와 전통 스포츠에 대한 글을 읽고 이야기하기 내기 상황에서의 대화 만들기 • 듣기: 경기 현장에서의 대화를 듣고 유사한 대화 만들기

수업개요

제1일 (총200분=50분*2시간*1일)

구분	수업 내용	수업 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도입	‘경기 관전’, ‘응원’ 관련 주제 제시 및 학습 동기 유발	- 교재 그림을 통해 주제 제시하기 -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하기	사진, 비디오	10분
대화	기본 대화 익히기	- 대화 상황 이해하기 - 대화 듣고 따라 하기 - 대화에 새로 나온 단어 익히기	듣기 CD	15분
발음 연습	경음화, 연음, 유기음화 연습	- 발음이 바뀌는 부분에 유의해서 듣기 - 듣고 따라 하기		5분
어휘 연습	승부와 응원에 관련된 어휘 익히기	- 도입 및 설명하기 - 어휘 연습하기 - 배운 어휘 이용해 대화 만들기		10분
이걸 아세요?	응원 문화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 읽기 전 주제 관련 대화하기 -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읽은 후 자기 나라의 환경 응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10분
표현 연습	승부, 순위, 경기 내용, 결과 예측, 관전 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익히기	- 도입 및 설명하기 - 표현 연습하기		10분
문법1	-(으)니까요?	- 도입 및 설명하기 - 교재 활용하여 연습하기 - 워크북 연습 설명한 후 예를 제시하고 과제로 유도하기	설명에 필요한 그림	15분
문법2	-(으)ㄴ 것 같다	- 도입 및 설명하기 - 교재 활용하여 연습하기 - 워크북 연습 설명한 후 예를 제시하고 과제로 유도하기	설명에 필요한 그림	15분
정리 하기	배운 내용 확인	경기와 응원에 관한 어휘 및 배운 내용에 관한 정리하기		10분

수업개요

제2일(총200분=50분*2시간*1일)

구분	수업 내용	수업 활동	준비물	소요 시간
복습	1차시 학습 내용에 관한 복습	- 주제에 관한 이야기 상기시키기 1차시에서 배운 본문 대화 및 문형, 어휘에 대한 총복습	사진, 비디오 CD 스포츠 신문	10분
들어 보세요!	듣고 말하기	- 듣기 전 주제 관련 대화하기 - 경기 관전 후의 대화 듣고 이해하기 - 들은 내용에 대한 문제 풀기 - 유사한 내용의 글 읽기 - 관련 문형 사용하여 대화 만들기	듣기 CD	40분
잠깐 쉬어 갑시다!	내기와 관련된 표현 익히고 자국 문화와 비교해 보기	- 도입 및 설명하기 -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말해 보기 - 내기 상황을 나타내는 글 읽고 배운 표현 이용해서 대화 만들기 (Role Play)		20분
읽어 봅시다!	읽고 말하기	- 도입 및 설명하기 - 한국의 전통 스포츠와 민속놀이에 대해 이해하기 -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보고 차이점 발표하기	전통 스포츠나 민속놀이에 관련된 사진, 비디오	20분
정리하기	1, 2차시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확인 하고 구두로 학습 성취도 평가하기	- 경기와 응원에 관한 어휘 및 배운 내용에 관한 정리하기 - 학습 성취에 대해 격려하기		10분



수업과정



1차시

도입 (10분)

- 다양한 경기와 응원 장면이 포함된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고 오늘 배울 단원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해당 사진이나 비디오에 나타난 스포츠 종목이나 선수, 인물들의 이름을 아는지 확인한다.
-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오늘 배울 단원의 주제가 스포츠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한다.

스포츠를 좋아하나요?

어떤 종목을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팀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외국 선수도 좋아하나요?

그 선수를 왜 좋아하나요?

경기를 직접 보러 간 적이 있나요?

언제, 누구와 같이 갔나요?

여러분 나라에도 '붉은 악마'와 같은 응원팀이 있나요?

OO 씨도 응원에 참여했나요?

OO 씨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나요?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나?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이 좋아하나요?

제시 대화 익히기(15분)

- 듣기 CD를 통해 대화를 듣게 한다.
- 교재에 실린 대화 내용 이해 질문을 이용하여 대화 상황을 파악하게 한다.
-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대화의 빈칸을 완성시키는 연습을 통해 본 단원에 새로 나온 어휘나 표현 연습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 도입 대화를 따라 하게 한다. 이때 발음에 유의하며 읽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따라하도록 한다.

발음연습(5분)

대화 본문에 들어있는 어휘의 발음을 연습시킨다. 정확한 발음을 먼저 들려주고 어느 부분이 바뀌는지 찾아보게 한 후 따라 읽게 한다.

• 관형형어미 ㄴ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길 것 같은데[이길 께 가튼데] 질 것 같아[질 께 가타]
올 것 같아[올 께 가튼데] 갈 수 있어[갈 쑤 이써]
할 수 있어[할 수 있어]

• 연음

불안해[부란해] 살아[사라] 불어[부러]

※ 실제로 ‘불안해’는 현실 발음에서 ‘ㅎ’약화가 일어나지만 표준발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ㅎ’을 조금 약하게 발음하면서 연습시키듯이 발음하라고 지도한다.

• 유기음화

여기서는 ㅎ 받침 뒤에 ‘ㄱ, ㄷ, ㅈ’가 오는 환경만을 준다.

그렇기는 해도[그러키는 해도] 좋기는 해[조키는 해]
넌지 마[너치 마] 낳다[나타]

어휘 연습(10분)

기본 대화에 나오는 어휘를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이때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알맞은 단어를 골라 대답하게 한다. 학생과 학생끼리 질문을 하게 해도 좋다. 기본 대화에 나오는 단어를 숙지했으면 응원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 교재 제시 어휘: 이기다, 지다, 불안하다, 낳다, 중요하다, 웬지, 실력, 운, 내기

이걸 아세요? (10분)

- 본 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도입 질문을 한다.
 - 여러분도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나요?
 - 좋아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이 경기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박수를 보낸다, 일어서서 소리를 친다, 노래를 한다' 등이 나오도록 유도)
- 한국의 2002 월드컵 관련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를 보여 주고 '붉은 악마'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 '붉은 악마'에 관한 글을 한 번 읽은 후 대강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다시 한 번 읽은 후 짝을 지어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표현 연습(10분)

어휘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 관전 경험과 당시 느꼈던 점 등을 물어 보며 경기와 승부와 관계된 표현을 익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본 교재에 나온 표현 등을 쓰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만들어 보게 한다.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언제 갔었어요?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그 때 기분이 어땠어요?

문법 Tip (15분)

-(으)니까요?

추측할 때 쓸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림을 제시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예)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왔다. 내일은 등산 가기로 한 날이다. 내일도 비가 올까 봐 걱정이다. 친구에게 내일 날씨가 어떨지 생각을 물어본다.

내일도 비가 올까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갔을까요?

누가 이길까요?

※워크북에 나온 연습 문제를 함께 해도 좋다.

문법 Tip (15분)

-(으)ㄴ 것 같다

추측할 때 쓸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림을 제시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 그림 : 비가 올 것 같아요.

-비싸게 보이는 옷, 반지, 시계 등의 사진 : 비쌀 것 같아요.

-유명한 축구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팀의 사진: 이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워크북에 나온 연습 문제를 함께 해도 좋다.

1차시 정리하기 (10분)

- 스포츠 경기 관전, 응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 경기가 끝난 후 경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의 기분과 졌을 때의 기분을 이야기하게 한다.



수업과정



2차시

복습(10분)

- 1차시에서 배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 1차시에서 진행한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
- 1차시에서 배운 어휘가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이때 스포츠 관련 신문 기사를 이용해도 좋다. 어느 팀과 어느 팀의 경기였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OO 씨는 어느 팀을 응원했어요?
- 1차시에서 배운 기본 대화의 본문을 들려준다.
- 1차시에 이어 계속 경기와 응원 관련 내용을 배우게 됨을 알려준다.

들어보세요! (40분)

-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 직접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 어느 팀이 이겼나요?
 - 점수는 어땠나요?
- 들을 내용이 경기 관전에 관련된 것임을 알려 주고 대화를 들려준다.
- 대화의 내용에 관해 간단한 질문을 한다.
 - 무슨 경기를 본 것 같나요?
- 두 번째 들을 때는 좀 더 자세히, 숫자 등에 유의하며 들으라고 설명하고 대화를 다시 들려준다.
 - 누가 이겼나요?
 - 점수 차이가 컸나요?
 - 다음 경기가 또 있나요?
- 과제에 있는 내용 이해 문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 답을 확인하고 대화를 다시 한 번 들려주도록 한다.
- 유사한 내용의 글을 읽게 한다. 1차시와 바로 전까지 공부한 내용과 거의 유사함을 알려준다.
- 내용을 읽고 짚을 정해 준 후 듣기 대화와 같은 식의 대화를 만들게 한다. 이때 듣기 대화의 스크립트를 나눠준다.
- 만든 대화를 발표하게 한다.

잠깐 쉬어 갑시다! (20분)

- 먼저 내기 문화에 대한 도입 질문을 한다.
예) 내기를 합니까?
주로 언제 내기를 합니까?
어떤 내기를 합니까?
- 교재에 제시된 내용을 읽고 한국 사람이 하는 내기 결정 방법을 해 보게 한다.
- 교사는 상황을 이해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림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좋다.
- 자국의 내기 방법과 비교해서 말하게 한다. 특별히 소개할 방법이 있으면 나와서 해 보게 해도 좋다.
- 내기에 관련된 표현을 ‘내기를 하자고 할 때, 내기를 결정한 후 승패에 따라 상벌을 정할 때, 내기의 방법을 정할 때’의 상황으로 나누어 연습을 시킨다.
- 내기 상황을 나타내는 글을 읽고 배운 표현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게 한다. 두 명이 함께 role play를 만들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한다. 다른 상황을 주고 확장 연습을 시켜도 좋다.

읽어 봅시다! (20분)

- 한국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경기에 대해 말한다. 또 명절에만 하거나 주로 명절 때 즐기는 스포츠나 민속놀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학습자들이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 씨름에 대한 글을 읽게 한다.
- 씨름 이외의 민속놀이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놀이의 명칭을 알려준다.
- 학습자들에게 자국의 전통 스포츠나 민속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 한국의 전통 스포츠나 민속놀이와 비교하게 한 후 발표하게 한다. 숙제로 제출하게 해도 좋다.

1, 2차시 정리하기(10분)

- 경기 관전이나 응원 시에 필요한 표현과 어휘들을 학습했음을 상기시킨다.
- 관련 어휘나 표현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답하는지 확인한다.
- 학습자들이 성실히 공부했음을 칭찬해 주고 1, 2차시를 통해 배운 표현이나 어휘를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쓰도록 권장하며 수업을 끝맺는다.

5.2.3. 학생용 연습 교재(Workbook)

단 원 명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1. 다음 () 안에 맞는 어휘를 골라 알맞게 바꿔 넣으십시오.

〈보기〉 이기다, 비기다, 지다

- 1) 지난 주말에 한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1:0으로 ().
- 2) 이번 결승전에서 우리 학교 팀이 ()면 좋겠어요.
- 3) 김연희 선수가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고 말았어요.
- 4) 학생 윗놀이 대회를 했는데 우리 반과 친구네 반이 ()서 같은 상을 받았어요.
- 5) 우리 팀이 이렇게 () 줄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2. 다음은 ‘ㅅ’ 동사 연습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 안에 알맞게 써 넣으십시오.

짓다	нат	웃다
지어요	나아요	웃어요
지어서		
	нат고	
		웃으니까
지은		

- 1) 이 가방보다 저 가방이 더 ().
- 2) 빌딩을 () 집 주변이 시끄러워요.
- 3) 더 () 조건의 직장이 있으면 옮기고 싶어요.
- 4) 아이가 엄마를 보고 ().

3. 다음은 ‘글쎄(요)’와 ‘그렇기는 하지만’이 들어가는 대화입니다. ‘글쎄(요)’와 ‘그렇기는 하지만’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가: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나: _____. 저도 잘 모르겠어요.
- 2) 가: 가까운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나: _____. _____.
- 3) 가: 이 꽃을 어디에 둘까요?
나: _____. _____.
- 4) 가: 요즘도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나: 네. _____ 얼마 전보다는 덜 바빠요.
- 5) 가: 여기가 이 근처에서 서비스가 좋은 세탁소예요.
나: _____ 세탁비가 비싸다고 해요.

4. 다음 <보기>와 같이 ‘-(으)니까(요)?’를 넣어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기>

가: 오늘 게임에서 누가 이길까?

나: 우리가 이길 것 같아.

- 1) 가: 저 옷이 마음에 드는데, _____?
나: 좀 비쌀 것 같아요.
- 2) 가: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 _____?
나: 내일은 그칠 것 같은데요.
- 3) 가: 이따가 손님들이 오는데, 음식이 _____?
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 4) 가: 내가 이 선물을 주면, 흐영 씨가 _____?
나: 그럼요.
- 5) 가: 이 시간에 나가면 _____?
나: 출근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 6) 가: 5시인데 은행이 문을 _____?
나: 네. 닫았을 거예요.

5. 다음 <보기>와 같이 '-(으)ㄴ 것 같다'를 넣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하늘이 어두워져요.

나: 비가 올 것 같아요.

1) 가: 이걸 사 드릴게요.

나: 아니에요. _____.

2) 가: 된장찌개를 시킬까요?

나: 네. _____.

3) 가: 이 책을 빌려 줄게요.

나: 어휴, _____.

4) 가: 어느 팀이 이길까?

나: _____.

6. '-(으)ㄴ 것 같다'와 '-(으)ㄴ까요?'를 써서 다음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좋겠는데 지금 의사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날 수 있을지, 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지를 물어 보십시오.(현지어 번역)

가:

나:

가:

나:

지금 막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중요한 짐을 하나 공항에 두고 왔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버스가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택시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와 의논해 보세요.(현지어 번역)

가:

나:

가:

나:

7. 다음은 스포츠 신문에 나온 표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표시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경기 날짜, 장소, 결과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단, 다음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십시오.

〈보기〉 이기다, 실력, 지다, 취소되다, 열리다, 낫다, 점수 차

★ 농구 경기

KBL Schedule 2008 시즌 경기 일정					
2007. 10월	2007. 11월	2007. 12월	2008. 01월	2008. 02월	2008. 03월
경기일자	요일	홈	어웨이	경기장	결과
2008. 03. 01	토	울스탈전 드림	울스탈전 매직	잠실학생	142 : 137
2008. 03. 04	화	서울SK	인천전자랜드	잠실학생	

★ 야구 경기

2007 포스트 시즌(Post Season) ENJOY TOGETHER BASEBALL			
날 짜	원정팀 : 홈 팀	장소	결과
2007. 09. 01. (토)	한화:LG	잠실	우천취소
	삼성:SK	문학	우천취소
	현대:KIA	광주	우천취소
	두산:롯데	사직	우천취소
2007. 09. 02. (일)	한화:LG	잠실	7 : 2
	삼성:SK	문학	3 : 0
	현대:KIA	광주	우천취소
	두산:롯데	사직	3 : 4
2007. 09. 04. (화)	현대:LG	수원	8 : 7
	두산:K I A	잠실	10 : 3
	한화:삼성	대전	우천취소
2007. 09. 05. (수)	LG:SK	잠실	우천취소
	한화:KIA	대전	우천취소
	롯데:현대	사직	3 : 7
2007. 09. 06. (목)	LG:SK	잠실	우천취소
	한화:KIA	대전	우천취소
	삼성:현대	대구	우천취소
2007. 09. 07. (금)	LG:SK	잠실	2 : 3
	한화:KIA	대전	4 : 2
	삼성:현대	대구	7 : 4

가:
나:
가:
나:
가:
나:
가:
나:

참고문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251-286쪽.
- 강현화(2002), 「한국어 문화 어휘의 선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397-417쪽.
- 게 에르덴치멕(2006), 「몽골에서의 한국학 연구」, 『한국학연구』 15, 101-117쪽.
- 고송무(1991), 「핀란드와 카작스탄에서의 한국말 및 고려말 교육」, 『교육한글』 4, 한글학회, 241-262쪽.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16쪽.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423-446쪽.
- 김수정(2005), 「일본의 한국어 교재의 실태와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6-2, 1-23쪽.
- 김수현(2005),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재 구성의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44쪽.
- 김영순&보텐명래(1998), 「독일어권 한국인 2세를 위한 교재 개발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39쪽.
- 김영주(2006), 「Taeching Culture in the Advanced KFL Reading Class: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4쪽.
- 김은애(2006), 「한국어 발음 진단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1-97쪽.
- 김일란(2007),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숙 외(2006), 「한국어교재론 개발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김정은(2004),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활용 자료와 방안」, 『

- 겨레어문학』 35, 27-62쪽.
- 김정은(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77-112쪽.
- 김제열(2004), 「한국어 교육 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중급 1단계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285-309쪽.
-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59-85쪽.
- 노명완(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론」,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민현식(2002), 「한국어 교재론: 동남아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워크숍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학회, 149-188쪽.
- 민현식(2005), 「한류 열풍과 한국어교육의 과제」, 『교육정책포럼』, 통권 119호, 한국교육개발원, 3-5쪽.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칭어문』 26-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33-150쪽.
- 박노자(2000),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3-88쪽.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68-89쪽.
- 방성원(2000), 「통합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31쪽.
-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68쪽.
- 배현숙(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178-199쪽.
- 백봉자 외(1997), 「신교재 개발 연구 조사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부 국어정책과 연구과제.
-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16쪽.

- 백봉자(2006),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학술대회 발표문, 1-23쪽.
- 블라디미르 부첵(1991),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 한글』 4, 한글학회, 225-239쪽.
- 서상국, 김시경(2005),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 러시아의 경우: 활용되고 있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0권, 131-148쪽.
- 서종학, 이미향(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 서희정(2004), 「학습자 중심 워크북 개발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5-121쪽.
- 오세인(2007), 「국제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한국 문화 교육 방안」,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121-137쪽.
- 우인혜(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선정」,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149-186쪽.
- 윤여탁(2003a), 「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52쪽.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한국어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 이병규(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이 숙(2007), 「한국어 이동 동사의 어휘화 유형」, 『이중언어학회』 33, 이중언어학회, 169-188쪽.
- 이정희(1999),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1-240쪽.
- 이정희(2004), 「한국어 부교재 개발에 관한 학습자 요구 조사 및 구성 방안」,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233-254쪽.
- 이진숙(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31-350쪽.
- 이해영(2000),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409-434쪽.

- 이해영(2001a),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232쪽.
- 이해영(2001b), 「한국어 교재의 언어활동 영역 분석」,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469-490쪽.
- 이해영(2001c),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의 원리와 실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장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선(200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 내용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희(2002),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2006),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5-279쪽.
-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3-173쪽.
- 조항록(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제1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56쪽.
- 조항록(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를 여는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443-444쪽.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3-250쪽.
- 조항록(2005),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9-305쪽.
- 조현용(2003),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343-364쪽.
- 조현용(2005), 『한국어 교육의 실제』, 유씨엘아이엔씨.
- 하민탄(2006),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현황 및 전망」, 『한국학연구』 15권,

119-133쪽.

한국국제교류재단 위임(2007),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할리나 오가레크-최(1991),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편찬과 교수 방법」, 『교육한글』 4, 한글학회, 175-190쪽.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 검토 및 방향 제시」,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9-284쪽.

황인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 2 - 구어 교수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3-302쪽.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87-329쪽.

황인교(2006),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3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7-227쪽.

현원숙(2001), 「중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74쪽.

Brown, H.D.(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nd edition. Englewood Cliffs,N.J. : Prentice-Hall.

Claire Kramsch(1996),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장복명 외 역(2001), 언어와 문화, 박이정 출판사.

Claire Kramsch(1997),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Dudley-Evans, T., & St. John, M. J.(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D-E & SJ)

Dwight Atkinson(2003), Writing and culture in the post-process era,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2, 49-63쪽.

E. Hinkel(Ed).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50쪽.

Douglas Brown, H.(2001),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H. H. Stern(1986), Fundamental Concept of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Herbert Landar(1966), *Language and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erron, C., Cole, S. P., Corrie, C., & Dubreil, S.(1999), The Effectiveness of Videl-based Curriculum in Teaching Culture, *The modern Languge journal*, 83-4, 518-533쪽.

Hinkel, E(1999),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msch, C.(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Krasner, I.(1999), The Role of Cultura in Language Teaching, *Dialog on Language intruction*, 13-1-2, 79-88쪽.

Ly, Kinh Hien, 2007, 베트남에서의 인문 한국학 , 한국학연구 제17권, pp. 41-61.

Michael Stubbs(1995), Collocations and Cultural Connotations of Common Words, *linguistics and education* 7, p.379-390.

Nancy Bonvillain(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Prentice Hall. 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Nunan, D.(2001), Syllabus Design, in M. Celce-Murcia(d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55-65쪽.

Seelye. H. N.(1988),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linois : National Textbook Company.

Sohn(1995), Performance-based Principles and Proficiency Criteria for KFL Textbook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6, IAKLE, 76-86쪽.

Scott, V. M., & Huntington, J. A.(2002), Reading Culture: Using Literature to Develop C2 Competence, *Foreign Language Annals*, 35-2, 622-631쪽.

<한국어 교재>

김중섭 · 조현용 · 방성원 · 홍윤기 · 호정은(2000), 『한국어 초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연세대 한국어학당(2007), 『연세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여성가족부.

<분석 교재 및 자료>

① 국내 교육 자료

강현화 · 김선정 · 김정숙 · 이해영 · 정희원 · 조선경(200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여성가족부.

백봉자 · 최정순 · 지현숙(2005), 『한국언어문화듣기집』, 하우.

이미혜(2005),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 다락원.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한국문화사.

전수정 · 정은화(2006), 『중국인을 위한 BUSINESS 韓國語 1』, 율촌재단.

전수정 · 정은화(2006), 『중국인을 위한 BUSINESS 韓國語 2』, 율촌재단.

정명숙 · 송금숙 · 이유경(2006),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초급』, 충청북도 교육청.

정명숙 · 송금숙 · 이유경(2006),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중급』, 충청북도 교육청.

정명숙 · 송금숙 · 이유경(2006),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고급』, 충청북도 교육청.

조선경 · 김대옥 · 서경숙(200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가족부.

조선경 · 김민애 · 우인혜 · 우창현 · 이미혜(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우리 엄마의 한국어’』, 농림부,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국제노동재단(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여성가족부.

② 국외 교육 자료

Ebony BAE Hyun Kyung(2006), 『기초 회화용 한국어』, 싱가포르: Ridge Books.

Ishwari Pandey 외 2인, (2007), 『좋은 한국어』, 네팔: KLI.

대취한어공작실(2007), 『한국어 초보자도 한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다』, 북경: 중국우향출판사.

최인실(2002), 『나미 안녕』, 한림출판사.

JOHN. H. KO, Lê Huy Khoa(2005), 『한국어 기본문형』, 베트남: NHÀ XUẤT BẢN TRÉ

LÊ TA TRUNG VINH-HUY KHOA, 정민경(2007), 『무역한국어』, 베트남: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TỰ NHIÊN VÀ CÔNG NGHE.

MỸ TRINH-MINH KHANG(2006),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어』, 베트남: NHÀ XUẤT BẢN TRÉ

NGOC TRANG-KIỀU HƯƠNG(2004), 『한국어』, 베트남: NHÀ XUẤT BẢN THANH NIÊN.

PHẠM MINH KHANG(2005), 『판매원에게 한국어』, 베트남: NHÀ XUẤT BẢN TRÉ

KLEAR(2001), 『Integrated Korean: Beginning Level 1, 2』, Univ. of Hawaii Press.

KLEAR(2001), 『Integrated Korean: Intermediate Level 1, 2』, Univ. of Hawaii Press.

KLEAR(2002), 『Integrated Korean: Advanced Intermediate Level 1, 2』, Univ. of Hawaii Press.

③ 해외 문화원 교육 자료

Liz & John Soars(2004), 『New Headway』, Oxford University Press.

Clive Oxenden, Christina Latham-Koenig, Paul Seligson(2004), 『New English

- File Elementary Student's Boo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Til Schönherr(2005), 『Tangram aktuell Niveau A1/1』, Max Huever Verlag.
-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Til Schönherr(2005), 『Tangram aktuell Niveau A1/2』, Max Huever Verlag.
-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Til Schönherr(2005), 『Tangram aktuell Niveau A2/1』, Max Huever Verlag.
- Rosa-Maria Dallapiazza, Eduard von Jan, Beate Blüggel, Anja Schümann (2005), 『Tangram aktuell Niveau A2/2』, Max Huever Verlag.
- Sylvie POISSON-QUINTON, Marina SALA(2006), 『initial 1』, livre de l'élève, clé international.
- Sylvie POISSON-QUINTON, Marina SALA(2002), 『initial 2』, livre de l'élève, clé international.
- 여필송 ·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대외한어교육발전센터(2007), 『차이나 파노라마(입문편)』, Language&Culture Press (동양문고).
- 여필송 ·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대외한어교육발전센터(2007), 『차이나 파노라마(기초회화편)』, Language&Culture Press (동양문고).
- 여필송 ·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대외한어교육발전센터(2007), 『차이나 파노라마(생활회화편)』, Language&Culture Press (동양문고).
- 오숙평(2007), 『차이나 파노라마 실전회화 기본편』, Language&Culture Press (동양문고).
- The Japan Foundation(2006), 『일본어 초보 I』, YBM si-sa.
- The Japan Foundation(2005), 『일본어 초보 II』, YBM si-sa.

연구책임자 : 백 봉 자

(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어 교육 전공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수 역임
Indiana University 객원교수 역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역임

◆ 주요저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 사전』 (서울: 하우,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공저) (서울: 신원프라임, 2006)
『한국언어문화사진집』 (공저)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5)
『한국언어문화듣기집』 (공저)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5)
『韓國語文法辭典』 (일본 도쿄: 三修社, 2004)
『Korean Composition』 (공저) (미국: Hawaii University Press, 2002)

세종학당 교재 개발 연구

발 행 인 이 상 규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 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 쇄 일 2007년 12월 18일

발 행 일 2007년 12월 21일

인 쇄 한다문화사